

ISSN 2733-564X

부부가족상담연구

제4권 제1호 (2023년 5월)

KAMFT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Kore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부부가족상담연구

제4권 제1호 (2023년 5월)

목 차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문정일 · 오태주 · 박은아	1
□ 성인애착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 불안과 성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최정아 · 예정희 · 이경주	23
□ 교정시설 남성 성범죄자의 대인관계 증진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변증법적 행동치료(DBT)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숙경 · 김영은	45
□ 이마고 관계치료를 통한 협의이혼 신청 부부의 관계회복 과정 연구 이미혜	67
□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 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의 매개효과 강유리 · 오제은 · 김혜진 · 박은아	91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문 경 일**

오 태 주***

박 은 아****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좋은마음 연구소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에 있다. 이를 위해 천성문 등(2022)이 제시한 프로그램 개발모형 6단계를 기초로 현장 전문가의 검증과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총 10회기의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1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배정하고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사후시점에 따라 비교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성인아이 척도, 부모민감성 척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척도,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어머니 내면아이의 성인아이 특성 감소와 부모민감성, 정서표현성, 부모-자녀 의사소통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자의 회기 별 경험보고서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분석에서도 내면아이 인식, 작업, 재양육, 놀라운 아이 통합 과정을 거쳐 자기 이해와 성장, 주체적인 부모역할의 변화과정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내면아이치료,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역할

* 본 연구는 문경일(2023년)의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문경일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부부가족상담대학원 상담학과 결혼과 가족치료 전공

*** 제 2저자: 오태주 좋은마음 연구소 상담사(LCPC)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은아,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부부가족상담대학원 연구주임교수,

321 S State College Blvd., Anaheim CA 92806.

E-mail: eunapark@daybreak.edu

초등 저학년 시기는 자녀들이 학교라는 기관에 들어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부모는 자녀의 학교 적응, 친구 관계, 학업 문제, 긍정적인 생활습관 형성 등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기도 하다(김윤정, 권순희, 2015). 이 시기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한다(권혜진, 정혜옥, 2015; 장희선, 2020). 먼저, 자녀는 부모와의 민감한 상호작용에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형성하게 된다(최지윤, 2021). 그리고 부모는 바람직한 정서표현을 통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생활 적응과(김현주, 백지숙, 2020), 자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자녀의 자기 표현력과 공감 능력, 인지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다(김소연, 2014; Applegate et al., 1992). 따라서, 부모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의 발달과업 성취를 위해 부모민감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정서표현과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교적응이 중요한 시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녀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전히 혼자 책임져야 하는 양육상황은 어머니의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Van et al., 2020). 어머니의 양육부담은 불안감과 심리적 소진, 스트레스로 이어짐으로써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김유식, 정병철, 2020).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빈번하게 화나 분노 표출과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유발하여(박동영, 2012),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자녀의 자기 조절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혜윤, 2017). 또한, 어머니의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자녀의 욕구, 행동,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최지윤, 2021).

이런 어머니의 과도한 책임과 심리적 상태는 원가족 아동기 양육 경험과 연관이 있다. 부모에게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자녀는 어른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보다 오히려 가족의 필요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오면서 성인 이후 자녀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게 된다(Missildine, 2006; Sell, 1992). 또한, 어머니가 아동기 원가족 부모에게서 민감하지 못한 일방적인 양육태도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정서적으로 수용 받지 못한 경험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자녀의 생각과 정서, 경험 등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된다(김혜인, 김은정, 2007; 송현정, 2008; Bettes, 1988; Bradshaw, 2006). 이것은 과거 양육 경험에서 형성된 어머니 내면의 심리 특성을 매개로 현재의 양육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정미경, 김영희, 2003; 조성희, 2011). 이는,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 경험에서 형성된 내면을 이해하고 부모민감성과 정서표현,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모민감성, 정서표현성과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고 있다. 먼저, 어머니의 민감성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모의 민감성과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관계, 자녀의 애착 안정성 등에 효과성이 나타났다(김지수, 박지연, 2017; 이경숙, 정석진, 2017; 홍나래, 방희정, 2018). 하지만, 영유아 및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다양한 연령대와 특성을 지닌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모의 정서표현과 조절능력, 정서반응태도, 양육효능감,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백승선 외, 2017;

정영수, 2019; 한지연, 2016). 반면, 어머니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정서적 신념과 정서 경험이 부모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모-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에서 소개된 프로그램으로 효율적 부모 역할수행을 위한 체계적 훈련(Systematic Training Effective Parenting: STEP)과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ctive Parenting Today: APT)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안경자, 2005; 유은선, 2017; 이경미, 2022). 한편, 부모교육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교육 후 부모역할로 지치면 오히려 부모역할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더 부정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한다(조돌연, 2006). 이는,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자녀양육 기술훈련이나 지식습득에 의존하여 외현적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부모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기 못함으로써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문주형, 2015; 정옥분, 정순화, 2016).

이와는 달리, 부모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자기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부모의 자기 이해 프로그램에서는 Bowen의 가족치료, 분석심리학, 대상관계 이론과 게슈탈트 치료를 토대로 어머니의 원가족 양육 경험과 내면의 미해결과제를 다룸으로써 콤플렉스의 의식화와 자아분화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어머니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을 이해하고, 양육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장성단, 2016; 정현진, 2022). 하지만, 부모의 어린 시절 양육 경험에서 형성된 내면의 문제만을 다루고, 발달단계에서 성취되지 못한 과제를 발견하여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과 부모교육 전문가와 상담전문가의 요구조사를 통한 현장의 필요를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하지 못한 것, 다양한 부모의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프로그램 모형 개발이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발달단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내면의 과제 발견과 해결을 도우며, 체계적인 개발 절차에 따라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면아이 개념은 본래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경이로운 아이의 모습과 원가족 부모로부터 각 발달단계에 맞는 충분한 양육 경험을 받지 못한 상처 받고, 적응된 아이의 모습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Berne, 1964; Capacchione, 1988). 특히 상처받은 아이의 특성이 내면에 남아 성인이 된 개인의 행동, 삶의 태도, 대인관계 등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어린 시절 문제가 자녀에게 거둬 일어나게 됨을 말하고 있다(Bradshaw, 2004; Seamands, 1992). 이에, 내면아이치료에서는 어린 시절 각 발달단계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내면의 아이를 만나 미충족된 욕구와 핵심감정을 인식하고 그때의 고통을 해소하며, 안전과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들과 그 욕구를 채우는 훈련과정을 제시하고 있다(오제은, 2009a; Bradshaw, 2004; Capacchione, 2013; Whitfield, 1995). 현재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먼저,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자기개념, 자아강도, 자기수용, 삶의 태도, 긍정 정서의 강화, 부정 정서의 저하, 부부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에 효과가 나타났다(박영현, 박승민, 2015; 신차선, 2010; 오제은, 2009b; 유숙경, 이경원, 2020; 주보람, 2012).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에서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안지현 외, 2015; 이동천, 2014). 이처럼, 성인의 아동기 부정적 양육 경험에서 형성된 내면아이의 치료와 성장을 돕는 것이 자기

인식과 수용, 정서 및 행동의 변화, 부부 및 자녀관계,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아동기 발달단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내면아이의 미해결과제를 찾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과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다루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기 이해와 성장을 토대로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활성화와 부모교육 및 상담 관련 담당자가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자가 표집한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이며, 블로그와 SNS 네트워크 게시된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과 지인들의 소개로 모집된 참여자이다. 참여 의

사를 밝힌 14명의 어머니에게 실험 실시 전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였고, 7명은 실험집단에, 7명은 통제집단에 무선배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천성문 등(2022)이 개발한 기획, 요구분석, 구성, 예비연구, 실행, 평가의 6단계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기초로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천성문 등(2022)이 제시한 모형을 따른 이유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현실적용 가능성 높여 본 연구자의 개발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기획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고찰을 통해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

요구분석에서는 요구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여 상담심리 전공 박사 1인과 내면아이상담전문가 박사과정 1인, 부모교육전문가 박사과정 1인에게 타당도 검토 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19명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 결과, 어머니는 다양한 부모역할의 부담감, 불안감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4)

구분		실험집단 인원(%)	통제집단 인원(%)
성별	여	7 (100)	7 (100)
연령	48세 이상	1 (14.2)	-
	44-47세	-	3 (42.9)
	39-42세	3 (42.9)	3 (42.9)
	35-38세	3 (42.9)	1 (14.2)
자녀의 연령	10세	1 (14.3)	3 (42.8)
	9세	2 (28.6)	2 (28.6)
	8세	4 (57.1)	2 (28.6)

표 2.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구분	단계	프로그램 개발	주요 내용
1	기획	프로그램 방향 및 목적 설정	어머니의 자기 이해와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지속적 수행
		대상 집단 선정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발달과업성취 및 학교생활 적응의 부모 역할 수행이 필요한 어머니로 선정
		문헌조사 및 이론적 배경조사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도출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요구 분석	대상자 요구조사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지 제작 및 타당성 검증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19명
		전문가 요구조사	내면아이상담전문가, 부모교육전문가, 초등학교 상담교사 대상 총 6명 면담
		요구조사에 따른 시사점	프로그램 구성내용과 운영방식 근거 제시
3	구성	프로그램 목표 설정	문헌연구와 대상자 요구분석, 현장 전문가그룹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세부목표 설정
		변화원리에 따른 프로그램 모형 개발	문헌연구와 요구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기본원리를 도출하여 각 구성요소 간의 순환 관계를 도식화한 모형 개발
		프로그램 세부 활동 및 내용 조직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운영원리 도출하여 예비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평가 및 피드백 전문가 자문결과 수정·보완하여 프로그램 반영
4	예비 연구	지침서 작성	프로그램 구현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침서 제작
		예비연구 계획안 작성	예비연구 실행 계획서 작성
		예비연구 실시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4명 대상 2022. 10. 20 - 11. 3. 총 10회기, 연구자가 직접 실시
5	실행	예비연구 후 수정·보완	참여자와 전문가의 평가로 프로그램 활동요소 수정·보완
		최종 프로그램 실행	최종 프로그램 개발 완료
6	평가	프로그램 효과 평가	양적 자료의 통계분석과 질적 자료의 내용분석으로 평가
		회기 별 프로그램 내용 평가	참여자의 회기 별 경험보고서 및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서

과 죄책감 등의 정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자녀의 기질 및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양육 행동 부족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양육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어머니의 심리상태와 아동기 양육 경험, 자녀의 기질 및 발달 특성과 양육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부모교육에서 도움받고 싶은 부분은 효과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조절 방법, 자녀 기질 및 발달특성을 고려한 민감하고 수용적인 양육 행동 등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서는 10회기, 평일 주 1회 또는 주 2회, 120분 정도를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상담전문가에 의한 집단상담 형태로 강

의, 실습, 역할극, 소그룹 활동이 이뤄지길 원하였으며 팬데믹으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선호하였다. 전문가 요구조사에서는 내면아이 상담 전문가, 부모교육전문가, 초등학교 상담교사 총 6명의 면담을 통해 기존 부모교육에서의 아쉬운 부분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전수되어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어머니의 내면 상태를 다루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상자와 전문가의 요구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 경험과 내면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양육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고, 참여자 간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의 집단형태로 내면아이 상담전문가의 진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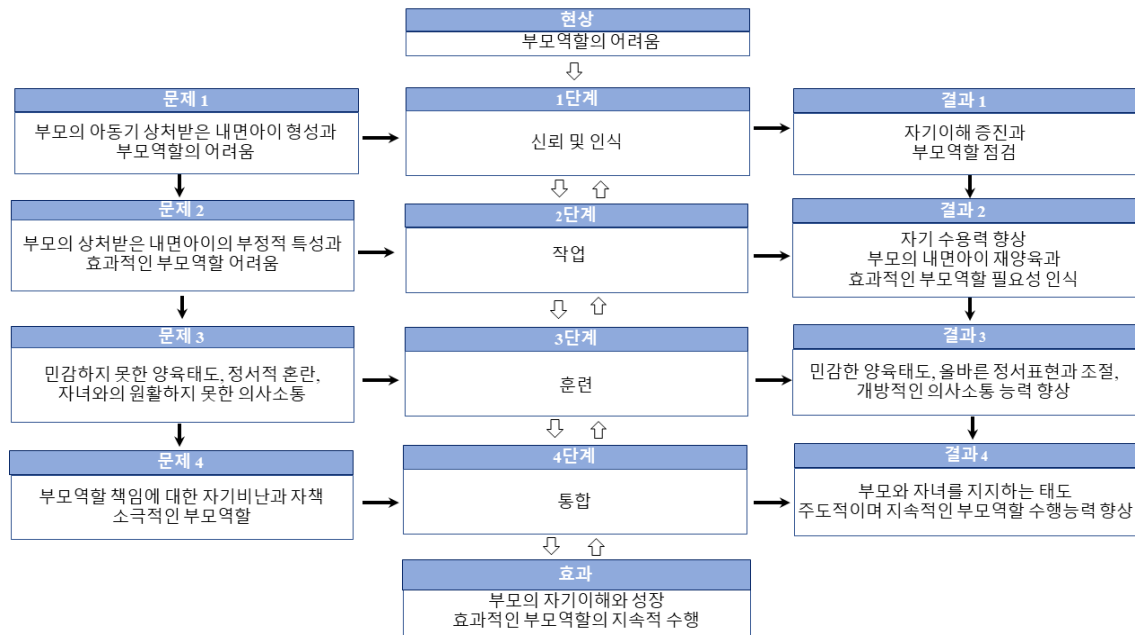


그림 1.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구성에서는 어머니의 자기 이해와 성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지속적인 실행의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대상자 요구 분석, 현장 전문가그룹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세부 목표를 정하였다. 그리고 4단계의 프로그램 변화원리와 모형, 내용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인 신뢰 및 인식단계는 집단의 안전한 신뢰 관계 형성을 토대로 참여자는 내면아이 개념을 이해하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에서 자신의 내면아이를 인식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하고 부모역할을 점검하는 것이다. 2단계 작업단계는 원가족에서 참여자 내면아이의 미충족된 욕구를 발견하며, 억눌린 정서를 표현하고 해소함으로써 자기수용력을 높이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3단계 훈련단계는 민감하고 수용적인 양육태도, 올바른 정서표현과 지도 방법,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여 참여자

의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4단계 통합단계는 참여자와 자녀의 본래의 모습으로 통합하고, 자신과 자녀를 지지하는 태도로 지속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4단계의 변화원리를 반영한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을 조직하기 위하여 부모의 내면아이 인식과 작업, 핵심 양육기술 습득으로 부모의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훈련 병행을 구성원리로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회기당 120분, 주 2회로 운영되며 지도자 1명과 7~10명의 집단원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도입 활동으로 참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을 위해 별칭 짓기, 자기소개 하기, 놀이 활동, 과제수행 소감 나누기 등을 시작하며, 전개 활동은 회기 별 주제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내면아이

작업,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훈련을 위해 실습, 역할극, 소그룹 나눔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마무리 활동에서 본 회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느낀 점에 대해 경험보고서 작성과 실천과제 제시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예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이 각 회기 활동별로 세분화되고, 프로그램 목표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학 교수 2명, 내면아이 상담전문가 박사 1명, 부모교육전문가 박사과정 재학생 2명 등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 평가를 의뢰하여 검증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결

표 3.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단계	회기	주제	목 표	활 동 내 용
신뢰 및 인식	1	내면아이 이해하기	· 참여자 간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 · 내면아이 개념과 특성 이해 · 부모의 자기 이해 촉진	- 별칭 짓기 및 자기 소개하기 - 내면아이 개념 강의 - 부모의 아동기 모습 인식 실습
	2	내면아이 형성	· 원가족체계에서 부모의 상처받은 내면아이 형성의 이해 · 부모역할 점검	- 실타래 게임 - 내면아이 형성 강의 - 부모역할 소그룹 나눔
작업	3	부모 내면아이 작업하기: 양육태도	· 원가족 부모양육태도 경험이 모-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해 · 부모의 자기수용 향상 · 효과적인 부모역할 필요성 인식	- 원가족 부모양육태도 경험과 내면아이 강의 - 내면아이 작업 실습 - 부모역할 소그룹 나눔
	4	부모 내면아이 작업하기: 정서표현	· 원가족에서의 정서표현 경험이 모-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해 · 부모의 자기수용 향상 · 효과적인 부모역할 필요성 인식	- 원가족 정서표현 경험과 내면아이 강의 - 내면아이 작업 실습 - 부모역할 소그룹 나눔
	5	부모의 내면아이 작업하기: 의사소통	· 원가족에서의 의사표현 경험이 모-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해 · 부모의 자기수용 향상 · 효과적인 부모역할 필요성 인식	- 원가족 의사소통과 경험과 내면아이 강의 - 내면아이 작업 실습 - 부모역할 소그룹 나눔
훈련	6	부모의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훈련하기: 양육태도	· 민감하고 수용적인 부모 양육태도 이해 · 부모의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능력향상	- 민감하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로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강의 - 내면아이 재양육 실습 - 부모 양육태도 역할극
	7	부모의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훈련하기: 정서표현	· 부모의 정서표현 모델링과 지도방법 이해 · 부모의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능력향상	- 올바른 정서표현과 지도로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강의 - 내면아이 재양육 실습 - 올바른 정서표현과 지도방법 역할극
	8	부모의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훈련하기: 의사소통	·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 이해 · 부모의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능력향상	-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강의 - 내면아이 재양육 실습 - 듣기와 말하기 의사소통 실습
통합	9	놀라운 아이 발견하기	· 놀라운 아이 개념 이해 · 부모와 자녀를 지지하는 태도	- 놀라운 아이 발견하기 강의 - 부모와 자녀의 놀라운 아이 만나기 실습
	10	놀라운 아이와 동행하기	· 놀라운 아이 동행하기 이해 · 부모의 자기 성장을 촉진 · 지속적인 부모역할 수행	- 놀라운 아이와 동행하기 강의 - 원가족 부모 떠나보내기 실습 - 감격 선언문 작성하기 실습 - 지속적인 부모역할 다짐하기

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수정·보완하였으며 지침서를 제작하여 점검받아 예비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4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20일(목)부터 11월 3일(목)까지 매주 화, 목 2회기 3시간씩 총 10회기에 걸쳐 본 연구자가 직접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회기 별 소감 나누기 및 경험보고서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마지막 회기를 마친 이후 예비연구 평가지를 통해 전체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예비연구 후에 참여자와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활동내용, 적용방식 등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실행단계에서는 예비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피드백과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최종 프로그램으로 총 10회기, 회기 당 120분씩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최종 프로그램의 주제, 목표와 활동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마지막 평가에서는 양적 자료의 통계 분석과 참여자의 회기 별 경험보고서와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평가서 등 질적 자료의 내용분석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측정도구

성인아이 척도

어머니 내면아이의 성인아이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홍운(2000)이 개발한 성인아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아이 척도의 하위요인 이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박희룡(2015)의 연구에서 재명명한 것을 사용했으며, 총 36문항으로 불안감(8문항),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10문항), 부적절한 감정관리(9문항), 부적절한 책임감(9문항)과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거의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인아이 특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김홍운

(2000)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부모민감성 척도

어머니의 민감하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지윤(2021)이 개발한 부모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신속하게 인식하기(10문항), 정확하게 이해하기(3문항), 적절하게 반응하기(13문항)와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적절하게 반응하기 3문항(18,19,20)은 역채점하여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지윤(2021)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척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임진화(2018)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Halberstadt 등(1995)이 개발한 자기표현설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 SEFQ)의 간편형 척도인 Short Form of the SEFQ를 여은진(2009)이 번안한 후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성(11문항), 부정적 정서표현성(13문항)과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음'의 1점에서 '매우 자주 함'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부정적 정서표현은 역채점하여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정서표현을 잘함을 나타내며 정서표현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임진화(2018)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어머니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Barnes와 Olson(1982)가 개발한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PAC)을 김윤희(1989)가 번안하고 그 후 심성경(1996)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긍정적 의사소통(10문항), 부정적 의사소통(5문항)과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부정적 의사소통은 역채점하여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함을, 부정적 의사소통을 적게 함을 의미한다. 고경미(2014)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수집

된 자료를 SPSS WIN 26.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위해 독립표본 t 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사전검사 시 발생한 차이를 보정하고 사전검사 결과를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통제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 결과를 보다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 참여자가 회기별로 작성한 경험보고서, 프로그램 종결 후 작성한 소감문과 면담한 녹음자료를 토대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성인아이 특성, 부모민감성, 정서표현성,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점수가 프로그램 이전에 동질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N = 14)

관련변인	실험집단 (n=7)	통제집단 (n=7)	등분산 검증		t	p
	M(SD)	M(SD)	F	P		
성인아이 특성 전체	86.71(13.85)	87.57(13.84)	.01	.94	-.12	.91
불안감	17.14(5.15)	19.00(4.51)	.13	.72	-.72	.49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25.57(4.79)	24.57(3.36)	3.19	.10	.45	.66
부적절한 감정관리	23.71(3.35)	20.29(4.39)	.75	.40	.20	.85
부적절한 책임감	20.29(4.39)	20.71(13.84)	.91	.36	-.20	.84
부모민감성 전체	92.00(7.42)	96.29(8.73)	.02	.90	-.99	.34
신속하게 인식하기	40.29(4.92)	40.86(4.18)	.01	.93	-.23	.82
정확하게 이해하기	12.00(1.29)	11.29(0.76)	.46	.52	1.26	.23
적절하게 반응하기	39.71(3.45)	43.57(6.63)	1.27	.28	-1.37	.20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전체	87.57(5.41)	88.14(3.24)	.86	.37	-.24	.82
긍정적 정서표현성	41.86(1.35)	41.29(1.25)	.01	.92	.82	.43
부정적 정서표현성	32.29(6.18)	31.14(3.67)	1.42	.26	.42	.68
부모-자녀 의사소통 전체	42.43(5.74)	44.29(4.79)	.08	.79	-.66	.52
긍정적 의사소통	28.71(5.59)	29.86(2.85)	1.27	.28	-.48	.64
부정적 의사소통	11.29(1.70)	10.57(2.82)	2.36	.15	.57	.58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 각각에 대해 독립표본 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시하기 이전에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내면아이의 성인아이 특성, 부모민감성, 정서

표현성,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인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설정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시행하였다. 변인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오차는 표 5와 같으며,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6, 표 7, 표 8, 표 9에 제시하였다. 성인아이 특성의 경우 실험집단 점수의 평균이 사전검사($M=86.71$)에 비해 사후검사($M=67.43$)와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사후값

표 5. 집단 간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 14)

관련변인	실험(n=7)			통제(n=7)		
	사전	사후	조정된 사후값	사전	사후	조정된 사후값
	M(SD)	M(SD)	M'(SE)	M(SD)	M(SD)	M'(SE)
성인아이	전체	86.71 13.85	67.43 11.28	67.40 6.27	87.57 13.84	88.57 19.47
	불안감	17.14 5.15	14.00 3.51	14.05 2.08	19.00 4.51	19.14 6.49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25.57 4.79	19.43 3.64	19.33 1.98	24.57 3.36	25.71 6.18
	부적절한 감정관리	23.71 4.68	18.14 2.73	18.15 1.25	23.29 3.35	23.57 3.55
	부적절한 책임감	20.29 4.39	15.86 3.13	15.79 1.44	20.71 3.50	20.14 4.49
	전체	92.00 7.42	106.57 8.85	105.67 3.23	96.29 8.73	91.86 8.57
	신속하게 인식하기	40.29 4.92	44.29 3.77	44.27 1.34	40.86 4.18	39.43 2.99
	정확하게 이해하기	12.00 1.29	12.57 1.27	12.78 .42	11.29 0.76	11.00 1.15
부모민감성	적절하게 반응하기	39.71 3.45	49.71 5.19	49.47 2.59	44.14 6.44	41.43 7.16
	전체	87.57 5.41	99.43 5.97	99.41 2.14	88.14 3.24	87.43 4.83
	긍정적 정서표현성	41.86 1.35	47.43 6.45	47.93 1.70	41.29 1.25	39.43 2.23
	부정적 정서표현성	32.29 6.18	21.57 4.83	21.23 1.14	31.14 3.67	30.00 3.46
	전체	42.43 5.74	52.00 3.06	51.99 2.06	44.29 4.79	43.43 6.65
	긍정적 의사소통	28.71 5.59	33.86 3.44	33.87 1.52	29.86 2.85	28.43 4.20
	부정적 의사소통	11.29 1.70	6.86 1.07	6.82 .89	10.57 2.82	10.00 3.00
	전체	87.57 5.41	99.43 5.97	99.41 2.14	88.14 3.24	87.43 4.83
정서표현성	전체	87.57 5.41	99.43 5.97	99.41 2.14	88.14 3.24	87.43 4.83
	전체	87.57 5.41	99.43 5.97	99.41 2.14	88.14 3.24	87.43 4.83
	전체	87.57 5.41	99.43 5.97	99.41 2.14	88.14 3.24	87.43 4.83
	전체	87.57 5.41	99.43 5.97	99.41 2.14	88.14 3.24	87.43 4.83
부모-자녀 의사소통	전체	87.57 5.41	99.43 5.97	99.41 2.14	88.14 3.24	87.43 4.83
	전체	87.57 5.41	99.43 5.97	99.41 2.14	88.14 3.24	87.43 4.83
	전체	87.57 5.41	99.43 5.97	99.41 2.14	88.14 3.24	87.43 4.83
	전체	87.57 5.41	99.43 5.97	99.41 2.14	88.14 3.24	87.43 4.83

표 6. 성인아이 특성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분산분석

(N = 14)

관련 변인	Source	SS	df	MS	F	p
전체	공변인	7.45	1	7.45	.03	.87
	집단	1573.55	1	1573.55	5.73*	.04
	오차	3021.00	11	274.64		
	수정된 합계	4602.00	13			
불안감	공변인	.80	1	.80	.03	.87
	집단	85.37	1	85.37	2.88	.19
	오차	326.06	11	29.64		
	수정된 합계	419.43	13			
성인아이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공변인	8.76	1	8.76	.32	.58
	집단	145.05	1	145.05	5.31*	.04
	오차	300.38	11	27.31		
	수정된 합계	447.43	13			
부적절한 감정관리	공변인	.04	1	.04	.00	.95
	집단	102.58	1	102.58	9.36*	.01
	오차	120.53	11	10.96		
	수정된 합계	223.71	13			
부적절한 책임감	공변인	15.39	1	15.39	1.06	.33
	집단	68.23	1	68.23	4.68*	.04
	오차	160.38	11	14.58		
	수정된 합계	244.00	13			

주, * $p < .05$

표 7. 부모민감성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분산분석

(N = 14)

관련 변인	Source	SS	df	MS	F	p
전체	공변인	359.61	1	359.61	5.14*	.04
	집단	538.76	1	538.76	7.70*	.02
	오차	769.99	11	70.00		
	수정된 합계	1668.36	13			
부모민감성 신속하게 인식하기	공변인	2.87	1	2.87	.23	.64
	집단	80.88	1	80.88	6.45*	.03
	오차	137.97	11	12.54		
	수정된 합계	221.71	13			
정확하게 이해하기	공변인	1.09	1	1.09	.93	.36
	집단	12.32	1	12.32	10.47*	.01
	오차	12.95	11	1.18		
	수정된 합계	26.36	13			
적절하게 반응하기	공변인	69.52	1	69.52	1.64	.23
	집단	174.82	1	174.82	4.14	.07
	오차	465.10	11	42.28		
	수정된 합계	709.43	13			

주, * $p < .05$

표 8. 정서표현성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분산분석

(N = 14)

관련 변인	Source	SS	df	MS	F	p
정 서 표 현 성	공변인	.62	1	.62	.02	.89
	전체	집단	499.17	1	499.17	15.56**
	오차	352.81	11	32.07		.002
	수정된 합계	857.43	13			
	공변인	61.88	1	61.88	3.13	.11
	긍정적 정서표현성	집단	268.26	1	268.26	13.56**
	오차	217.55	11	19.78		.004
	수정된 합계	503.43	13			
	공변인	112.53	1	112.53	12.48	.005
	부정적 정서표현성	집단	286.68	1	286.68	31.80***
	오차	99.19	11	9.02		.000
	수정된 합계	460.36	13			

주, ** $p < .01$, *** $p < .001$

표 9.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분산분석

(N = 14)

관련 변인	Source	SS	df	MS	F	p
부 모 자 녀 의 사 소 통	공변인	.02	1	.02	.001	.98
	전체	집단	247.29	1	247.29	8.46*
	오차	321.69	11	29.25		.01
	수정된 합계	578.86	13			
	공변인	.11	1	.11	.007	.94
	긍정적 의사소통	집단	102.12	1	102.12	6.37*
	오차	176.46	11	16.04		.03
	수정된 합계	279.71	13			
	공변인	.61	1	.61	.11	.75
	부정적 의사소통	집단	35.14	1	35.14	6.42*
	오차	60.25	11	5.48		.03
	수정된 합계	95.43	13			

주, * $p < .05$

($M=67.40$)에서 낮아졌고,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87.57$)에 비해 사후검사($M=88.57$)와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사후값($M=88.61$)에서 오히려 높아졌다. 그리고 부모민감성은 실험집단 점수의 평균이 사전검사($M=92.00$)에 비해 사후검사($M=106.57$)와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사후값($M=105.67$)에서 높아졌고,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96.29$)에 비해 사후검사($M=91.86$)와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사후값($M=92.76$)에서 오히려 낮아졌다. 정서표현

성은 실험집단 점수의 평균이 사전검사($M=87.57$)에 비해 사후검사($M=99.43$)와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사후값($M=99.41$)에서 높아졌고,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88.14$)에 비해 사후검사($M=87.43$)와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사후값($M=87.44$)에서 오히려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실험집단 점수의 평균이 사전검사($M=42.43$)에 비해 사후검사($M=52.00$)와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사후값($M=51.99$)에서 높아졌고,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4$

4.29)에 비해 사후검사($M=43.43$)와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사후값($M=43.44$)에서 오히려 낮아졌다.

성인아이 특성, 부모민감성, 정서표현성,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아이 특성 전체 [$F(1, 11)=5.73, p<.05$]는 통계적 유의하였으며, 하위요인 중 불안감을 제외한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F(1, 11)=5.31, p<.05$], 부적절한 감정관리 [$F(1, 11)=9.36, p<.05$], 부적절한 책임감 [$F(1, 11)=4.68, p<.05$]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부모민감성 전체 [$F(1, 11)=7.70, p<.05$]는 통계적 유의하였으며, 하위요인 중 적절하게 반응하기 제외한 신속하게 인식하기 [$F(1, 11)=6.45, p<.05$], 정확하게 이해하기 [$F(1, 11)=10.47, p<.05$]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서표현성 전체 [$F(1, 11)=15.56, p<.01$], 하위요인 긍정적 정서표현성 [$F(1, 11)=13.56, p<.01$], 부정적 정서표현성 [$F(1, 11)=31.80, p<.001$]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전체 [$F(1, 11)=8.46, p<.05$], 하위요인 긍정적 의사소통 [$F(1, 11)=6.37, p<.05$], 부정적 의사소통 [$F(1, 11)=6.42, p<.05$]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 결과를 보다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 참여자의 내면아이 인식과 변화의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회기별 경험 보고서 내용과 프로그램 종결 후 작성한 소감문과 면담 녹음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용분석에 있어 연구 전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박사 2인과 상담심리 교수에게 본 연구의 내용분석을 감수받았다.

내용분석은 어머니의 내면아이 인식, 내면아이 작업,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훈련, 어머니와 자녀의 본래 모습으로 통합에 따라 범주화하여 하위 범주와 구성요소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경험의 변화양상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구성요소
내면아이 인식	자기 이해	- 상처받은 내면아이 인식과 측은한 심정 - 상처받은 내면아이 형성과 자신의 행동, 모습 및 관계 이해
	부모역할 점검	자녀양육 어려움의 이유 인식
내면아이 작업	내면아이 만남	- 미해결과제를 지닌 어머니의 내면아이를 만남 - 내면아이의 억눌린 감정표출 - 원가족 양육경험이 부모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인식 - 부모의 내면아이 재양육 필요성 인식
	부모역할 변화 필요성 인식	수용적 양육태도, 올바른 정서표현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부모역할 변화 필요성 인식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훈련	내면아이 재양육	- 신뢰 및 지지해 주기 - 함께 있어 주기 - 정서와 욕구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 대화 나누기
	효과적인 부모역할 실천	- 효과적인 부모역할 인식 - 효과적인 부모역할 실천 다짐 - 효과적인 부모역할 실천 경험
어머니와 자녀의 본래 모습으로 통합	놀라운 아이 만남	- 내 안의 놀라운 아이 발견 - 본래의 나로 살기 - 나와 자녀 지지하기
	주체적인 부모역할	- 놀라운 아이와 동행하는 부모역할 - 주도적이며 지속적 부모역할

내면아이 인식

〈자기 이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아이 개념을 이해하고,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관련된 부모의 어린 시절 모습을 인식하는 실습을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아이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측은한 심정을 느끼며, 현재 자신의 행동과 모습 및 관계를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존재감 없는 아이, 부모님의 정서를 흡수 하여 중재하는 아이, 눈치 보는 아이, 차별받는 아이 모습이 떠올랐다.”-참여자(1)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었던 상황을 들여다 보면서 그때 나의 감정과 반응의 패턴을 배우자와 아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참여자(2)

〈부모역할 점검〉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원가족체계에서 부모의 내면아이 형성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부모역할 점검과 효과적인 부모역할 목표 세우기 실습을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감정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원인이 나의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것도 새롭게 보게 되었다.”-참여자(7)

“나의 책임감과 억울함, 버거움을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아이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내가 했던 역할을 주고, 그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못마땅해했었다.”-참여자(3)

내면아이 작업

〈내면아이 만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원가족에서 비판적인 양육태도, 부정적 정서표현과 폐쇄적인 의사소통의 양육 경험을 한 부모의 내면아이 만나기 실습과 소그룹 나눔을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아동기 미해결과제를 지닌 내면아이를 만나고,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말과 감정을 표현해 봄으로써 부정적 감정의 해소 및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의 내면아이를 주눅 들게 했던 비판적인 부모를 만나 나의 목소리를 내본 것이 의미 있었다. 그때는 하지 못했던 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잘 몰랐어요, 친절하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췌려보지 마세요, 무섭고 눈물이 나요’라는 말을 소리 내어 말해보면서 상처받았던 내면아이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참여자(4)

〈부모역할 변화 필요성 인식〉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원가족에서 양육 경험이 부모 자신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소그룹 나눔을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원가족에서 미충족된 양육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내가 받았던 비판적 양육 태도와 듣기 싫었던 말들을 내 자녀에게 하고 그대로 물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 보며, 너 알아서 해 보라는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참여자(1)

내면아이 재양육과 부모역할 훈련

〈내면아이 재양육〉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민감하고 수용적인 양육태도, 올바른 정서표현과 지도, 개방적인 의사

소통의 양육방법을 학습하였고, 내면아이 재양육 실습과 소그룹 나눔, 과제 실천 등으로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내면아이에게 신뢰와 지지 주기, 정서와 욕구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등의 재양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완벽해야 해. 성숙해야 해.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해. 부모 역할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완벽주의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다. 오늘 활동을 하면서 죄책감에 찌그러져 있는 내면아이가 느껴졌고, 그 아이가 죄책감을 넘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내가 내면의 아이를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자꾸 말을 걸어서 내면아이가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겠다.”-참여자(3)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상한 건지,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욕구 때문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 보면서 내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참여자(5)

〈효과적인 부모역할 실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역할극과 소그룹 나눔, 과제 실천 등으로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인식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실천하는 경험을 하였다.

“아이가 학교에서 예술제를 하는데 얼마만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이는 아빠와 할머니가 모두 오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혹시 못 오게 되면 아이가 속상할 텐데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 시키려고 하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잘 받아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참여자(3)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아이의 말을 거울처럼 돌려주며 공감해 주기를 많이 연습해 보고 싶었는데, 마침 아이가 방과 후 로봇 시간에 만

들던 로봇을 다 끝내지 못해 속상해 하는 상황이 있었다. 평소에도 공감해 주려 노력은 했지만, 오늘은 특히 아이 기분에 대해 더 물어보고, 거울처럼 돌려주며 공감해 주고 기다려 주니 아이의 기분이 쉽게 풀어졌다.”-참여자(4)

“내가 의사소통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나의 감정대로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표현했던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부분들에 영향을 끼쳤는지 몰랐다. 내가 좀 더 숙지하고 이전의 방식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참여자(7)

어머니와 자녀의 본래 모습으로 통합

〈놀라운 아이 만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놀라운 아이 발견하기에 대한 강의와 실습, 소그룹 나눔, 과제 실천 등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놀라운 아이를 발견하고, 일상생활에서 본래의 나로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 자신에 대해 괜찮은 존재로 바라보며 자녀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내면아이를 보면서 참 잘 노는 아이였는데, 나의 에너지는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놀라운 아이는 그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지냈는데 말이다. 그래도 즐거웠던 일들도 있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창조적인 아이는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엄마의 높은 구두를 신으면서 거실을 런웨이 삼아 모델이 된 듯 걸어 다닌 장면을 떠올려 보니,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를 깨닫는 시간도 되었다.”-참여자(1)

〈주체적인 부모역할〉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놀라운 아이 동행하기에 대한 강의, 감격 선언문 작성하기 실습, 효과

적인 부모역할 다짐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참여자에게 나타난 경험은 어머니는 자신의 놀라운 아이를 생각하면서 주체적인 부모역할을 실천과 성장하는 어른으로서의 지속적인 부모역할을 다짐하였다.

“무엇보다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더 각별해진 것 같다. 그냥 예전에 흘러 지나갔는데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기술도 조금 더 좀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도 이제 아이와 함께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참여자(7)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 이해와 성장을 토대로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고찰을 통해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상 집단과 전문가그룹의 요구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 모형 개발하고 예비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현장전문가 검증을 받아 프로그램 목표달성의 현실 가능성을 높였다. 대상 집단에게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평가 및 수정·보완 사항을 받음으로써 최종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끝으로, 최종 프로그램의 실행과 평가를 통해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

다. 따라서, 천성문 등(2022)이 제시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면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내면아이의 성인아이 특성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성인아이 특성 수준 전체와 하위영역인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부적절한 감정관리, 부적절한 책임감에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회기에서 참여자는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서 형성된 내면의 부정적 특성과 영향을 이해하는 교육과 실습을 경험하였다. 또한, 3-5회기에서 원가족 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와 억압된 정서표현, 과도한 책임감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아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참여자 내면의 부정적 특성 변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6-8회기에 참여자는 수용적 태도로 부모-자녀 관계 맺기, 올바른 정서표현과 적절한 책임감 갖기 등의 내용으로 교육과 실습 경험을 자녀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성인아이 특성 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아이 치료 후 참여자는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 욕구를 표현하고 관리하며 균형 있는 책임감을 보이게 되었다는 연구결과(오제는, 2009b; 조상호, 2017; Bradshaw, 2004; Capacchione, 2013; Whitfield, 1995)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 성인아이 특성인 불안감 수준 감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아이 특성인 불안감을 다룬 김홍운(2000)과 박혜리(2015)의 연구에서 불안감 수준이 감소되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가 부모역할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의 사례를 토대로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불안감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내면

아이 작업에서 다루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정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민감성 수준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부모민감성 수준 전체와 하위영역 신속하게 인식하기, 정확하게 이해하기에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는 자녀의 행동 변화와 정서, 욕구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의 어려움이 아동기 양육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적인 양육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부모역할 훈련단계에서 참여자는 자신과 자녀의 행동, 정서와 욕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교육과 실습으로 습득하고 자녀가 위협하지 않은 범위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보고함으로써 부모민감성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게 되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욕구나 감정에 더욱 민감해지며, 더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결과(심숙영, 2016; Ryff & Singer, 1998)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 적절하게 반응하기 수준 향상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온정적, 자율적, 한계 설정의 구조적 양육 행동을 증진시키게 되었다는 연구결과(정교용, 2011)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참여자가 부모역할에서 경험하는 양육태도의 어려운 사례를 충분히 나누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양육 행동을 교육하고,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수준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서표현성 수준 전체와 하위영역인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에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회기에서 참여자는 아동기 억눌린 정서 경험의 내면아이 그림 그리기와 내면아이 대화법 실습을 통해 정서를 표출하는 작업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6회기에서 부모의 올바른 정서표현 교육과 평소 억눌렀던 부정적 정서의 적절한 표현방법을 실습해 봄으로써 참여자의 정서표현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집단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정서 경험을 해봄으로써 정서표현성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이동주, 2012; 정효정, 2014)와 참여자들의 억눌렀던 감정을 발산시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감소 되었다는 연구결과(장현수, 김혜숙, 2010)와 맥을 같이한다.

다섯째,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서표현성 수준 전체와 하위영역인 긍정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의사소통 모두에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는 내면아이 만남을 통해 아동기 부모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한 미해결과제를 지닌 자신을 알아차렸다. 참여자는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표현해 봄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내 본 것에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개념과 개방적 의사소통의 부모역할에 대해 교육을 받고, 듣기와 말하기 실습을 자녀와 실천해 봄으로써 부모-자녀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를 이해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익힘으로써 어머니-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한민경 외, 2010)와 평소 어머니의 원활하지 않은 습관적인 의사소통의 패턴과 걸림돌을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고 인식하게 도움으로써 자녀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김희행, 2012)와 맥을 같이한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인 개발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둘째 내면아이 치료와 부모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봄으로써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 이해와 성장을 토대로 지속적인 부모역할 수행 향상을 위한 원리와 효과를 밝혔다는 점, 셋째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부모교육 및 상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 넷째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아버지의 부모역할과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참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의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하여 부모역할의 변화를 다각적인 검증방법으로 살펴본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내면아이와 자녀를 돌보는 것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선순환된다는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지속적 수행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프로그램 종결 후 추후 검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경미 (2014). PSWS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부모 효능감 및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혜진, 정혜옥 (201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지원연구**, 10(4), 79-96.
- 김소연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식, 정병철 (2020). 코로나19 상황이 전업 주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 1, 11(6), 567-578.
- 김윤정, 권순희 (2015).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상 분석. **청람어문교육**, 53, 183-230.
- 김윤희 (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수, 박지연 (2017). 가정방문 양육코칭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영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7(3), 1-31.
- 김현주, 백지숙 (2020).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8(3), 21-34.
- 김혜인, 김은정 (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7(1), 214-215.
- 김홍운 (2000). **성인아이의 분노조절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형 (201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주형 (2015). **교류분석에 기초한 집단상담식 유아부모교육 운영과정과 경험탐색**.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동영 (2012).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3), 1170-1177.
- 박영현, 박승민 (2015). 어린 시절 상처 치유 경험과 부부관계 변화과정 연구:내면아이치유 집단상담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1), 239-271.
- 박혜리 (2015). **만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내면아이치료 집단 상담이 고교생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룡 (2015). **대학생 성인아이 특성과 정서인식 명확성, 자기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커플 관계탄력성의 관계**.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승선, 안연경, 광경화 (2017). 감성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7(2), 1-24.
- 송현정 (2008). **어머니의 아동기 모-자녀 관계 및 성격특성이 현재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차선 (2010).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한국형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자기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성경 (1996).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47-59.
- 심숙영 (2016). 사회적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애착유형과 영유아의 사회정서유능성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5(1), 21-47.
- 안경자 (2005). **역할놀이를 병행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지현, 이동천, 권영란 (2015). 내면아이상담을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자녀관계만족도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719-2731.
- 여은진 (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재은 (2009a). **상처받은 내면아이치유 세미나 워크북**. 서울: 내면아이치료연구소.
- 오재은 (2009b). 내면아이 치료와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재구성 경험의 해석학적 연구: 실존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 **상담학연구**, 10(3), 1305-1325.
- 유숙경, 이경원 (2020).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사용자 회복을 위한 내면아이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혼합연구방법론 접근. **교정연구**, 30(2), 31-68.
- 유은선 (2017).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양육태도, 효능감,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 (2022).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영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정석진 (2017).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 민감성 증진을 위한 비디오 피드백 개입 (VIIPS)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3), 103-122.
- 이동주 (2012). **Satir모델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어머니의 의사소통, 정서표현성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천 (2014). **내면아이와 비폭력대화를 접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진화 (2018).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성단 (2016). **자기이해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현수, 김혜숙 (2010). 집단미술치료가 문제행동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101-125.
- 장희선 (2020).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전이와 부모, 교사 예측요인 검증. **교육문화연구**, 26(6), 481-506.
- 정교영 (2011).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 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정영수 (2019). **정서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부모효능감 변화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정순화 (2016).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현진 (2022). **Mahler와 Winnicott 이론을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효정 (2014). **집단미술치료가 정서적인 문제를 지닌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들연 (2006). **체계적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상호 (2017).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내면아이의 치료에 미치는 효과**.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희 (2011).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에 근거한 어머니의 양육 경험 탐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보람 (2012).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이 자기개념 및 자아강도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성문, 함경애, 박명숙, 김동원 (2022). **집단상담**. 서울: 학지사.
- 최지윤 (2021). **부모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남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윤 (2017).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12(3), 47-69.
- 한민경, 한윤경, 정미숙 (2010). 상호교류분석 이론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35-256.
- 한지연 (2016). **감정코칭 부모교육 적용과정에 나타난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나래, 방희정 (2018). 양육 민감성과 안정 애착 증진을 위한 애착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9(2), 91-108.
- Applegate, J. L., Burlson, B. R., & Delia, J. G. (1992). Reflection-enhancing parenting as an antecedent to children's social-cognitive and communicative development. In I.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Vol. 2, pp. 3-3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rne E. (1964). *Games people play: the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New York: Grove Press.
- Bettes, B. A. (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erac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Bradshaw, J. (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치유[*Home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0년에 출판)
- Bradshaw, J. (2006). 가족: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The family: A new way of creating solid self-esteem*].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0년에 출판)
- Capacchione, L. (1988). *The power of your other hand*. N. Hollywood, Newcastle.
- Capacchione, L. (2013). 당신의 내면의 아이 회복[*Recovery of Your Inner Child*]. (문종원 역). 서울: 기쁜소식. (원전은 1991년에 출판)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 - 103.
- Missildine, W. H. (2006). 몸에 밴 어린시절[*Your Inner Child of the Past*]. (이종범, 이석규 공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원전은 1963년에 출판)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Seamands, David A. (1992).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Putting Away Childish Things*]. (윤병하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원전은 1982년에 출판)
- Sell, C. (1992).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Unfinished business*]. (정동섭, 최민희 공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원전은 1989년에 출판)
- Van, B. J. J., Baicker, K., Boggio, P. S., Valerio, C., & Robb, W. (2020).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ur*, 4(5), 460-471.
- Whitfield, C. L. (1995).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Healing the Child within*]. (김용교, 이인출 역). 인천: 글샘. (원전은 1987년에 출판)

원 고 접 수 일 : 2023년 04월 07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3년 05월 03일

게 재 확 정 일 : 2023년 05월 19일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Using Inner Child Therapy for Mothers with Children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Kyoung Il Moon

Tae Ju Oh

Euna Park

Daybreak University

Washington Mindcare Institute

Daybrea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using Inner Child Therapy for mothers with children in lower elementary school.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0 sessions of final programs were develop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14 mothers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and comparisons were made according to pre- and post-time poi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of the mother's inner child's adult child characteristics and the improvement of parental sensitivity, emotional express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lso showed the participants' self-understanding and growth,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ir role as active parents.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Inner child therapy, parent education program, parental role

성인애착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 불안과 성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최 정 아* 예 정 희** 이 경 주***

송도 있는그대로 파주 윤정 한국가족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남녀의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과 커플적응의 관계에서 불안과 성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상담센터를 방문한 부부를 포함한 커플관계에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인애착, 커플적응, 불안, 성생활만족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애착회피가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과 성생활만족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애착불안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과 성생활만족도가 각각 유의하게 매개하였으나 이중매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성인애착의 하위유형인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커플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커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커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커플적응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애착회피, 애착불안, 커플적응, 성생활만족도, 불안

* 제1저자 : 최정아, 송도 있는그대로 심리상담센터

** 제2저자 : 예정희, 파주 윤정 심리상담센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경주, 한국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Tel : 070-7425-0496, E-mail : ryulee69@hanmail.net

서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부부간의 적응은 중요한 요인으로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 대인 간, 상호인구학적 측면 등 여러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2004). 최근에는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동거관계나 연인관계에 있는 커플들도 점차 증가(홍정희, 2020)하고 있어 사회적인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랑의 연장선에서 서로의 행복을 지속, 유지하고자 동거를 선택하거나, 제도적 결혼제도의 거부감과 이혼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들도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실생활에서 상대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인식(홍정희, 2020)하고 있어 부부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부부상담은 대체로 성격차이와 의사소통 문제, 고부갈등,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 또는 법원의 이혼숙려기간 등 부부관계 해체 직전의 위급 상황(이남옥 외 2011)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적응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해결과 섹스 리스로 인한 친밀한 관계 회복을 호소하고 있다(윤양은, 2021). 그리고 혼인형태와 상관없이 동거관계와 부부관계에 있는 두 집단 모두 상대에 대한 기대면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변수정, 2022) 커플 적응에 있어 관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먼저 부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조사(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2021)에서는 가족의 법적인 개념은 과거보다 약화되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과 방향성을 지니므로 변화하는 파트너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혼인율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감소한 반

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2년 45.9%에서 2020년에는 59.7%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그리고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거나 애인이나 파트너와 함께 사는 사실혼과 동거 관계인 경우는 336명(4.4%)으로 나타났다(박종서 외, 2021). 이전 선행연구에서도 부부관계는 결혼관계나 커플관계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라는 개념에는 공식적인 규범인 '결혼'과 비공식적인 규범인 '동거, 연애' 등에 의해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커플'의 의미가 녹아있다(정현숙, 2009)고 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부부의 개념을 동거 관계까지 확장시켜 커플관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커플적응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결혼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하위개념으로 결혼만족도나 행복도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최윤진 외, 2022). 커플적응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는 건강하고 동등한 커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커플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파트너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면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반응이 줄어들면서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나타났다(임아영, 이훈진, 2022). 커플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함께 공유된 일상에서 실질적인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커플 간의 기대와 욕구 불일치로 이어지고 대립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며, 커플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최윤진 외, 2022). 선행연구에서도 파트너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보았다(민하영, 이영미, 2014). 즉, 만족스러운 커플생활은 커플의 정서적 고통이나 부적응적인 생활을 완화

시켜 주는 반면, 불만족스러운 커플생활은 커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이므로(이훈구, 2004) 관계에서의 커플적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커플적응은 결혼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일치로 인한 곤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개인적인 불안, 결혼 만족, 부부간의 응집성,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과정으로(Spanier, 1976) 커플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플들이 관계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만족하며 지내느냐를 측정하는 일치도, 만족도, 응집도, 결혼 만족도의 하위개념을 통합한 것을 '커플적응'이라고 정의한다.

커플적응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함께 개인 내적 변인, 가족 변인이나 커플 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곽민하, 전혜성, 2016).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애착 손상, 용서, 자기효능감, 자기 자비, 삶의 질(김주희, 박한중, 신혜숙, 한수경, 2018) 등이 연구되었고 가족 변인이나 커플 상호작용 변인으로는 의사소통, 갈등대처 방식, 원가족 건강성, 가족탄력성, 가족지지, 커플 갈등, 탈중심화, 원가족 규칙 등이 연구되었다(박미화, 홍지영, 2019). 최근에는 커플의 성역할 태도, 커플 간의 성생활만족도(김수정, 손보영, 2020; 이주안, 2022) 등이 연구되었다. 그중 커플적응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관계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착(attachment)은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행동 체계로 초기 양육 경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한 사회적-정서적 유대 관계로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 부모를 안전 기지화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관계를 해석하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진다(Ainsworth, 1982; Bowlby, 1998). 불안정 성인애착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결과, 애착유형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애착유형과 커플적응과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불안정 애착유형은 배우자의 부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커플생활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Bartholomew, 1991). 최근 애착관련 연구에서는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 내적 작동모델은 오랜 기간 개인의 성격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지만, 이후 양육자 이외의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 가능하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아기는 애착자와 애착 대상 간의 단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성인기는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인애착을 형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곽미현, 김성지, 2022). 따라서 성인애착은 자신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애착 대상을 찾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 생애에 걸친 안정적이면서도 능동적인 변화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현선, 김현주, 2022).

성인애착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안정, 불안-양가, 회피애착의 3가지 유형(Hazan & Shaver, 1987)과 안정형, 거부형, 두려움형, 몰두형의 4가지 유형(Bartholomew & Horowitz, 1991)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애착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계적 검증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rennan 등(1998)은 기존의 애착 이론과 척도들을 요인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애착 구성개념의 기저에 있는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라는 독립적인 두 개의 차원(dimension)을 발견하였고, 이후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을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으로 분리하여 두 개의 차원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중 애착불안은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에 대한 집착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애착회피는 타인과 가까워지는 친밀함에 대한 회피로 애착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부터 독립성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이희경, 조영미, 2013).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성인애착

을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이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연구(강영선, 조용주, 2023)하였고,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성적, 정서적 친밀감의 효과가 유의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정재완, 2016).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커플의 적응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고(김명숙, 2008; Shi, 2003), 애착회피 수준이 높거나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커플만족도가 낮아(정재완, 2016) 불안정한 애착은 커플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유형별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애착회피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은 친밀감이나 유대감 자체를 불편해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특성이 있어, 대인관계에서 신체적, 심리적 접촉을 회피하게 만들고 정서 표현을 최소화하게 한다.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성관계에서 관여 수준이 낮아 친밀한 관계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정서적 표현을 적게 하며, 타인과의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다(Shaver & Mikulincer, 2002; Woodhouse & Gelso, 2008).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경우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 기억을 억압하고 외부 신호를 인지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Mikulincer & Florian,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반면 애착불안 유형은 의존이나 승인을 과도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주는 특성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배우자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정경아, 김봉환, 2010).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도 과민하게 지각하고 심리적 고통을 과도하게 표현하여 애착 대상의 관심을 받으려는 특징을 보여(Mikulincer & Florian,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커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숙, 박성덕, 이우경, 2011; 박성덕, 이우경, 2008).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경우 애

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강렬하게 표현하거나 의존함으로써 심리내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불안정 애착 유형에 속하더라도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경험하는 정서와 정서조절 전략이 서로 달라 각각 겪는 어려움은 다를 수 있어(전현수, 2013), 커플관계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경우 두 가지 차원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두 가지 차원인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으로 분리하여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성인기는 커플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부모로부터의 정서적·경제적 독립, 자율성 획득, 친밀감 형성 등의 다양한 발달과업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Eom et al., 2017). 불안은 미래의 위협을 피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기제로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위협을 감지하여 생존에 도움을 주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나 과도한 불안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안 정서에는 흔히 놀람, 과민함, 안절부절 못함, 초조감, 땀이 남, 심장의 두근거림 등이 있으며, 근육 긴장으로 인한 피로감, 불만족스러운 수면 상태와 주의집중 곤란 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또한 불안(anxiety)은 공포와 염려를 동반하는 긴장, 걱정 및 생명과 일상에 위협을 느끼는 감정으로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부정적 정서, 인지적 왜곡, 회피 행동, 신체의 과각성 등을 특징으로 나타낸다(Mackinnon et al., 2016). 초기 성인기의 불안 관련 선행연구들은 성인애착과 불안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 불안과 성인애착에 주목하고자 했다(이가연, 김정민, 2020).

불안정한 애착은 자기개념 형성과 타인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 위축감, 거절에 대한 예기불안 등 부적응적 정서로 인해 불안이 높다(박민선, 채규만 2013). 그리고 커플들이 느끼는

높은 불안은 부부의 친밀감을 저해하고(심희정, 서미아, 2015; S. M. Johnson, 2004)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불안은 미성숙한 분화를 통해 가족정서 기능을 약화시킨다(이정희, 심혜숙, 2007). 불안정 애착인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우울 증상에 영향을 주며 특히, 애착 손상을 입은 경우, 부부관계의 불안이 증가하고 정서적 교류는 단절된다고 보고하였다(김병직, 오경자, 2013).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이고 성인애착 두 차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하얀, 서영석, 2010). 이는 성인애착과 커플적응의 관계에서 불안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와 사회적 능력, 우울, 정서 조절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성인애착과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안정 애착 유형의 커플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고, 커플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인애착과 커플적응 간의 과정적인 측면들을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가지 차원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커플의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적응적인 정서인 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혼란스럽고 복잡한 위기 커플들이 겪는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 외에 성생활 만족에 관한 이슈가 자주 언급되면서 성생활만족이 커플적응에 중요한 부분임이 확인되고 있다(손보영, 김수정, 2020). 성은 커플의 친밀한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즐거움과 쾌락의 원천이 되기도 하다(이주안, 2022). 성생활만족도가 높은 커플일수록 커플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조지은, 2005; Marokoff & Gilliland, 1997)에서도 성생활만족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커플관계에서 성

생활만족의 중요성에 대해 커플간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은 성생활이 활발하고 만족하나, 커플 간 성생활의 불만족이나 부재는 별거나 이혼 가능성을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고 밝혔다(Donnelly, 1993).

커플관계에서 성적 욕구 표현은 커플의 결속을 강화시키며, 성행위는 서로의 존중과 사랑의 깊이를 말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심리적 안정과 적응적인 커플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특히 커플중심의 핵가족에서는 커플사이의 성적 만족이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애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이근후 외, 1999). 커플관계에서 성생활은 두 사람 간의 감정적, 인격적 표현이며, 서로 간의 사랑과 존중, 관심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커플들은 성생활을 통해 사랑의 표현, 기분전환, 긴장 완화, 일체감, 상호 감사, 합의 등을 이루고, 상호작용하며 계속 성장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문혜숙, 1994). 그리고 커플친밀도는 성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결혼생활 중 성생활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였고 상호 개방적인 성 의사소통을 통하여 커플의 성에 대한 태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커플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진영, 2005). 뿐만 아니라 성생활만족은 행복한 커플관계와 높은 상관관계(이신숙, 1997)를 가지므로 건강한 커플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커플의 성생활만족도라는 매개변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애착차원에 따라 심리정서경험이나 행동양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백상은, 설경옥, 2015).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높은 성인 남녀집단일수록 관계만족이 낮게 나타났으며(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불안애착 차원과 회피애착 차원 수준이 높을수록 이성 관계에서의 만족감이 낮게 나타났다(고민정, 송미경, 2017). 이는 성인애착과 커플적응의 관계에서 성생활만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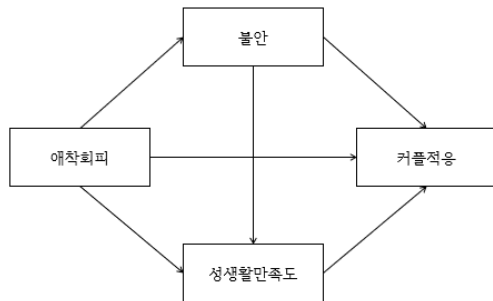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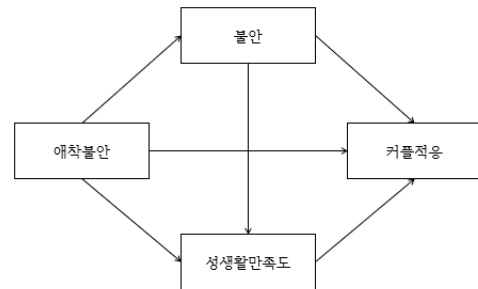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실제 커플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들에게는 아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플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센터를 방문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인애착의 두 가지 차원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정표현 행동인 성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성인애착과 커플적응, 불안과 성생활 만족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성인초기 성관계 만족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 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홍대식, 2015) 성인기에 형성된 친밀한 대상과의 불안정한 애착은 커플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와 불만족이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hitton Kuryluk, 2012). 또한 애착, 보살핌, 성적 요소의 안정은 상호만족스런 유대감을 높이는 반면, 역기능적인 애착, 보살핌, 성적 요소는 긴장, 갈등, 불만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zan & Shaver, 1994). 그뿐만 아니라 연인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을 낮추었으며 불안에 대처하는 대처전략과 성적 친밀감이 결혼만족에 매개효과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김광은, 2005; 김영일, 2006; 이희숙, 박경, 2008).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커플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불안과 성생활만족도가 커플 적응을 결정

하는 중요한 매개 요인이 됨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불안정 애착이지만 하위영역인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변인들로 각각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를 매개로 커플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그 차이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를 본 연구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성인남녀의 커플적응을 높이고 삶의 질을 증진 시키는 과정에서 커플 적응과 관련한 상담에서 애착회피 유형과 애착불안 유형에 따라 커플의 불안 정서와 성생활만족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과 커플적응을 돕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방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회피와 커플적응 간의 관계에서 불안과 성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애착불안과 커플적응 간의 관계에서 불안과 성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플들의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과 커플적응과의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빈도, 명(%)
성별	남자	133 (26.2)
	여자	375 (73.8)
관계형태	결혼	400 (78.7)
	동거	11 (2.2)
	별거	20 (3.9)
	사귀는 중	60 (11.8)
	이혼	6 (1.2)
	재혼	11 (2.2)
자녀	있다	364 (71.7)
	없다	144 (28.3)

관계에서 불안, 성생활만족 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1일 까지 온라인 상담센터를 방문한 커플관계에 있는 총 53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설문을 실시하였다. 그중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22부를 제외한 총 508부를 대상으로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과 불안, 성생활만족도 및 커플적응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 도구

성인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 & Shaver(1998)가 개발하고 Wei, Russell, Mallinckrodt, & Vogel(2007)이 개정한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S)를 김혜진(2011)이 번안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하위요인은 불안애착 6문항, 회피애착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부부적응척도

커플적응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DAS(부부/커플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R-DAS(부부/커플적응척도)는 Spanier(1976)가 제작한 DAS(Dyadic Adjustment Scale)를 최성일(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부적응척도는 총 32개 문항으로 결혼생활에서 겪는 불일치로 인한 곤란, 결혼만족도, 부부간의 응집도 등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조현 외, 2011). 각 문항은 '항상 불일치', '거의 대부분 불일치', '자주 불일치', '가끔 불일치', '거의 대부분 일치', '항상 일치'까지 문항에 따라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최성일, 2004). 본 척도는 일치도(Dyadic Consensus) 6문항, 응집도(Dyadic Cohesion) 4문항, 만족도(Dyadic Satisfaction) 4문항으로 3개의 하위척도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AS에서 산출되는 점수는 더 낮은 점수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성일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한국판 벡 불안척도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등(1988)이 개발하고 김지혜 등(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검사지인 한국판 벡 불안척도 K-BAI(Korean-Beck Anxiety Inventory, 이하 K-BAI)를 사용하였다. K-BAI는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성인 및 청소년 환자의 불안 증상 심각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평정 척도이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총점 0~63점 중 0~7점은 정상 수준, 8~15점은 경도 수준, 16~25점은 중등도 수준, 26~63점은 고도 수준에 해당한다. 불안에 대한 원척도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5이었다.

성생활만족도

성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erogatis와 Melisaratos(1979)가 개발한 DSFI(Derogatis Sexual Functioning Inventory)의 254문항을 장순복(1988)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121문항 중 성생활만족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DSFI 원본에서는 Yes 혹은 No의 2점 척도의 설문이었지만, 연구의 세밀성을 기하기 위해 김요완(2000)이 Likert type의 5점 척도를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생활만족도 10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63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가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 각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한 Cronbach's α 값을 제시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인애착,

불안, 성생활만족도, 커플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회귀식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SPSS MACRO PROCESS Ver. 2.16을 사용하여 회귀기반 경로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based 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Hayes(2013)가 제안한 모형절차에 따라 모델 4를 사용하여 두 매개 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산출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성인애착, 불안, 성생활만족도, 커플적응에 대한 경로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변인들간의 정규분포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는 $-1.48 \sim 1.38$, 첨도는 $-0.53 \sim 4.14$ 로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7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기준

표 2. 전체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계수

(N = 508)

	애착회피	애착불안	불안	성생활만족도	커플적응
애착회피	1				
애착불안	.166***	1			
불안	.192***	.431***	1		
성생활만족도	-.319***	.156**	-.030	1	
커플적응	-.585***	-.211***	-.232	.301***	1
평균	18.06	21.17	11.99	19.78	40.17
표준편차	6.947	7.548	10.981	4.435	11.439
왜도	.411	.331	1.382	-.483	-.401
첨도	-.334	-.532	1.609	4.141	.945

주 ** $p < .01$, *** $p < .001$

(West, Finch, & Curran, 1995)을 충족하였다.

연구 변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회피와 불안, 성생활만족도, 커플적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회피는 커플적응과 부적상관($r = -.585$, $p < .001$)을 보여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커플적응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애착회피는 성생활만족도와 부적상관($r = -.319$, $p < .001$)을 보여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성생활만족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애착회피는 불안과 정적상관($r = .192$, $p < .001$)을 보였다. 즉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불안도 높게 나타났다. 넷째, 불안은 커플적응과 부적상관($r = -.232$, $p < .001$)을 보여, 불안이 높을수록 커플적응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성생활만족도와 커플적응은 정적상관($r = .301$, $p < .001$)을 보여, 성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커플적응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애착불안과 불안, 성생활만족도, 커플적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은 커플적응과 부적상관($r = -.211$, $p < .01$)을 보여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커플적응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애착불안은 성생활만족도와 정적상관($r = .156$, $p < .01$)을 보여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성생활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애착불안은 불안과 정적상관($r = .431$, $p < .001$)을 보여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불안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경로분석

애착회피가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애착회피가 불안 및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분석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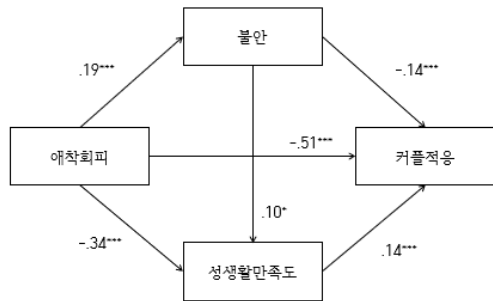
첫째, 애착회피가 불안을 통해 커플적응에 미치는 경로에 관련하여 애착회피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적($\beta = .19$, $p < .001$)으로 유의하여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아졌다. 또한 불안이 커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적($\beta = -.14$, $p < .001$)으로 유의하여 불안이 높을수록 커플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회피가 성생활만족도를 통하여 커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애착회피가 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는 부적($\beta = -.34$, $p < .001$)으로 유의하여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성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생활만족도가 커플적응에 미치는 경로는 정적($\beta = .14$, $p < .001$)으로 유의하여 성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커플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회피가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애착회피는 불안에 정적($\beta = .19$, $p < .001$)영향을 미쳤으며 불안도 성생활만족도에 정적($\beta = .10$, $p < .05$)영향을 미쳤다.

표 3. 애착회피가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N =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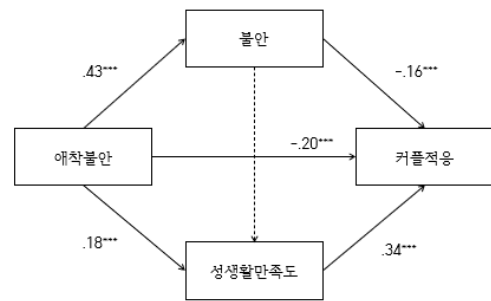
경로			β	SE	t	F(df ₁ , df ₂)	R ²
애착회피	→	불안	.19	.07	4.40***	19.36*** (1, 506)	.04
애착회피	→	성생활만족도	-.34	.03	-7.89***	31.39*** (2, 505)	.11
불안	→	성생활만족도	.10	.02	2.22*		
애착회피	→	커플적응	-.51	.06	-13.49***		
불안	→	커플적응	-.14	.04	-3.82***	100.76*** (3, 504)	.37
성생활만족도	→	커플적응	.14	.10	3.80***		

주 * $p < .05$, *** $p < .001$



주1.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주2. * $p < .05$, *** $p < .001$

그림 3. 애착회피 경로분석



주1.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주2. * $p < .05$, *** $p < .001$

그림 4. 애착불안 경로분석

또한 성생활만족도가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beta = .14$, $p < .001$)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애착불안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애착불안이 불안 및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이 불안을 통해 커플적응에 미치는 경로에 관련하여 애착불안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적($\beta = .43$, $p < .001$)으로 유의하여 애

착불안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아졌다. 또한 불안이 커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정적($\beta = -.16$, $p < .001$)으로 유의하여 불안이 높을수록 커플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불안이 성생활만족도를 통하여 커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애착불안이 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는 정적($\beta = .18$, $p < .001$)으로 유의하여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성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생활만족도가 커플적응에 미치는 경로는 정적($\beta = .34$, $p < .001$)으로 유의하여 성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커플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불안이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beta = -.20$, $p < .001$)으로 유의하여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커플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애착불안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N = 508)

경로	β	SE	t	F(df ₁ , df ₂)	R ²
애착불안 → 불안	.43	.06	10.74***	115.35*** (1, 506)	.19
애착불안 → 성생활만족도	.18	.03	3.60***	6.72*** (2, 505)	.03
불안 → 성생활만족도	-.05	.02	-.93		
애착불안 → 커플적응	-.20	.07	-4.31***		
불안 → 커플적응	-.16	.05	-3.53***	36.71*** (3, 504)	.18
성생활만족도 → 커플적응	.34	.11	8.23***		

주 * $p < .05$, *** $p < .001$

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불안에 정적($\beta=.43, p<.001$) 영향을 미쳤으며 불안은 성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05, ns$). 또한 성생활만족도가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beta=.34, p<.001$)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을 위해 Hayes(2016)의 PROCESS(Version 2.16) 매크로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평균값, 중앙값, 비율, 오즈비, 상관계수 또는 회귀계수와 같은 추정 표준 오차와 신뢰구간의 강력한 추정값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이며, 매개효과(ab)의 표준오차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출함으로써 추정하는 방법이다. 상위, 하위 2.5%에 해당되는 값을 추출하여 95%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Shrout & Bolger, 2002).

성인애착이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을 통해 산출된 값으로 간접효과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효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회피가 불안을 통해 커플적응에 이르는 경로($\beta=-.03, 95\% CI=-.08, -.02$), 애착회피가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에 이르는 경로($\beta=-.05, 95\% CI=-.14, -.02$), 애착회피가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에 이르는 경로($\beta=.00, 95\%, CI=.00, .01$), 애착불안이 불안을 거쳐 커플적응에 이르는 경로($\beta=-.07, 95\%, CI=-.16, -.04$), 애착불안이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에 이르는 경로($\beta=.06, 95\% CI=.03, .16$)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애착불안이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에 이르는 경로($\beta=-.01, 95\%, CI=-.04, .02$)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불안의 이중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온라인 상담센터를 방문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

표 5. 불안, 성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Bootstrapping 결과

(N = 508)

경로				β	<i>S.E.</i>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X애착회피	→	M불안	→	Y커플적응	-.03	.01	-.08	-.02
X애착회피	→	M성생활만족도	→	Y커플적응	-.05	.03	-.14	-.02
X애착회피	→	M불안→ M성생활만족도	→	Y커플적응	.00	.00	.00	.01
X애착불안	→	M불안	→	Y커플적응	-.07	.03	-.16	-.04
X애착불안	→	M성생활만족도	→	Y커플적응	.06	.03	.03	.16
X애착불안	→	M불안→ M성생활만족도	→	Y커플적응	-.01	.01	-.04	.02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번

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애착과 커플적응과의 관계에서 불안과 성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회피는 커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애착회피가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과 성생활만족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회피가 커플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착회피가 높은 경우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커플적응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애착회피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준다는 선행연구(양도연, 2020)와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커플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도 일관된 결과이다(김광은, 이위갑, 2005; 정경아, 2009; 정재완, 2016; 현미나, 2012; Kobak & Hazan, 199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애착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거리를 두고 커플 간의 갈등이나 위기에서 적응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애착회피가 높을 경우, 정서 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커플적응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는 부부관계와 우울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통해 감정표현이 적어지고 부정적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맥락에서(이연정, 최은실, 2022) 이해될 수 있다. 즉, 애착회피가 높을 경우 부정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한혜림, 이지민, 2022; Descutner & Thelen, 1991) 이러한 어려움은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을 방해하여 심리적 불안을 일으켜 커플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경우 부정 기억을 억압하고 외부 신호를 인지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Mikulincer &

Florian,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셋째, 애착회피가 높은 경우 낮은 정서적 친밀감과 거리를 두는 회피적 행동 때문에 성생활만족도가 떨어져 커플적응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은 배우자와 떨어져 있으려는 경향을 보이며(김명숙, 2008; Barrett, 2004),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들과도 깊고 긴 상호작용속으로 들어가기를 머뭇거린다(Shi, 2003). 그리고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은 파트너와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거나(Tracy, Shaver, Albino, & Cooper, 2003) 성관계로 얻는 즐거움을 적게 보고하였다(Davis, Shaver, & Vernon, 2004; Schachner & Shaver, 2004)는 연구 결과도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성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원영옥, 박종형, 2014), 성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커플들이 적응에 유용하였다(조지은, 2005)는 연구에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Schachner & Shaver(2004)는 애착회피의 속성을 지닌 사람은 성과 감정을 분리하거나 혼외의 관계를 많이 갖기도 한다고 하며, 애착과 성행동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애착회피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의 성관계는 커플과의 성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심리적 상처와 성적 불만족, 커플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커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넷째, 애착회피가 높을 경우 대인관계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정서적 거리를 두고자 하며, 이로 인한 갈등이 커플 간 불안을 유발하여 성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커플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관계의 근접성과 지지추구의 일차적인 정서조절전략의 실패로 인한 심리적 좌절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애착욕구의 활성화

를 무의식적으로 부인하거나 억압하는 이차적 전략을 사용(Kobak & Hazan, 1991)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예측되어 진다. 또한 Mikulincer와 Florian(1999)는 애착회피 차원이 높으면 커플만족의 관계에서 적응력과 커플응집력이 모두 낮다고 보고했다. 애착회피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애착 대상으로부터의 반복적인 거부 경험으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 이들은 친밀감이나 가까움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배우자가 자신의 욕구를 제공해 줄 유용한 자원이 없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에 대한 신뢰도 낮다. 그러므로 불안이 증가함에도 지지를 받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결혼생활에 쉽게 좌절하고 불만을 느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철회하는 등의 회피 행동을 하게 된다. Bartholomew(1990)에 따르면 배우자의 회피적 행동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이는 결국 커플 불만족의 주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 선행연구 결과에서 애착회피는 커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불안한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성생활을 위한 노력에서도 회피적이어서 커플적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애착회피와 커플적응의 관계에서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는 중요한 이중 매개변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애착불안은 커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애착불안이 커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과 성생활만족도가 각각 유의하게 매개하였으나 이중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이 높은 경우 연인이 떠날 것 같은 불안으로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과장하여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커플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의 경우 거절이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밀함에 대해 불편해하는 강도가 높을 때 민감한 반응과 왜곡된

문제인식으로 커플적응 수준이 낮아지기도 한다(Feeney, 1994).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불안으로 커플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더욱 집착하고 관심을 얻기 위한 과장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애착불안은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커플 관계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Campbell et al., 2008),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에서 친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과잉활성화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Wallin, 2010). 따라서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돌봄을 제공하려는 등의 친밀 문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활성화전략이 관계에서 경험하는 반복된 부정적 인지 및 정서로 인해 커플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애착불안이 높은 경우 안정적이지 않은 관계 때문에 불안이 높아져 커플적응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애착불안은 우울증과 관련이 깊고(Hankin et al., 2005),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를 높이며 높은 대인불안 및 사회적 회피 성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도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신노라, 안창일, 2004)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애착불안이 높을 경우 자기 개념 형성과 타인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 위축감, 거절에 대한 예기불안 등 부적응적 정서로 인해 불안이 높아(박민선, 채규만 2013)지고, 이러한 불안은 부부의 친밀감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심희정, 서미아, 2015; S. M. Johnson, 2004)와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애착불안이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애착불안과 대인관계 능력 사이를 사회불안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진, 최영희, 2011). 또한 커플 중 만성불안이 높으면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불안 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로에 대해 인내가 어렵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Bowen & Kerr, 1988)는 연구결과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지지된

다. 따라서 애착불안이 높아 정서적, 신체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은 커플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애착불안이 높은 경우 연결감을 확인하고 관계 불안을 낮추려는 동기 때문에 성관계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성생활만족도가 높아져 커플적응이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만큼 타인과 가까워지지 않을 경우 파트너의 관심과 지지를 요구하고 성생활을 통해 연결감을 확인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애착불안이 높은 경우,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동기가 높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성생활만족도가 높아져 커플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어 진다(이희숙, 박경, 2008).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성적 친밀감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커플 관계에서의 만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커플 간의 성생활은 육체를 이완시켜 상호 간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감정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변금령, 이영호, 2012),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커플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데 주요 변수라는(김선영, 안숙희, 2019) 것을 결과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높은 성생활만족은 커플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쉽게 해결하도록 돕고,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강경화, 김경원, 정금희, 2012). 따라서 성생활만족도가 애착불안이 높은 커플에게는 커플적응에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커플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커플의 성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성치료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애착불안과 커플적응 관계에서 불안과 성생활만족도의 이중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애착불안은 파트너와의 성관계 경험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타인을 통제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솔직하게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심은정, 조영주, 박단비, 2019). 이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불안으로 친밀한 성관계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강박적으로 타인과 매우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기대만큼 가까워지지 않을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정서적, 행동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들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관계를 할 때 과도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하거나, 반대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더 많이 허용하게 된다는 애착 연구자들의 경험적 연구(Bartholomew & Horowitz, 1991; Main & Goldwyn, 1985)에 의해 지지 된다.

애착 손상을 입은 경우, 커플관계의 불안이 증가하면 정서적 교류는 단절된다(김병직, 오경자, 2013)는 연구 결과에서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과도한 불안을 경험할 경우, 가장 친밀한 정서적 교류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인 접촉 또한 차단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의 내담자에게 불안이라는 정서가 상황적, 신체적, 기질적, 성격적인 측면에서 추가될 경우, 친밀감을 형성하고 확인하려는 욕구보다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욕구가 더 강할 수 있으므로 불안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중요한 관계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애착불안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가 수용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욕구를 먼저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Katherine & Brent, 2009). 또한 애착불안 특성을 가진 내담자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마음을 챙기거나 따뜻하게 돌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Neff & McGehee, 2010)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꾸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내적

경험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추고, 주관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문현미, 2005)하도록 돕는 상담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애착불안과 불안이 성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불안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안에 대한 개입이 더욱 중요하며 불안에 휩쓸리지 않도록 강렬한 정서가 촉발되었을 경우 자동적인 패턴으로 가지 않도록 관찰하는 자기가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Sarfran & Segal, 1990)를 토대로 불안을 조절하고 왜곡된 인지로 커플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돕는 상담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과 커플적응, 불안과 성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불안과 성생활만족도가 중요한 매개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성인애착이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를 통해 커플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상담개입의 초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애착불안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도한 정서적 고통에 휩싸이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애착불안과 관련된 경험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반면 애착회피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의 필요나 고통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도록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인지행동치료적 개입과 성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성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착회피 유형과 애착불안 유형은 커플적응을 위한 개입방법에 있어 차별적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커플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성인애착 유형과 불안, 성생활만족도를 함께 고려한 다각적인 상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비율의 차이(남 26.2%, 여 73.8%)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연구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성인 남녀라는 개별적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효과나 부부간의 상호 역동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커플적응이란 개인의 고유한 속성과 관련이 있지만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애착 수준이나, 불안, 성생활만족도에 따라 개인의 커플적응이 영향을 받는 상대방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커플 쌍을 대상으로 하여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이 불안과 성생활만족도를 거쳐 커플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나 선행연구에서 불안의 특성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불안척도를 사용하여 불안을 측정하여 심리적으로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신체적으로 자기가 인지한 불안이라는 요소가 관계 만족에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추되므로 불안에 관한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커플적응과 성생활만족과 관련한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화, 김경원, 정금희 (201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1), 51-59.
- 강수진, 최영희 (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53-68.

- 강영선, 조용주 (2023). 성인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 345-361.
- 고민정, 송미경 (2017).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의 관계: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3(1), 1-21.
- 곽미현, 김성지 (2022). 기혼자의 성인애착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2), 663-677.
- 곽민하, 전해성 (2016). 부부갈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탈중심화 및 용서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4(3), 339-359.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명숙 (2008).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커플들의 관계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59-74.
- 김병직, 오경자 (2013). 성인 애착 불안/회피 차원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한 정서 조절의 차별적 경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519-548.
- 김선영, 안숙희 (2019). 유방절제술 후 1년 이내 여성의 성적 친밀감과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5(2), 219-231.
- 김영숙, 박성덕, 이우경 (2011). 기혼 부부들의 애착 양식, 감정표현불능증, 결혼만족도와 우울 증상 간의 관련성. **신경정신의학**, 50(5), 362-367.
- 김영일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요완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수준의 성 만족도와 관계 연구. **원우론집**, 33, 170-210. 연세대학교 대학원원우회.
- 김주희, 박한중, 심혜숙, 한수경 (2018). 자기효능감, 부부적응도 및 가족 지지가 난임부부의 양생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동서간호학연구지**, 24(1), 44-51.
- 김진영 (2005). **기혼여성의 성행동 및 성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선, 김현주 (2022). 기혼자의 자기분화와 결혼 만족과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부부가족상담연구**, 3(1), 1-13.
-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2(2), 1-21.
- 김희진 (2004). 한국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839-853.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여성가족부.
- 문현미 (2005). 인지행동치료의 제 3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5-33.
- 문혜숙 (1993). **부부적응과 성적 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연구: 도시 중산층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미화, 홍지영 (2019).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659-689.
- 박민선, 채규만 (2013).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4(2), 111-129.
- 박성덕, 이우경 (2008).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서울: 학지사.

-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 송지은 (2021). 2021 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백상은, 설경옥 (2015). 미혼 남녀의 성인 애착과 관계 만족: 주는 감사와 받는 감사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51-381.
- 변금령, 이영호 (2012). 기혼 남녀의 성 의사소통 유형이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23-652.
- 변수정 (2022).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보건복지포럼**, 2022(6), 21-34.
- 손보영, 김수정 (2020).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역할 경험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1), 326-333.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4), 949-968.
- 심은정, 조영주, 박단비 (2019). 성인애착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6), 71-92.
- 심희정, 서미아 (201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 손상 및 상태-특성 불안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3), 133-145.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양도연, 천성문 (2020).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7(3), 163-179.
- 원영옥, 곽중형. (2014) 노인의 성생활인식이 성생활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1(1), 109-130.
- 윤양은(2021) 신혼기 섹스리스 아내의 결혼생활 경험에대한 내러티브 탐구. 단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가연, 김정민. (2020) 초기 성인기의 성인애착과 불안 간의 관계: 자기자비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11(5), 963-978.
- 이근후 외 (1999). **가족해체와 부부간 성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학술대회.
- 이남옥, 최승미, 조현, 권정혜, 오현주, 정정숙 (2011). 부부상담연구소를 방문한 내담자 특성 및 초기 종결 관련 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43-575.
- 이신숙 (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70-85.
- 이연정, 최은실 (2022). 중년기 부부의 성인애착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APIM)의 적용. **가정과 삶의 질 연구**, 40(2), 71-89.
- 이영미, 민하영 (2014). 전업모와 취업모가 지각한 경제적 갈등과 부부갈등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9(3), 73~89.
- 이정희, 심혜숙 (2007).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변량 구조분석. **상담학연구**, 8(3), 899-915.
- 이주안 (2022).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성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2), 2727-2742.
- 이훈구. (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 47-53.

- 이희숙, 박 경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임아영, 이훈진 (2022). 성인애착과 커플관계 질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및 다름 수용 태도의 역할. **인지행동치료**, 22(3), 253-281.
- 전현수 (2013). 심리적 부모화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 김봉환 (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인간이해**, 31(1), 89-104.
- 정경아 (2009). 기혼남녀의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완 (2016).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성적, 정서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7(1), 1-21.
- 정현숙, 양순미. (2009). 농촌의 혼인 관련 인구학적 현황과 농촌 미혼남성의 혼인과 국제결혼 관련 태도 분석. **가정과 삶의 질 연구 (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7-29.
- 조영미, 이희경. (2013).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27-1245.
- 조지은 (2005). **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 최승미, 오현주, 권정혜 (2011). 부부적응척도: 단축형; 신뢰도; 타당도; 부부적응척도: 축약형; 신뢰도;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55-670.
- 최성일 (2004).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고향논집**, 35, 97-114.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논문집**.
- 최윤진, 윤영남, 김민하, 이재선, 안종화, 구경희 (2022).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관계에서 성생활만족의 매개효과. **부부가족상담연구**, 3(2), 129-146.
- 통계청 (2020). 2020년 혼인통계결과. <http://kostat.go.kr>
- 한혜림, 이지민 (2022). 성인애착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자아분화와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60(3), 459-470.
- 현미나, 채규만 (2012).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69-85.
- 홍정희 (2020). 동거커플의 일상경험과 젠더 관계. **융복합지식학회 논문지**, 8(3), 123-132.
- Ainsworth, M. D. S. (1982). 14.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The beginning* (pp. 133-143). Columbia University Press.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2),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93 - 897.
- Bowlby, J. (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119-137. London: Routledge.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 of adult attachment*. In A. Sompson & W. A.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nnan, K. A., Wu, S., & Loev, J. (1998). *Adult romantic attach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physical contact in the context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394 - 42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usby, Dean M., Crane, D. Russell, & Christensen, Clark. (1995). A revision of the H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3), 289-308.
- Campbell, L., Butzer, B., & Wong, J. (2008). The importance of the organization of partner knowledge in understanding perceptions of relationship quality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in married coup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6), 723-740.
- Daly, Katherine D., and Brent Mallinckrodt. (2009). Experienced therapists' approach to psychotherapy for adults with attachment avoidance or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549.
- Davis, D., Shaver, P. R., & Vernon, M. L. (2004). Attachment style and subjective motivations for sex.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8), 1076-1090.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 244-281.
- Descutner, C. J., & Thelen, M. H.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ear-of-Intimacy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218.
- Donnelly, D. (1993). Sexually inactive marriages. *Journal of Sex Research*, 30, 171-179.
- Feeney, J. A.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across the life cycle of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4), 333-348.
- Hankin, B. L., Kassel, J. D., & Abela, J. R. (2005). Adult attachment dimensions and specificity of emotional distress symptoms: Prospective investigations of cognitive risk and interpersonal stress generation as mediating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 136-151.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6). A. FIELD 통계분석 4판.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 (4th edition)] (이은현, 정영혜, 송라운, 김진선, 황규윤 역). 서울: 군자출판사. (원전은 2012년에 출판)
- Hazan, C.,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

- Hazan, C., Shaver, P. R.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1), 1-22.
- Johnson, S. M. (2004). *Attachment Theory: A Guide for Couple Therapy*. In S. M. Johnson & V. E. Whiffe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pp. 103 - 123). The Guilford Press.
- Michael E. Kerr, Murray Bowen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Kobak, R. R.,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
- Main, M., Goldwyn, R. (1998). *Adult attachment rating and classification systems*. *Unpublished manuscript*.
- Marokoff, P., Gilliland, R. (1997).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0, 43-53
- Mikulincer, M.,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143 - 16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ikulincer, Mario &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Attachment Theory Close Relationships*. 143.
- Mikulincer, M., Florian, V.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spouses' self reports of attachment styles and representations of family dynamics. *Family Process*, 38(1), 69-83.
- Neff, K. D., McGehee, P. (2010). Self-compassion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elf and identity*, 9(3), 225-240.
- Safran, J. D., Segal, Z. V., Hill, C., & Whiffen, V. (1990). Refining strategies for research on self-representations in emotional disorder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143-160.
- Schachner, D. A., Shaver, P. R. (2004). Attachment dimensions and sexual motives. *Personal relationships*, 11(2), 179-195.
- Shaver, P. R.,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2), 133-161.
- Shaver, P. R., Mikulincer, M. (2003). *Adult attachment strategies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446, 465.
- Shi, L.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onflict resolu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3), 143-15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namic adjustment: New scale of assessing the*

-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6.
- Tracy, J. L., Shaver, P. R., Albino, A. W., & Cooper, M. L. (2003). Attachment styles and adolescent sexuality. In P. Florsheim (E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 and sexual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137 - 159.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Tugade, M. M., Fredrickson, B. L., & Feldman Barrett, L. (2004).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al granularity: Examining the benefits of positive emotions on coping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72(6), 1161-1190.
- Wallin, D. (2010). From the inside out: The therapist's attachment patterns as sources of insight and impasse. *Psychotherapy in Australia*, 16(3), 26-31.
- Wei, M., Russell, D. W., Mallinckrodt, B., & Vogel, D. L. (2007).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short form: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8(2), 187-204.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52(4), 591 - 601.
- West, S.G., Finch, J.F. and Curran, P.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 - 75.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Whitton, S. W., & Kuryluk, A. D. (2012).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merging adults: cross-sectional associations and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2), 226.
- Woodhouse, S. S., & Gelso, C. J. (2008). Volunteer client adult attachment, memory for in-session emotion, and mood awareness: An affect regulation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197.

원 고 접 수 일 : 2023년 04월 08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3년 05월 06일

게 재 확 정 일 : 2023년 05월 12일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Couple Adaptation: Mediation Effects of Anxiety and Sex Life Satisfaction

Jeongah Choi

Jeonghee Ye

Kyungjoo Lee

Song-Do As it is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Paju Unjeong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Korea Family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mediation effect of anxiety and sexual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and anxious attachment) and couple adaptation of adult men and women. Adult men and women in couple relationships, including couples who visited online counseling centers, were surveyed on adult attachment, couple adaptation, anxiety, and sexual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confirm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to increase couple adapta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avoidant attachment and anxious attachment affect couple adaptation.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Avoidant attachment, anxious attachment, couple adaptation, sexual life satisfaction, anxiety

교정시설 남성 성범죄자의 대인관계 증진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변증법적 행동치료(DBT)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 숙 경**

김 영 은***

성균관대학교

캘리포니아 개혁 신학교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다양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성범죄 재범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 수감 된 성범죄자의 대인관계 증진과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자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OO교정시설에 수감 된 성범죄자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을 무선할당으로 나눠 집단 전후 실험 설계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마음챙김, 자기통제, 충동성, 공격성, 대인 간 공감반응, 성인애착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검사를 하고 총 16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사후검사와 추후검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ANOVA)으로 변증법적 행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이 대조집단에 비해 마음챙김과 자기통제 수준이 상승하였고, 충동성, 공격성 수준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험집단이 대조집단에 비해 대인 간의 공감반응과 성인애착 수준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범죄자의 내적 변화와 관계 변화를 통해 대인관계가 증진과 가족 관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성범죄자, 변증법적 행동치료, 대인관계증진, 가족관계 회복

* 본 논문은 유숙경(2022년)의 데이브레이크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유숙경, 성균관 대학교 연구교수

Tel: 062-654-3030 / E-mail: hml0716@naver.com

*** 제 2저자: 김영은, 캘리포니아 개혁 신학교 겸임교수

성범죄는 개인의 심리·정서·신체적 손상을 넘어 영혼까지 파괴하는 치명적인 범죄 중 하나이다. 전 세계의 성범죄 발생은 인구 십만 명당 58.1건으로 15세 이상 여성과 소년들의 30%인 약 7억 3,600만 명이 일생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이호중, 2010).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 상황이었다던 팬데믹 기간에 성범죄는 더욱 증가했다(WHO, 2021). 이처럼 미국의 여성 경우 여성 13%가 전 생애에 걸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Spitzberg, 1999). 한국 또한 미국보다 다소 낮지만, 여성 10%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은헌정 외, 2001). 특히, 한국은 성폭력 피해는 미국보다 낮지만, 성폭력 중 신체 상해를 동반한 강력한 성범죄의 강간(rape)율이 세계 평균 10.06%보다 높은 하루에 17건 이상 발생하여 13.5%로 심각한 수준이다(대검찰청, 2021). 2020년 성범죄 발생 건수는 32,104건에서 2019년 30,086건으로 2018년 32,002건에 비해 10.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동기강력범죄인 살인(802건, -13.8%), 강도(698건, -23.1%), 방화(1,215건, -16.1%)는 13% 이상 감소한 데 반해 성범죄는 10.5% 감소로 가장 낮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강력범죄 중 가장 낮게 감소한 성범죄는 예방의 효과로 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사건이 음성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에 검거된 전체 성범죄자는 240,184명으로 이 중 여성은 4,886명(3.0%), 남성은 231,384명(96.3%)으로 남성이 많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여성 2,738건(94.4%), 남성 119건(4.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법무부, 2022).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성범죄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범죄의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고용 관계, 친구, 애인, 친족, 이웃/지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35.8%)인 경우가 가장 많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에 범죄사실을 은폐하기도

한다(대검찰청, 2021).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성범죄는 대검찰청에서 보고한 검거 건보다 2~3배 더 많이 발생하는 암수 범죄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영혼이 침탈당하고 신체가 짓밟히는 심리적 외상 경험으로 자기혐오, 좌절감, 무력감, 두려움,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증상을 겪는다(권해수, 2014). 이처럼 피해자가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지옥의 검은 고통의 늪과 같은 고통과 황폐한 끝 없는 긴 터널의 깊은 고통을 침습적으로 경험하기에 심리적 무기력감을 동반한다(Paolucci et al., 2001).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고통을 죽음으로 벗어나고자 자살과 자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권솔지, 이경주, 김희균, 2018; 김경애, 2011; 김요완, 2020; 김현희, 2004; 전상완, 신종섭, 김알찬, 2021).

정부는 국민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성범죄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교육 및 공중보건 모델을 적용한 예방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수강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교정시설에서 재범 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는 기본과정 17,015명, 집중과정 2,103명, 심화 과정 1,733명으로 총 20,851명이다(법무부, 2022).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된 성범죄와 구조화된 디지털 성범죄는 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피해 정도가 광범하고 범죄 양상과 범죄 유형 또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의 현재 성폭력 예방 정책은 진화하는 성범죄를 따라가지 못해 2018년 기준 재범률 3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검거된 성범죄자 중 초범은 감소하는 반면 3년 이내의 재범하는 경우가 62.4%로

동종 재범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봤을 때 정부의 공중보건 모델을 적용한 성범죄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Harris와 Hanson(2004)의 연구에 의하면 출소 후 5년 이내 성범죄의 재범률은 14.0%이지만, 10년 후에는 19.8%, 15년 후에는 24.2%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범죄 재범률도 점차 증가했다. 이는 최근 국내 성범죄 추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법무부, 2022).

국내선행연구에서는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선행 연구는 성범죄자 심리·사회적 특성 및 재범 예방의 보호 요인 탐색과 성범죄의 발생 원인을 찾는 탐색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성 일탈 외에도 인지 왜곡, 건강한 성에 대한 지식 부족, 사회적 기술 및 대인관계기술 부족, 공감 능력의 부족, 자기통제력의 부족, 감정조절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이 밝혀졌다(신경백 외 2012; 신기숙, 조성호, 2009; 홍숙선, 이동혁, 2020).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영자, 2012; 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유숙경, 김용섭, 이경원, 2020; 정유희, 박은영, 손외철, 2014)가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재범 예방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사회가 아닌 교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호관찰소와 교정시설에서는 비자발적인 성범죄자에게 수강명령 이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 참석과 같은 강제성을 부여하기에 높은 치료 효과를 가능하게 하였다. 비록 비자발적 성범죄자를 의무 참석으로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지만, 참여한 성범죄자는 스스로 변화 동기를 발견하고, 변화를 강화함으로써 학습된 자기통제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익힌다. 이들은 출소 후 교정시설에서 학습한 다양한 적용기법을 활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 수강명령 이수프로그램은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정시설 수강명령 이수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성범죄자는 출소 후 기간에 상관없이 출소 후 사회 재적응이 높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수형자보다 재범률이 낮았다(정유희, 박은영, 손외철, 2014; Lösel & Schmucker, 2005; Marshall et al., 2011; Schmucker & Losel, 2015; Soldino & Carbonell-Vaya, 2017). 그래서 교정시설에서는 수강명령 이수프로그램을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기본과정 100시간, 집중과정 200시간, 심화 과정 300시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본과정은 성폭력 저위험군을 위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모델, 해결 중심 치료(Solution Focused Therapy)모델,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집중과정은 성폭력 중 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모델, 재범 방지(Relapse Prevention: RP)모델,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심화 과정은 성폭력 고위험군을 위한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재범 방지(Relapse Prevention: RP)모델,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Risk, Needs, Responsivity Model: RNR)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법무부, 2018).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성범죄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형태에 초점을 둔 치료로 그 효과가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김정내, 이종연, 2017; 표갑수, 엄정옥, 2012; Andrews, Bonta & Wormith, 2006; Hanson et al., 2009; Lösel & Schmucke, 2005).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기도 하고 저항과 방어를 일으키는 등의 한계도 나타났다. 그래서 성범죄자가 저항과 방어를 낮추고 긍정성과 자아실

현 그리고 친사회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출소 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삶 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신기숙, 2017; 유숙경, 김용섭, 이경원, 2020). 이처럼 다양한 재범 예방 프로그램은 성범죄자의 감정이입 결여(lack of empathy),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평가(grandiose self-worth), 공격성, 분노, 충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오삼광, 2011; 정명선, 2010).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범죄 재범률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 재범 예방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성범죄자 재범 예방을 위해서 개인 심리적 요인인 인지적 왜곡, 왜곡된 성인식, 비합리적 신념(16%), 자아존중감(12%), 자기조절 능력(10%), 정서적 어려움(분노, 불안, 우울: 9%), 책임감(6%), 이탈 된 성적 취향 및 행동(3%)과 관계적 요인인 공감 능력(15%), 대인관계, 의사소통, 사회기술 능력(18%)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데 대부분 중점을 두고 있다(강요한, 송원영, 2022). 하지만 교정시설에서 익힌 관계기술 훈련이 출소 후 해체된 가족관계 회복을 돕고 회복된 가족을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적 동반자로 활용하는 인지 행동 훈련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대인관계 증진과 가족관계 회복을 돕고자 성범죄자의 관계기술 향상을 위해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인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론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Linehan(1993)이 제안한 것이다. 기존 인지행동치료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까지 온전히 수인하여 긍정과 부정 정서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McNair, Woodrow

& Hare, 2017; Sakdalan & Gupta, 2014; Shingler, 2004). 즉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비합리적 사고의 전환이 아닌 사건을 일으키는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어 이를 있는 그대로 수인하도록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B군 성격장애 유병률이 높은 성범죄자(Dunsieath et, al., 2004; Linehan, 2018; Stinson & Gonsalves, 2015/2016)의 재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입증되었다(McNair, Woodrow & Hare, 2017; Sakdalan & Gupta, 2014; Shingler, 2004).

교정시설에서 운영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자는 수형 생활을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출소 후에도 사회 재적응 능력이 높아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김병수, 2012; 윤옥경, 2007). 따라서 교정시설에서는 출소 후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가족 체계를 회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B군 성격장애 유병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위해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대인관계기술을 익히고 정서조절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정시설 수감명령 프로그램과 선행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행동 문제를 분석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적으로 대처하는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을 도움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교정시설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성범죄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에서 시행 가능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내적 변화(마음 챙김, 자기통제, 공격성,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관계 변화(대인 간 공감반응,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연구참여자는 00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남성 성범죄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가족관계 회복

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잘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1차 선정하였다. 모집과정에서 연령, 학력, 직업 및 결혼 여부, 재범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program (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으로 계산하였을 때, 효과 크기 .8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표본은 28명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시한 기준표집(criteria sampling)으로 대상자를 2차 선정하였다. 총 28명을 무작위 표집으로 실험군 14명, 대조군 14명으로 각각 배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참가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안내하였고 동

표 1. 실험·대조집단의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실험(N=10)	대조(N=11)	χ^2/t	p
	연령	38.20±12.70	46.55±14.45	1.399	.178
최종학력	초등학교	0(0.0%)	1(9.1%)	2.048	.727
	중학교	3(30.0%)	3(27.3%)		
	고등학교	6(60.0%)	5(45.5%)		
	대학교	1(10.0%)	1(9.1%)		
	대학원	0(0.0%)	1(9.1%)		
결혼상태	미혼	7(70.0%)	2(18.2%)	6.411	.170
	유배우	1(10.0%)	3(27.3%)		
	이혼	2(20.0%)	4(36.4%)		
	별거	0(0.0%)	1(9.1%)		
	기타	0(0.0%)	1(9.1%)		
종교	기독교	3(30.0%)	4(36.4%)	.573	.966
	천주교	1(10.0%)	1(9.1%)		
	불교	1(10.0%)	2(18.2%)		
	무교	4(40.0%)	3(27.3%)		
	기타	1(10.0%)	1(9.1%)		
직업	없음	6(60.0%)	9(81.8%)	.122	.269
	있음	4(40.0%)	2(18.2%)		
가족친밀도	전혀 친하지 않음	3(30.0%)	7(63.6%)	8.572	.073
	친하지 않음	2(20.0%)	2(18.2%)		
	보통	2(20.0%)	0(0.0%)		
	친함	0(0.0%)	2(18.2%)		
	매우 친함	3(30.0%)	0(0.0%)		
어린시절 경험	가정폭력	3(30.0%)	4(36.4%)	.439	.932
	학교폭력	1(10.0%)	1(9.1%)		
	학대	2(20.0%)	3(27.3%)		
	없다	4(40.0%)	3(27.3%)		

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도중 실험집단 4명과 대조집단 3명이 다른 교정시설 이관으로 중도 탈락하여 최종 실험집단 10명과 대조집단 11명 총 2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험·대조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성범죄자의 관계 증진을 위한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은 천성문 등(2017)이 제안한 6단계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6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는 성범죄자들이 변증법적 행동 치료의 핵심인 마음 챙김과 고통감내, 정서조절, 대인관계 효율성을 익히고 실생활에서 강화하여 대인관계 증진과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을 돕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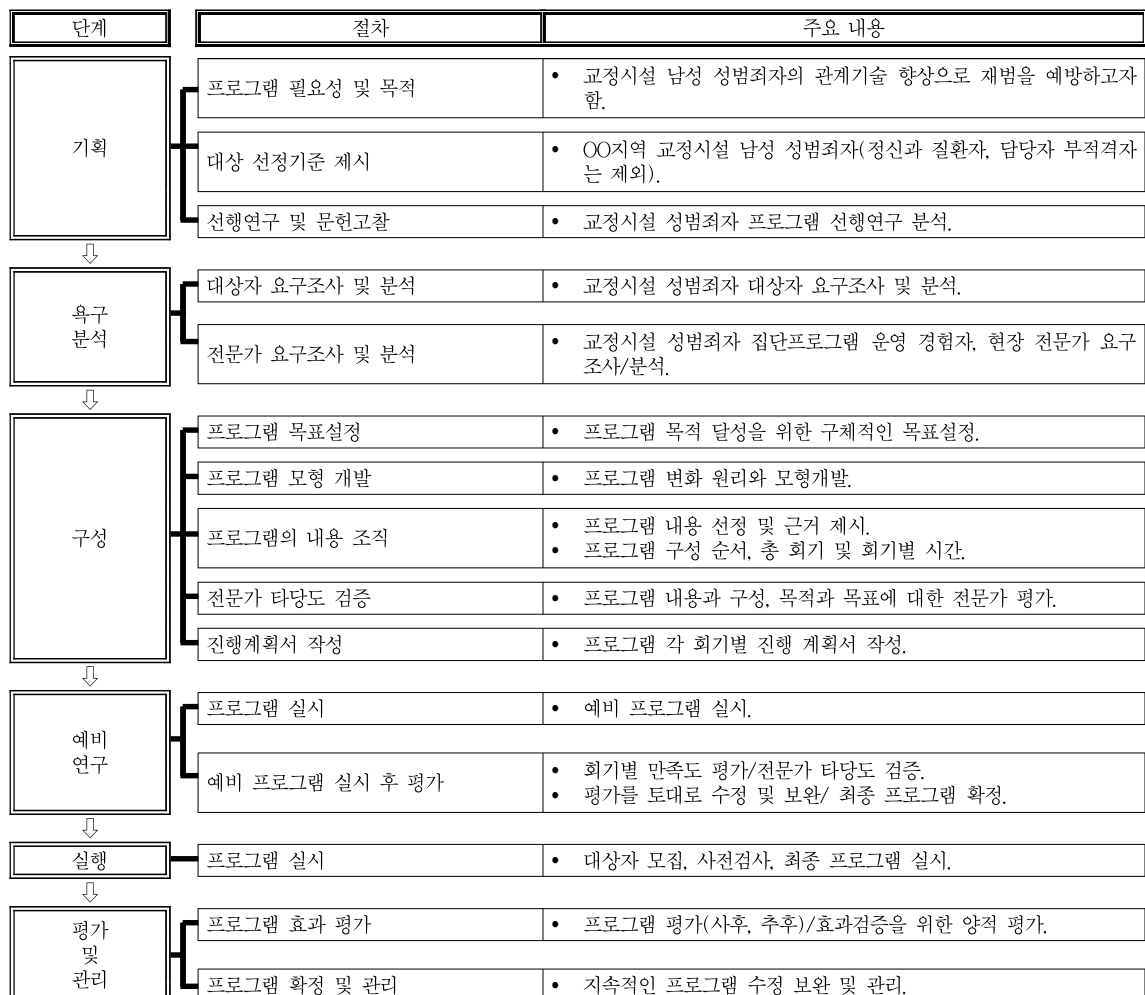


그림 1. DBT 프로그램 개발모형

표 2. DBT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내용

회기	차원	주제 및 목적	내용
1	프로그램 소개	강점 강화	- 프로그램 소개하기, 사전검사하기, 연구 참여 동의서 받기 - 자신의 강점을 쓰고 소개하기(인생에서 특별한 일들을 적어 보기)
2	마음 챙김	자기 탐색과 이해	- 마음 챙김 기술 배우기(6가지) - 호숫가의 작은 돌(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름 붙이기) - 동영상 시청: 상처와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지기 - 인생 곡선을 그리기(가족 안에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알기)
3	마음 챙김	지혜로운 마음에서 감사 찾기	- 마음 중심 잡기(세 가지 마음 상태) - 합리적인 마음, 지혜로운 마음, 감정적인 마음 - 축복 해아리기(최근에 감사한 것 적기) - 가족에게 감사 편지 쓰기
4	마음 챙김	합리적 마음으로 감사 표현하기	“What”기술(마음 관찰, 마음 기술) “How” 기술 - 한 가지 마음 갖기, 부정적인 판단하지 않기, 효과적인 것에 집중하기, 지금 순간에 집중하기 - 자신에게서 감사함 찾기 - 삶에서 감사한 사람 생각하고 이미지화하기
5	마음 챙김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기	- 마음 챙김 기술 배우기(6가지) -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름 붙이기 - 동료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 동료에게 친절한 행동 목록 만들기
6	고통 감내	현재에서 낙관성 찾기	- 살짝 미소짓기: 찡중 날 때 미소 짓기, 아침에 살짝 미소 짓기 - 고통 감내의 장·단점 찾기(긍정적 자동적 사고증진, 우울감 감소) - 피라니아 이야기: 긍정을 바라보면 부정 낮추기 - 자신이 경험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찾고 표현하기
7	고통 감내	현재의 고통과 반대로 친절한 행동하기	- 마음챙김 먹기(레모나) 훈련 - 살짝 미소짓기(Half-Smile) - 친절한 행동 후 감정의 의미 나누기 - 자신에게 칭찬하고 선물하기
8	고통 감내	어린 시절 상처 준 대상 용서하기	- 실재적 고통과 부재의 고통 구분하기 - 고통의 파도타기(상처를 떠올리며 밀물과 썰물의 원리 이해하기) - 어린 시절 상처를 수용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 편지 쓰기 - 동영상 시청: 화해 프로젝트 “용서” - 용서하기가 긍정적 정서에 주는 영향 - 분노감과 우울 감소, 상처 해결 및 조망 수용
9	정서조절 훈련	자신의 강점 활용하기 전략	- 감정에 대해 바로 알기: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 퀴즈 - 표현되기까지 감정의 순서 지각하기 - 감정 일기: 성범죄 촉발사건- 해석- 감정표출- 잔존효과 - 성범죄 사건의 원인이 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영향 줄이기 - 성범죄 유발 감정이 생활에 주는 의미 - 자신의 강점을 찾고, 가족을 위한 삶의 방향찾기 - 가족의 강점이 발휘된 구체적인 경험 찾기 - 강점 찾기, 강점 활용과 문제 해결력 향상

10	정서조절 훈련	자기 강점 유지와 강화	- 정서적 각성 줄이기, 반대로 행동 취하기 - 자기 진정 기법(나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 - 칭찬받은 느낌 나누고 바르게 칭찬하는 방법 알기 - 탈무드 이야기: 자기 사랑(자기 격려와 가족 격려) - 나와 가족의 강점에 대해 나누기/사회적 기술 향상, 공감 능력 향상
11	정서조절 훈련	감정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성범죄 원인이 된 감정 바로 알기, 1차 감정과 2차 감정 - 부정적 감정에 노출되기(Emotion Exposure) 둔감화 하기 - 가족과 갈등 상황에 반대로 행동하기(긍정적인 감정 늘리기) - 사건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에 대해 나누기 - 자신의 걱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12	정서조절 훈련	감사함을 통해 긍정적 정서 강화하기	- 정서적 각성 줄이기, 반대로 행동 취하기 - 자기 진정 기법(나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 - 마틴 셀레그만의 “감사일기” 영상 - 감사하기가 긍정적 정서에 주는 영향/ 긍정적 사고 증가, 희망 찾기
13	대인관계 훈련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을 희망 찾기	- 내가 원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 구분하기/나의 관계 성향 알아보기 - 방해요인 날려 버리기(걱정거리, 감정 망설임) -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의 모습 그리기 - 액자에 넣어 장식하기
14	대인관계 훈련	나와 가족 강점 찾기	- 충동 시 반대 행동(정보교환): 몸 이완하기 - 자신의 강점 쓰고 첫 회기와 비교 후 느낌 나누기 - 자신에게 응원 의 한마디 쓰기
15	대인관계 훈련	행복한 미래 설계	- 간단하게 부탁하기: 4가지 요소를 포함한 대사 만들기, 연습하기 - 대인관계 효율성의 3요소(목표, 관계, 자기 존중), 갈등 극복하기- - 동영상 시청: 법륜스님의 죽문죽설(행복하게 사는 법) - 행복 서약서 작성 및 발표: 행복한 자기와의 약속
16	대인관계 훈련	갈등 관리하기	- 출소 후 가족과 화해의 대화 연습하기/긍정 정서 유지, 프로그램에 익힌 기술 출소 후 생활 적용 계획 세우기 - 사후 검사지 작성하기

그러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의 애착 손상을 집단의 긍정적 피드백으로 회복하고 내면의 분노를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승화하도록 하였다. 대인관계 기술인 긍정적 의사소통은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과 경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서조절 훈련은 가족에 대한 부정적 사고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의 강점을 발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내면의 가족에 대한 긍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동료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부정적 감정일지라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동료와의 관계에서 안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기마다 도입 부분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것을 나누고, 마음 챙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경험을 서로 나눴다. 통제된 환경인 수형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동료와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감정을 수인하며 이를 긍정적 대화기술로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기술로 익히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수형 생활에서 대인관계기술과 정서조절 훈련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실천하였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실험 설계

본 연구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의 핵심 기술을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성범죄자의 내적 변화와 관계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모형은 실험

표 3. 집단 전후설계 모형

실험집단	R	O ₁	X ₁	O ₂	O ₃
통제집단	R	O ₄		O ₅	O ₆

R: 실험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나눌 때 무작위로 할당

O₁, O₄: 사전검사(내적 변화, 관계 변화)

O₂, O₅: 사후검사(내적 변화, 관계 변화)

O₃, O₆: 추후검사(내적 변화, 관계 변화)

X₁: 실험처치(변증법적 행동 프로그램)

집단과 대조집단의 집단 전후 설계 모형(Pretest-posttest Design Control)이다. 본 연구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표 3과 같다.

측정 도구

마음챙김 척도

마음 챙김을 측정하기 위해 박성현(2006)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마음 챙김은 주의집중, 비 판단적 수용, 현재자각, 탈중심주의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마음 챙김 수준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화 시 박성현(2006)의 Cronbach's α 는 .95이었지만,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6로 나타났다.

자기통제 척도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Tangney 등(2004)이 개발한 13문항의 단축형 척도(Brief Self-Control Scale: BSCS)를 홍현기, 김희송, 김진하, 김종한(2012)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 한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자기통제는 자제력과 집중력의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13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자기통제 수준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화 시 홍현기 외(2012)의 Cronbach's α 는 .85이었지만,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공격성 척도(BDI, Buss-Durkee Inventory)

공격성 측정을 위해 Buss & Durkee(1957)가 개발한 공격성 척도를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타당화 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48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낮은 공격성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화 시 노안녕(1983)의 Cronbach's α 는 .88이었지만,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충동성 척도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ratt가 개발한 BIS-II 판 (BIS,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을 이현수(1992)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충동성은 인지 충동성(cognitive impulsiveness), 운동 충동성(motor impulsiveness), 무계획 충동성(non-planning impulsiveness)으로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낮은 충동성을 의미한다. 척도의 번안 시 이현수(1992)의 Cronbach's α 는 .81이었지만,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대인 간의 공감반응척도

대인 간의 공감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 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박성희(1996)가 번안하여

타당화 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Davis(1980)는 공감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정서적, 인지적 공감으로 크게 나눴다. 대인 간의 공감 반응은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개인적 고통, 공감적 관심으로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간의 공감 반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번안 시 박성희(1996)의 Cronbach's α 는 .81이었지만,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3로 나타났다.

성인에착 척도

성인에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친밀관계 경험 검사(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문항 반응이론을 활용하여 친밀관계 경험 검사개정판(ECR-Revised: ECR-R)으로 개정한 것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성인에착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2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36문항으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화 시 김성현(2004)의 Cronbach's α 는 각각 .89와 .85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8과 .89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범죄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로 매우 높은 윤리적인 접근이 요구되어 연구윤리 준수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절차는 Daybreak University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1-05). 연구 진행 전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OO교정시설에 공문으로 연구를 의뢰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교정시설 기관장과 심리지원팀장 및 담당자에게 프로그램의 목적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후 교정시설에서 참여해야 하는 수강 명령 대상자 중 본 프로그램에 적합한 수행자를 추천받았고, 이들 중에서 무작위로 실험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021년 10월 0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 3회씩 16회기 180분씩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진행 전 사전검사를 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후검사를 하였다. 사후검사 2주 후 2021년 11월 26일에 추후검사를 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의 유지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본 연구자와 교정시설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다년간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력이 있고, 보조진행자는 교정시설 성범죄자의 집단상담 진행 경력이 있는 심리치료팀 소속 전문가이다.

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양적 자료는 IBM SPSS WIN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에서 채택하였다. 첫째, 요구도 분석과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셋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검증(Independent t-test)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내적변화와 관계 변화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Mixed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하였으며,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우 어떤 시점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는지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대비(Interaction contrasts)검증을 하였다.

결 과

집단 간 사전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동질성 검증을 하고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사전검사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모든 사전검사 측정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DBT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내적변화에 미친 영향

본 연구에서는 D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대조집단 간에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마음 챙김, 자기통제, 공격성, 충동성의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와 추후검사를 통해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하위척도 점수를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시행하여 집단(실험집단 대 대조집단) × 측정 시기(사전, 사후, 추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의 세부 내용은 표 5와 같다. 첫째, 마음 챙김의 총점은 시기($F=3.673, p<.05$)의 변화로 집단×시기의 상호작용($F=1.721, p<.05$)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의 현재 자각은 시기($F=3.679, p<.05$)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집단×시기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탈중심화는 집단($F=2.039, p<.05$)의 변화가 집단×시기($F=2.039, p<.05$)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표 4.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구 분	실험(N=10)		대조(N=11)		<i>t</i>	<i>p</i>	
	M	SD	M	SD			
마음챙김	주의집중	13.80	2.57	12.27	3.38	0.373	0.713
	비판단적 수용	14.90	4.12	12.36	3.47	-0.258	0.799
	현재 자각	13.60	3.31	11.91	3.73	0.255	0.802
	탈중심주의	15.30	3.23	12.64	2.34	-0.196	0.847
	총점	57.60	10.81	49.18	9.89	0.025	0.980
자기통제	자제력	22.20	2.15	22.36	4.08	-0.113	0.911
	집중력	12.90	1.73	12.91	3.11	-0.008	0.994
	총점	35.10	3.00	35.27	6.74	-0.074	0.941
공격성	신체적	25.20	6.88	26.55	7.84	-0.416	0.682
	언어적	30.90	3.81	32.27	5.93	-0.623	0.541
	직접적	49.30	6.34	51.09	10.69	-0.461	0.650
	간접적	25.80	3.99	26.18	6.24	-0.165	0.871
	총점	131.20	17.07	136.09	28.29	-0.473	0.641
충동성	인지 충동성	22.60	2.17	20.64	3.23	1.616	0.123
	운동 충동성	25.20	3.71	26.27	6.66	-0.449	0.658
	무계획 충동성	32.30	3.37	31.09	3.59	0.794	0.437
	총점	80.10	7.84	78.00	10.91	0.502	0.622
대인 간 공감반응	관점취하기	11.80	2.49	13.09	2.70	-1.136	0.270
	상상하기	12.80	1.55	13.09	2.63	-0.305	0.764
	개인적 고통	11.10	1.91	12.36	2.11	-1.432	0.168
	공감적 관심	13.00	2.11	12.55	1.63	0.555	0.585
	총점	48.70	4.90	51.09	6.56	-0.938	0.360
성인애착	애착불안	54.30	8.91	55.00	11.62	-0.154	0.879
	애착회피	67.30	5.68	64.18	7.52	1.063	0.301
	총점	121.60	13.89	119.18	17.63	0.347	0.733

$p<.05$, $**p<.01$

표 5. DBT 프로그램의 집단 간 시기에 따른 내적 변화의 차이비교

	변인		실험(N=10)		대조(N=11)		집단(A)	시기(B)	A×B
			M	SD	M	SD	F(p)	F(p)	F(p)
마음 챙김	주의집중	사전	13.80	2.57	12.27	3.38	1.683 (0.210)	2.708 (0.095)	0.435 (0.599)
		사후	11.90	3.83	11.36	2.54			
		추후	12.50	2.59	10.73	2.15			
	비 판단적 수용	사전	14.90	4.12	12.36	3.47	1.118 (0.304)	1.103 (0.342)	2.188 (0.126)
		사후	12.30	4.30	12.73	3.26			
		추후	14.00	3.83	12.00	2.24			
	현재 자각	사전	13.60	3.31	11.91	3.73	1.052 (0.318)	3.679 [*] (0.049)	0.429 (0.601)
		사후	11.20	3.43	10.82	3.43			
		추후	11.70	2.67	10.27	2.90			
	탈 중심주의	사전	15.30	3.23	12.64	2.34	1.168 [*] (0.023)	2.589 (0.088)	2.039 [*] (0.044)
		사후	12.10	4.15	15.45	4.13			
		추후	13.60	3.44	15.27	1.35			
	총점	사전	57.60	10.81	49.18	9.89	1.716 (0.206)	3.673 [*] (0.035)	1.721 [*] (0.044)
		사후	47.50	14.49	50.36	10.35			
		추후	51.80	11.74	48.27	5.87			
자기통제	자제력	사전	22.20	2.15	22.36	4.08	1.717 (0.206)	9.909 ^{**} (0.000)	1.639 (0.208)
		사후	17.00	2.45	20.45	4.63			
		추후	18.00	2.94	19.64	5.55			
	집중력	사전	12.90	1.73	12.91	3.11	0.030 (0.865)	11.521 ^{**} (0.000)	0.110 (0.896)
		사후	10.40	1.96	12.91	3.73			
		추후	10.30	2.06	11.36	4.23			
	총점	사전	35.10	3.00	35.27	6.74	0.729 (0.404)	13.654 ^{**} (0.000)	1.062 ^{**} (0.000)
		사후	27.40	4.17	33.36	7.70			
		추후	28.30	3.53	31.00	9.14			
공격성	신체적	사전	25.20	6.88	26.55	7.84	0.011 (0.918)	0.132 (0.877)	0.679 (0.513)
		사후	24.00	3.37	27.00	6.84			
		추후	26.70	3.83	25.09	8.24			
	언어적	사전	30.90	3.81	32.27	5.93	1.041 (0.320)	0.976 [*] (0.036)	1.716 [*] (0.013)
		사후	28.60	3.98	32.45	6.33			
		추후	28.50	3.75	31.91	6.96			
	직접적	사전	49.30	6.34	51.09	10.69	2.651 (0.120)	1.249 (0.298)	2.112 (0.135)
		사후	44.00	5.25	53.36	12.69			
		추후	43.70	5.38	50.73	13.89			
	간접적	사전	25.80	3.99	26.18	6.24	0.514 (0.042)	0.938 [*] (0.040)	0.477 (0.225)
		사후	19.00	3.43	26.09	3.83			
		추후	20.30	3.02	25.45	5.35			
	총점	사전	131.20	17.07	136.09	28.29	1.095 (0.308)	0.702 (0.502)	1.199 (0.313)
		사후	115.60	12.82	138.90	27.43			
		추후	119.20	12.56	133.18	32.46			
충동성	인지 충동성	사전	22.60	2.17	20.64	3.23	0.083 (0.777)	27.092 ^{**} (0.000)	5.363 [*] (0.009)
		사후	16.10	3.78	18.18	2.09			
		추후	18.00	2.94	18.73	2.15			
	운동 충동성	사전	25.20	3.71	26.27	6.66	1.946 (0.179)	20.306 ^{**} (0.000)	1.617 (0.219)
		사후	17.00	3.40	21.91	8.18			
		추후	18.00	3.06	21.82	8.33			
	무계획 충동성	사전	32.30	3.37	31.09	3.59	0.001 (0.978)	33.855 ^{**} (0.000)	2.365 (0.108)
		사후	26.40	3.31	25.27	5.52			
		추후	22.90	3.25	25.36	5.52			
	총점	사전	80.10	7.84	78.00	10.91	0.854 (0.367)	44.868 ^{**} (0.000)	2.995 ^{**} (0.000)
		사후	59.50	3.92	65.36	14.09			
		추후	58.90	6.15	65.91	13.91			

* $p < .05$ ** $p < .01$

났다. 둘째, 자기통제 총점은 시기($F=13.654$, $p < .01$)의 변화가 집단×시기($F=1.062$, $p < .01$)의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변화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총점은 집단과 시기, 집단×시기의 상호작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어적 공격성에서는 시기($F=0.975$, $p < .05$)의 영향으로 집단×시기의 상호작용($F=1.716$,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간접 공격성은 시기($F=3.673$, $p < .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고 집단×시기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충동성의 총점에서는 시기($F=44.888$, $p < .01$)로 집단×시기의 상호작용($F=2.995$,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지 충동성은 시기($F=27.092$, $p < .01$)로 집단×시기의 상호작용($F=5.363$, $p < .05$)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동 충동성은 시기에서($F=20.306$, $p < .01$) 그리고 무계획 충동성 또한 시기($F=33.855$, $p < .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집단×시기의 상호작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범죄자의 DBT 프로그램의 관계 변화의 효과

DBT 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대인 간의 공감 반응, 성인 애착에 미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실험 집단 대 대조집단)×측정한 시기(사전, 사후, 추후)에 대하여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6과 같다. 연구결과 집단과 시기의 변화로 집단×시기 상호작용에서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표 6. 관계 변화의 집단 간 시기별 비교

변인		실험(N=10)		대조(N=11)		집단(A)	시기(B)	상호작용 A×B	
		M	SD	M	SD	<i>F</i> (<i>p</i>)	<i>F</i> (<i>p</i>)	<i>F</i> (<i>p</i>)	
대인 간 공감반응	관점 취하기	사전	11.80	2.49	13.09	2.70	7.866 [*] (0.011)	71.938 ^{**} (0.000)	5.071 [*] (0.011)
		사후	23.90	3.28	20.36	2.58			
		추후	22.80	2.82	19.18	3.03			
	상상하 기	사전	12.80	1.55	13.09	2.63	8.061 [*] (0.010)	68.186 ^{**} (0.000)	6.120 [*] (0.005)
		사후	21.60	2.95	19.00	2.65			
		추후	22.30	3.95	17.64	1.50			
	개인적 고통	사전	11.10	1.91	12.36	2.11	9.563 [*] (0.006)	133.125 ^{**} (0.000)	16.291 ^{**} (0.000)
		사후	22.30	3.06	18.18	1.72			
		추후	22.10	3.28	17.27	2.28			
	공감적 관심	사전	13.00	2.11	12.55	1.63	8.740 [*] (0.008)	177.145 ^{**} (0.000)	7.080 [*] (0.002)
		사후	25.70	2.54	21.36	3.78			
		추후	24.00	3.37	19.45	3.33			
총점	사전	48.70	4.90	51.09	6.56	14.941 [*] (0.001)	337.909 ^{**} (0.000)	24.750 ^{**} (0.000)	
	사후	93.50	7.01	78.91	6.63				
	추후	91.20	10.57	73.55	6.19				
성인에착	애착불 안	사전	54.30	8.91	55.00	11.62	2.254 (0.150)	12.914 [*] (0.001)	2.765 [*] (0.001)
		사후	36.90	8.89	48.73	11.07			
		추후	43.90	11.48	48.64	12.18			
	애착회 피	사전	67.30	5.68	64.18	7.52	3.743 (0.068)	18.663 ^{**} (0.000)	8.332 [*] (0.001)
		사후	47.40	10.27	61.45	5.80			
		추후	53.10	7.45	55.64	8.94			
	총점	사전	121.60	13.89	119.18	17.63	3.530 (0.076)	19.913 ^{**} (0.000)	6.589 [*] (0.009)
		사후	84.30	17.99	110.18	14.62			
		추후	97.00	15.78	104.27	17.30			

^{*} $p < .05$, ^{**} $p < .01$

대인 간의 공감 반응 총점은 집단($F=24.750$, $p < .01$)과 하위척도에서 관점 취하기($F=5.071$, $p < .05$), 상상하기($F=6.120$, $p < .01$), 개인적 고통($F=16.291$, $p < .01$), 공감적 관점 ($F=7.080$, $p < .05$) 모두에서 집단×시기 상호작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성인 애착 또한 마찬가지로 총점($F=6.589$, $p < .01$)과 하위척도 애착불안($F=2.765$, $p < .01$), 애착 회피($F=8.332$, $p < .01$) 모두에서 집단×시기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DBT 프로그램의 관계 변화의 효과

DBT 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대인 간의 공감 반응, 성인 애착에 미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실험 집단 대 대조집단)×측정한 시기(사전, 사후, 추후)에 대하여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6과 같다. 연구결과 집단과 시기의 변화로 집단×시기 상호작용에서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인 간의 공감 반응 총점은 집단($F=24.750$, $p < .01$)과 하위척도에서 관점 취하기($F=5.071$, $p < .05$), 상상하기($F=6.120$, $p < .01$), 개인적 고통($F=16.291$, $p < .01$), 공감적 관점 ($F=7.080$, $p < .05$) 모두에서 집단×시기 상호작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성인 애착 또한 마찬가지로 총점($F=6.589$, $p < .01$)과 하위척도 애착불안($F=2.765$, $p < .01$), 애착 회피($F=8.332$, $p < .01$) 모두에서 집단×시기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성격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성격장애 치료에 효과적인 변증법적 행동 치료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성범죄자의 대인관계 증진과 가족관계 회복을 돕고자 하였다. 변증법적 행동 치료 핵심 기술은 마음챙김, 정서 조절 훈련, 고통 감내, 대인관계 효율성이다. Linehan(1993)은 개인의 행동 변화를 목표로 중재 내용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대처 행동의 변화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으로 성범죄자의 내적 변화와 관계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변화 효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하위영역 수준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내적 변화 지표는 마음 챙김, 자기통제, 공격성, 충동성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관계 변화는 대인 간의 공감반응과 성인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통해 드러난 효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수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과 사후 그리고 추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실험집단의 마음챙김, 자기통제, 공격성, 충동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조집단에서도 실험 집단과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은 성범죄자의 마음 챙김 기술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익힘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완화 시켰고, 성범죄자라는 자기 낙인에서 벗어나서 자기 수용적 행동이 증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서조절 훈련은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인하면서 충동성과 공격성은 낮아지고 자기통제력이 향상되었다. 정서 조절능력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과 부정적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수용함으로써 자기조절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다. 이는 성범죄자의 성적 충동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낮추는 행동으로 변화되었다.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서 익힌 기술은 추후검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는 Trupin과 동료(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자기 통제력이 높아지고 공격성이 감소한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Bohus et al., 2000). 이처럼 프로그램 참여한 성범죄자의 마음 챙김 능력의 향상은 자기통제 능력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낮추는 자기 조절능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회복에 필요한 관계기술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져 재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충동성과 공격성의 변화에 낮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윤정숙, 김민영, 이태현, 2020; 강춘희, 권재환, 2021). 인지행동치료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한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인지 왜곡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범죄 사건 당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항과 도덕적 방어기제로 부정적 감정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로 오히려 충동성과 공격성 수준을 높이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지기능이 낮은 성범죄자에게 인지행동치료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의 변화시켜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성격장애 유병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정서 수인은 인지행동치료보다 성범죄자의 내적 변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역기능적인 주의가 많은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자의 수형 생활은 부적응을 높이고, 정서적 경직과 편향된 주의에 의해 부정적 정보에 집중하고 내적 자극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내부 귀인하

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Hope, Gansler, & Heimberg, 1989).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마음 챙김은 성범죄자들은 수용과 변화라는 변증 철학에 맞춰 효율적인 인생의 목표를 찾고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지적 판단으로 인한 역기능적 사고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성인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도전을 증가시켰다. 이는 성범죄와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는 낮은 자기통제와 충동성 공격성과 같은 수용되지 않는 사고와 부정적 감정과 싸움을 멈춰 내적 에너지 소모를 줄임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Forsyth와 Eifert(200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변증법적 행동 치료의 핵심 기술을 함양시킴으로써 사건을 직면할 수 있는 자아의 힘을 강화하고 탈 도덕화와 방어기제를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은 성범죄를 재범을 촉진하는 부정적 사고와 신념의 변화는 물론 부정적 정서의 변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이 이러한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향후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변증법적 행동 치료의 변화기술이 성범죄자의 관계 변화에 미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인 간의 공감반응과 성인 애착의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과 사후 그리고 추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실험집단의 대인 간 공감 반응, 성인 애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조집단에서도 다소 변화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은 고통 감내 기술과 정서조절 기술을 통해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기꺼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감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불편감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료들의 감정반응에 무 판단적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기

술해 봄으로써 감정적 자기 타당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수용 생활에서 정서적 불편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판단과 평가가 개입되지 않고 사실적 관점에서 자신을 지각하고 인식함으로써 상호작용에서 관계 불안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의 변화기술 훈련이 공감 반응과 친밀한 태도를 변화와 행동 강화로 나타냈다. 본 연구의 대인 간의 공감 반응의 긍정적 변화는 교정시설 성범죄자의 좋은 삶 모델 프로그램의 대인 간 공감 반응의 효과적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 결과이다(김용희, 2019; 서호영, 2020, 유숙경, 김용섭, 이경원, 2020). 성범죄자의 애착 회복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향상, 성적 공격성의 감소와 같은 친 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Hunter et al., 2007; Wheeler et al., 2002). 이는 선행 연구(조미라, 2018)에서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게 성인 지력 향상 프로그램을 중재하였더니 대인 간의 공감 반응과 성인 애착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대인관계 대처기술의 변화를 위해 성범죄자의 강점을 강화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강점을 실현하는 시연과 역할학습을 적용하였다. 이는 단순학습 형태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험 나누기와 일상에서 실천적 노력을 이행하고 이를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대인관계의 긍정적 태도의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박영숙, 임경희 2010; Baer, 2015). 또한, 자신의 성범죄로 인해 가족이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고 출소 후 사회적 냉소를 이겨낼 버팀목이 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변화 동기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토론과정에서 집단 구성원의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은 것이 인식의 변화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 강화에 효과적이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대인관계 긍정적 변화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긍정적 피드백을 활용하여 동료 관계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변화 동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교정시설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용이성과 어려움을 나누고, 반복 학습을 통해 강점을 강화하는 중재 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사전 과제를 제시, 집단에서 긍정적 피드백,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계획 세우기 등의 전략을 적용하였다. 교정시설 성범죄자의 관계 증진과 관련된 대인 간 공감 반응, 성인 애착 수준 변화에 대한 지속성을 측정하고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대인관계 효율성은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면서도 자기를 적절하게 주장하는 능력과 정서조절은 문제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 중재를 통해 연구참여자는 집단 구성원과 대인관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하고, 사회적 기술과 자기주장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향상 및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쌓아가고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이 반항성 성격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개선과 우울감이 있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지속성을 확인한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다(권혜미, 2013; Nelson-Gray et al., 2006). 성범죄자의 어린 시절 애착 형성의 실패는 사회성 및 공감과 관련된 '거울 뉴런(mirror neuron)'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애착 손상은 관계에서 고립과 고독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성범죄자의 교정시설에서 치료되지 않은 애착 손상은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고 이는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애착 회복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성범죄자의 대인관계 증진과 정서 조

절능력 함양은 성범죄자의 대인관계의 질의 향상과 가족관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그들의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은 삶이 행복하고 보다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범죄자가 가족의 의미와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 가족의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면 재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mucker & Losel, 2015; Soldino & Carbonell-Vayá, 2017). 이처럼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손상된 애착 회복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교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은 성범죄자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well-being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Rajalin과 동료(2009)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해석되어 진다. 사법 체계에서 판결한 형벌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그들을 교화하고 교정하는 곳으로, 성범죄자를 범죄자가 아닌 건강한 시민으로서 기능하도록 시민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를 추구하는 개인으로 보고 변화의 동기를 고조시키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김영식, 서호영, 2009). 교정시설의 '校'는 '바르게 한다', '고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리'의 의미도 있어 '다리'는 수용자와 가족을 연결하는 황금의 다리를 의미할 수 있다. 교정시설이 성범죄자의 치료 공동체로 탈바꿈한다면 성범죄자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체 모델의 구성과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가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도록 교정 차원의 가족 지원 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본 연구가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접근 방식은 개인의 내적 변화와 성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서 새로

운 패러다임 관점인 가족 체계에서 재범 예방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의 중재는 수감 생활 동안 핵심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출소 후 습득된 기술을 추후검사의 유지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가족관계에서 이행의 지속성을 예측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향후 교정시설에 있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기틀인 변증법적 행동 치료와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재범 예방에 접근하였기에 심리학과 가족 치료적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 된다.

참 고 문 헌

- 강요한, 송원영 (2022).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연구동향 분석: 국내 문헌들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32(1), 155-184.
- 강준희, 권재환 (2021). 재범위험 성폭력사범 집중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충동성, 분노표현, 강간통념, 자기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07-719.
- 권솔지, 이경주, 김희균 (2018). 아동학대 판단척도 (Child Abuse Assessment Tool)의 활용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1(59), 276-336.
- 권해수(2008).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255-1287.
- 권혜미 (2013). DBT(Dialectical Behavior Therapy)가 우울 성향의 청소년들의 우울감, 자기조절,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애 (2011).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로서의 근대 최초 여성작가 김명순. **여성과 역사**, (14), 31-82.

- 김병수 (2012). 가족 접견제도의 개별화: 가족 만남의 집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75-108.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다문화 연구 :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 (2012).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성의식과 강간통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식, 서호영 (2009). 수형자 사회복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교정연구**, 42, 163-192.
- 김요완 (2020).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Crisisonomy**, 16(1), 1-19.
- 김용희 (2019). **성범죄자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치료프로그램효과분석: 서울지역 시립치료센터 한곳의 치료사례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내, 이종연 (2017).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의 국내 연구동향. **교정복지연구**, (51), 73-99.
- 김현희 (200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파워먼트 접근의 유용성. **임상사회사업연구**, 1(2), 37-58.
- 노안녕 (1983). **비행 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검찰청 (2021). **2020 성범죄백서**. 서울: 대검찰청.
- 박성현 (2006). **마음챙김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희 (1996).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교육학연구**, 34, 143-166.
- 박영숙, 임경희 (2010). 스트레스 경험과 정서기능이 신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평가연구**, 3, 15-29.
- 법무부 교정본부 (2022). **교정통계연보**. 서울: 교정본부.
- 서호영 (2020).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연구 : 범죄성향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장기 효과 검증: 7년 추적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32(3), 667-682.
- 신경백, 이영준, 김경관, 김현정, 송동호 (2012). 국내 성폭력 가해자의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특성.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1, 170-177.
- 신기숙, 조성호 (2009).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1), 58-59.
- 신기숙 (2017).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및 집단치료 효과-좋은 삶 모델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11(2), 239-267.
- 오삼광 (2011). **성폭력 범죄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숙경, 김용섭, 이경원 (2020). 교정시설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좋은 삶 모델 프로그램 효과 연구: 질적 연구 접근. **교정복지연구**, (68), 129-162.
- 윤옥경 (2007). 소년 수용자의 가족접촉 실태와 가족 유대 증진방안 연구. **교정연구**, 34, 35-58.
- 윤정숙, 김민영, 이태현 (2020).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47.
- 은현정, 김태형, 이선미 (2001). 일 도시 지역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 **신경정신의학**, 40(4), 581-591.
- 이현수 (1992). **충동성 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이호중 (2010). 아동성 폭력 재범 방지정책의 인권 법적 쟁점. 아동성 폭력 재범 방지정책과 인권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35-97.

- 전상완, 신중섭, 김알찬 (2021). 팬데믹 시대, 노인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정보 고찰. **한국스포츠학회지**, 19(4), 249-260.
- 정명선 (2010). **청소년의 주의집중 및 공감 향상을 위한 주제제시 형식의 집단미술 치료 효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유희, 박은영, 손외철 (2014).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효과: 단기 재범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4), 737-760.
- 조미라 (2018). **성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성인지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협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성문, 김미옥, 박명숙, 차명정, 함경애(2017). **집단상담**. 서울: 학지사.
- 표갑수, 엄정옥 (2012).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인지 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4, 211-236.
- 홍숙선, 이동혁 (2020). 성폭력 가해 대상에 따른 성폭력 가해자의 대상관계 차이 분석. **재활심리연구**, 27(2), 155-176.
- 홍현기, 김희송, 김진하, 김중환 (2012).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 (BSCS) 의 타당화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193-1210.
- Andrews, D. A., Bonta, J., & Wormith, J. S. (2006). The recent past and near future of risk and/or need assessment. *Crime & delinquency*, 52(1), 7-27.
- Baer, R. A. (Ed.). (2015). *Mindfulness-based treatment approaches: Clinician's guide to evidence base and applications*. Amsterdam, Elsevier.
- Bohus, M., Haaf, B., Stiglmayr, C., Pohl, U., BoEhme, R., & Linehan, M. (2000). Evaluation of inpatient dialectical-behavioral 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9), 875-887.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 Davis, M. H. (1980). Measur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measures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unsieth, N. W., Nelson, E. B., Brusman-Lovins, L. A., Holcomb, J. L., Beckman, D., Welge, J. A., ... & McElroy, S. L. (2004). Psychiatric and legal features of 113 men convicted of sexual offense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5(3), 15923.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Forsyth, J. P., & Eifert, G. H. (2007). *The mindfulness and acceptance workbook for anxiety*. Oakland, CA: New Harbinger.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
- Hanson, R. K., Bourgon, G., Helmus, L., & Hodgson, S. (2009). *A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Risk, need, and responsivity*. User Report, 1.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2004). *Predictors of sexual recidivism: An updated*

- meta-analysis* 2004-02.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 Harris, A. J. R., & Hanson, R. K. (2004). *Sex offender recidivism: A simple question*. 3. Ottawa, Ontario: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 Hope, D. A., Gansler, D. A., & Heimberg, R. G.(1989). Attentional focus and causal attributions in social phobia: Implications from soci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49-60.
- Hunter, J. A., Figueredo, A. J., Becker, J. V., & Malamuth, N. (2007). Non-sexual delinquency in juvenile sexual offenders: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influences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1), 43-54.
- Linehan, M. M. (1993). *Skills training manual for treat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Y, Guilford press.
- Linehan, M. M. (2018).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Y, Guilford Publications.
- Lösel, F., & Schmucker, M. (2005).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1), 117-146.
- Marshall, W. L., Marshall, L. E., Serran, G. A., & O'Brien, M. D. (2011). *Rehabilitating sexual offenders: A strength-based approac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www.apa.org/>
- McNair, L., Woodrow, C., & Hare, D. (2017). Dialectical behaviour therapy [DBT] with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and narrative analysi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30(5), 787-804.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California, sage.
- Nelson-Gray, R. O., Keane, S. P., Hurst, R. M., Mitchell, J. T., Warburton, J. B., Chok, J. T., & Cobb, A. R. (2006). A modified DBT skills training program for oppositional defiant adolescents: Promising preliminary finding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2), 1811-1820.
- Paolucci, E. O., Genuis, M. L. & Violato, C. (2001). A Meta-Analysis of the Published Research on the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 17-36.
- Rajalin, M., Wickholm-Pethrus, L., Hursti, T., & Jokinen, J. (2009). Dialectical behavior therapy-based skills training for family members of suicide attempter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3(3), 257-263.
- Sakdalan, J. A., & Gupta, R. (2014). Wise mind –risky mind: A reconceptualisation of dialectical behaviour therapy concepts and its application to sexual offender treatment.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20(1), 110-120.
- Schmucker, M., & Lösel, F. (2015). The effects of sexual offender treatment on recidivism: An international meta-analysis of sound quality evalu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1(4), 597-630.
- Shingler, J. (2004). A process of cross-fertilization: What sex offender treatment can learn from dialectical

- behaviour therapy.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0(2), 171-180.
- Soldino, V., & Carbonell-Vayá, E. J. (2017). Effect of treatment on sex offenders' recidivism: a meta-analysis. *Anales De Psicología/Annals of Psychology*, 33(3), 578-588.
- Spitzberg, B. H. (1999). An analysis of empirical estimates of sexual aggression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Violence and victims*, 14(3), 241-260.
- Stinson, J. D., & Gonsalves, V. (2015). *Got DBT? Understanding and applying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in sex offender treatment*. Orlando, FL.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 Stinson, J. D., & Gonsalves, V. (2016). *Got DBT? Understanding and Applying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in Sex Offender Treatment*, Parts I & II. Orlando, FL.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 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 Trupin, E. W., Stewart, D. G., Beach, B., & Boesky, L. (2002). Effectiveness of a dialectical behaviour therapy program for incarcerated female juvenile offender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7(3), 121-127.
- Wheeler, J. G., George, W. H., & Dahl, B. J. (2002). Sexually aggressive college males: Empathy as a moderator in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5), 759-775.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estimates, 2018: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prevalence estimate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and global and regional prevalence estimates for non-partner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orld Health Organization.

원 고 접 수 일 : 2022년 09월 19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3년 03월 30일

게 재 확 정 일 : 2023년 04월 20일

Development and Effect of a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 Program to Enh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Recover Family Relationship in Male Sex Offenders of Correctional Facilities

Sukgyeong Yoo

Youngeu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California Reformed Seminary

Various attendance order programs are enforc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to prevent sexual offense recidivism, but the rates continue to rise. This study developed a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 program to prevent sexual crime recidivism among incarcerated sex offenders. Using a group pre-post experimental design,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xperimental or control groups in an OO correctional facility. Data analysis involved measures of mindfulness, self-control, impulsivity, aggression, interpersonal empathy, and adult attachment. A 16-session program was administered with pre-, post-, and follow-up assessments. SPSS 27.0 was used for analysis, employing mixed-design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exhibited significant increases in mindfulness and self-control, and decreases in impulsivity and aggress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mprovements in interpersonal empathy and adult attachment were also observed. The DBT program effectively enhanc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nfluenced family dynamics among sex offenders. The study'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Sex offender,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interpersonal relationship enhancement, family relationship recovery

이마고 관계치료를 통한 협의이혼 신청 부부의 관계회복 과정 연구*

이 미 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이마고 관계치료를 적용한 이혼 전 상담에 있어서 관계회복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30~40대 부부 5쌍을 대상으로 이혼숙려기간 동안 부부상담을 진행하고 추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5개의 구성요소와 22개의 하위 구성요소, 146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최종 구성요소와 관계회복 경험은, '상처인식단계-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봄', '통합연결단계- 현재 안에 재조명된 과거', '통찰수용단계- 부부관계의 재이미지화', '소통변화단계- 공감적 의사소통의 실천', '이혼철회단계- 치유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다짐'으로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위기에 놓여있는 부부들이 성급하게 관계를 종결짓지 않도록 도움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주며, 이혼상담 현장에서 부부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이혼문제를 다루는 상담자의 자원과 태도, 사회공동체의 역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이마고 관계치료, 협의이혼, 부부, 이혼 전 상담, 관계회복

* 본 논문은 이미혜(2022)의 서울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미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팀장, 인천시 부평구 부영로 161, 주안빌딩 5층,
Tel: 032-508-0101, E-mail: mija91@hanmail.net

결혼하는 모든 부부들은 누구보다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가길 기대한다. 하지만 수 십여년 이상 서로 다른 원가족 경험을 가지고 성장한 남녀가 결혼 후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부부갈등은 관계의 미숙함에서 오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자기 내면의 상처를 배우자에게 투사하면서 자신의 원초적인 욕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본다(심수명, 2008; 오제은, 2005; Hendrix, 1988). 원가족에서부터 이미 잠재해 있는 갈등의 원인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결혼한 부부의 상당수가 갈등을 겪게 되고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때 별거나 이혼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부부의 이혼은 가족해체를 비롯하여 자녀의 성장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울, 실패감, 분노와 죄책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의 변화와 부적응, 단절 등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산업화의 급진적인 성장과 다양한 정보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세대 간 갈등의 증폭 등 사회적인 현상은 전통적인 가족체계 붕괴와 가족개념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더불어 이혼율의 증가와 저출산, 가족구성원의 유기, 가족 간 갈등, 노인과 아동의 부양부담 등은 가족의 위기로 이어져 다양한 가족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대 가족의 특성이 개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가족의 문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져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양순, 박정윤, 전영주, 2015).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이혼을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8년 이혼숙려제의 도입과 가정법원을 주축으로 한 이혼 전 상담의 의무화 및 활성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과 출범을 통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당사자들의 후견적 개입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혼위기에 당면한 부부들을 돕기 위하여, 일찍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부갈등을 최소화하는 이혼 예방정책에 초점을 두고, 부부치료와 이혼예방조기교육,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혼위기 가족들을 돕는 통합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박남숙, 200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지원 상담기관과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이혼 전 상담을 통하여 부부들로 하여금 결혼의 의미와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킴으로써 가족체계의 핵심인 부부관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혜숙, 이희배 유계숙(2008)은 이혼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핵심이 정작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혼하거나 재혼한다고 하면서, 이혼 예방이나 건강한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전 숙려기간 상담의 제도화를 통하여 부부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시·군·구 중심으로 가정법원들은 상담위원을 채용하여 이혼위기 부부와 가족들을 위한 의무상담 및 심화상담 등 이혼 전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부부관계 악화로 인한 부부간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협력적 부모관계 형성, 이혼 재숙고 및 합리적인 이혼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관계회복이나 건강한 이혼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부 관계갈등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부부갈등의 원인(강혜숙, 김영희, 2008; 김은정, 2019; 김효숙, 2014; 남인순, 2018)과 부부갈등의 변화 과정(강희숙, 양정옥, 2012), 이혼 결정 과정(김민녀, 2018; 김은정, 2019; 노진숙, 2013)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들 연구는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 의사소통, 성격차이, 원가족 갈등 및 그 외 배우자 외도나 가정폭력, 경제문제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이나 별거 선택, 이혼으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예측 가능한

일련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원가족과 관련한 부부갈등 연구들은, 행복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원가족 안에서의 건강한 대상관계 경험, 안정적인 애착형성과 가족 간 의사소통의 질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권인숙, 2016; 김명애, 송정아, 2012; 이성희, 2007; 이종원, 2015).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결혼위기에 놓여있는 부부들을 위한 상담 치료계획, 효과적인 상담 개입 시기, 이혼예방 교육이나 상담 진행 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혼상담 관련 선행연구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 결과 부부갈등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검증해주고 있다. 연구에 적용된 상담모델은 다양했으나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결혼불만족과 이혼의향이 감소되고, 본인의 책임 자각과 함께 자기이해와 성장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의사소통이나 갈등조정 방식 등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박성주, 2008; 박은혜, 2015; 심영민, 2014; 차경선, 2013). 이에 비하여 부부갈등이 심각하여 법적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상담의 효과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전영주, 원성희, 김수연, 2009; 오세정, 2014). 이혼상담의 효과성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이혼 전 상담제도 도입과 상담권고제 시행 이후 이혼의사 취하율이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송성자, 2006), 또 다른 연구들은 상담의 효과성 및 협의이혼 전 상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확대의 요구(김지혜, 김장희, 2015)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마고 관계치료 관련한 선행연구 또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이마고 관계치료를 관한 국내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3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연구방법별로는 사례연구가 46.9%, 성과연구가 37.5%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이민영, 2021). 이마고 관계치료 관련한 연구들은, 어린 시절 발달과정 중 경험한 상처 치료의

중요성, 이마고 원리를 이용한 부부치료 통합모형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발달과정에서 충족하지 못한 미해결 과제의 치유가 건강한 부부생활의 원리이며, 이마고 대화는 부부의 정서적 연결과 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신영호, 2011; 심수명, 2008; 오제은, 2005; 정정화, 윤가현, 2018; Hendrix, Hunt, Luquet, & Carlson, 2015). 아울러 이마고 관계치료는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 공감반응 능력의 증가, 긍정적 사랑의 태도 증가 및 부부간 적응능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다(송정아, 2005; Hosseini, Movahedi, 2016; Muro, Holliman, Luquet, 2016; Schmidt, Gelhert, 2017).

최근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연구 동향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1편 수행되었으며, 갈수록 감소 추이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연구가 매년 15.7편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박상윤, 2022).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이혼위기에 놓여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혼 전 상담이나 이마고 관계치료가 효과적임을 밝혀주고 있듯이, 향후에는 부부 당사자 중심의 연구와 이혼위기로부터 관계가 회복된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혼 전 상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담이론이나 방법은, 특정한 부부상담의 모형을 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치료이론들에서 필요한 기법이나 원리를 절충하거나 통합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활용한다. 결혼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합리적 이혼의사 결정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며, 정신역동이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 구조적 또는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 인지 행동주의 이론, 해결중심이나 이야기 치료와 같은 탈근대적 치료모델, 가트맨과 이마고 관계치료를 같은 관계중심적 접근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전영주, 김수연, 원성희, 2009; Long & Young, 2009).

본 연구에서 주로 적용한 이마고 관계치료는, 하

빌 헨드릭스(Harville Hendrix) 부부에 의해 1988년경 개발되었으며 복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치료사들이 상담현장에서 활용하는 치료모델이다. 이마고 관계치료는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 통합모델이나 그중에서도 어린 시절 성장단계에서 입은 상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러(Margret Mahler)의 대상관계이론과 에릭슨(Eric Erikson)의 사회심리발달이론이 주된 바탕이 된다. 이마고 관계치료에서는 주양육자와의 관계 경험 가운데 형성된 이미지와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고 본다. 이렇게 만난 배우자를 이마고 짝(Imago Match)이라고 말하며, 부부는 서로의 발달단계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애쓰면서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마고 관계치료는 ‘관계’를 치유의 원초적인 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많은 초점을 둔다. 치료과정에서 이마고 대화법(반영하기-인정하기-공감하기), 부모-자녀 대화법(Parent-Child dialogue), 안아주기, 행정수정요청 등의 기법을 통하여, 부부는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치료사는 부부간 연결을 돕는 촉진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부부가 의식적인 결혼생활(Conscious Marriage)이 가능하도록 돕는다(Hendrix, 1988; Brown, 2009).

특히 이마고 관계치료에서는, 배우자의 어린 시절 상처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부부치료에 반영하고 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정서적 상처와 그로 인한 미해결 과제는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친밀하고자 하는 관계형성에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부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채워지지 못했던 미해결 과제를 배우자를 통해 충족되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동기와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게 된다(Hendrix, 1988). 또한 로맨틱한 사랑의 환상이 깨어진 후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부부갈등의 배경에는 부모와의 관계경험 가운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 상처와 욕구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부부갈등의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Brown, 2009; Hendrix, 1988; Luquet, 2013).

이혼숙려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는 결혼관계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배우자와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고, 결혼유지와 이혼에 따른 비용과 보상을 비교하며, 원가족 탐색과 핵심감정, 미해결 과제, 의사소통 등의 관계적 문제를 다루게 된다(전영주 외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마고 관계치료의 특징과 이혼 전 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연구자는 이마고 관계치료를 적용한 부부상담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협의이혼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들은 배우자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서적 안전감과 연결감이 부족하다. 이마고 관계치료 뿐 아니라 부부상담을 적용하여 관계회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녹록지는 않다. 하지만 이혼 전 상담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이혼이 철회될 수 있다면, 가족기능이 악화되고 가족해체가 급증하는 위기상황에서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숙려상담에 참여하는 부부들의 이마고 관계치료를 통한 관계회복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위기에 놓여 있거나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이혼상담 현장에서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하에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이마고 관계치료를 적용한 이혼 전 상담을 통한 관계회복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둘째, 관계회복 경험에 영향을 준 맥락은 무엇이며, 참여자들은 회복의 경험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셋째, 관계회복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통해 어떠한 점들을 주목할 수 있는가?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정보

참여자	구분	연령	학력	직업	자녀	결혼형태	이혼사유	이혼접수	결과
부부 1	남편 1	38	대졸	회사원	여 5세 임신 중	초혼 6년차	처가갈등 의사소통	2019.08	이혼 취하
	아내 1	36	고졸	주부					
부부 2	남편 2	37	고졸	생산직	남 9, 7세 여 3세	초혼 10년차	배우자의심 역할분담	2019.10	이혼 취하
	아내 2	32	고졸	경력직					
부부 3	남편 3	35	대졸	회사원	남 2세	초혼 3년차	성격차이 배우자폭력	2021.04	이혼 취하
	아내 3	36	대졸	주부					
부부 4	남편 4	32	대졸	회사원	남 2세	초혼 4년차	의사소통 성격차이	2021.02	이혼 취하
	아내 4	34	대졸	휴직					
부부 5	남편 5	44	대학원	자영업	남 7세	재혼 7년차	시가갈등 배우자폭력	2021.03	이혼 취하
	아내 5	44	대졸	주부					

방 법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자는 부부 참여자들의 관계회복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하는 데 있어서, 아메데오 지오르기(Amedeo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오르기의 현상학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Giorgi, 2004). 그의 연구방법은 이혼위기 참여자들의 관계회복 과정과 그로 인한 결혼관계 재구성에 나타난 실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모호하지 않은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의도적 표본추출 원리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즉, 연구 자료의 적절성 충족을 위하여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후, 협의이혼 신청을 한 부부들 중 이마고 관계치료를 적용한 이혼 전 상담을 진행한

부부들을 모집단으로 정하였다. 이들 중 이혼을 결정한 부부들을 제외시키고 관계회복을 경험한 부부를 표집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중 연구에 적합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부를 의도적으로 추출하여 연구에 동의하는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반영한 후, 연구취지를 알리고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30~40대 부부 5쌍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수집은,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동안 진행된 부부상담을 통하여 관계회복을 결정하고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 부부들의 면담내용과 부부상담 종결 후 진행된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부부상담은 이마고 관계치료 모델 중, 이혼의사 결정단계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한 부모의 이미지 특성 탐색, 이마고 대화법, 부모-자녀 대화법, 행동수정요청 기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개인적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이나 TA 심리검사와 해석상담 등 타 상담이론을 병행하였다. 부부 양쪽의 이야기를 편중 없이 듣기 위

해 노력하였고, 면담 도중 관찰된 참여자들의 표정, 몸짓, 의사교류시 비언어적 특징들은, 면담 후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 통찰 등과 함께 현장노트에 기록해 두었다. '심층면담을 위한 개방형 질문지'는 만남과 결혼, 어린시절 부모경험, 결혼관계 경험, 이혼결정 및 이혼철회 등으로 구분하여 총 26개의 질문으로 연구 전 작성해 두었으며, 부부 면담 자료를 통해 미리 얻어진 정보를 제외하고 추가질문을 통한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8월부터 시작하여 코로나 19 펜데믹 현상 기간동안 잠시 중단되었다가 21년 8월까지 두 차례로 나뉘어 수집되었으며, 부부상담과 심층면담은 회기당 1시간~1시간 30분씩 총 8~10회기를,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녹음된 면담 내용은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들으며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기 위한 수평화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읽었다. 다음 단계로는 연구현상에 초점을 맞추며 의미단위를 구분하기 위한 메모삽입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들 중 반복 서술이나 맥락에서 벗어난 의미들은 제외시키고, 중심 의미를 주제군으로 묶어 심리학적 언어로 구조화하였다. 하위 구성요소들은 현상학적 문헌 등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살펴 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로 통합하고 범주화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및 평가준거

현상학 연구에서 후설(Husserl)이 강조한 것은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이다(이정빈, 2018).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이해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파악하였다. 정리한 연구자의 선이해는, '부부갈등과 이혼 원인은 각자 어린 시절과 연관이 있다', '법적절차를 밟는 부부들의 경우 관계회복이 쉽지 않다', '이혼 전 상담 중에는 이혼 결정과 이혼철회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배우자 외도나 가정폭력이 사유인 경우 관계회복이 어렵

다' 등 총 8개 문항이었다. 아울러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지식이나 이론, 선입견이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문헌연구의 고찰 또한 연구과정 중 현장이나 참여자의 경험을 오염시키는 선이해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료분석시에는 보류하였다. 그러나 연구 후반에는 적극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 검토하면서 자료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명시된 연구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연구 자료는 별도의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연구 종료 시점에 폐기할 것 등을 고지한 후 서명을 받았다. 참여자들의 사적인 보호를 위하여 이름 대신 <참여자 부부 1>, <참여자 부부 2>와 같은 형식으로 번호를 매겨 기록함으로써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쿠바와 링컨이 제시한 질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Lincoln, Guba, 1985).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위해 면담내용 중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은 재차 질문을 통하여 연구자의 분석과 참여자의 경험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혼 전 부부상담을 진행하는 동료 상담사들과 이마고 부부치료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적용성(applicability)을 위하여 연구 자료는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혼 전 상담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된 부부들의 경험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정법원 상담위원들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을 위하여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분석과정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와 연구 지도교수의 검수 및 지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립성(neutrality)을 위해서는 연구자 자신의

선이해와 편견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의식적 노력과 함께, 연구에 대한 기대감과 연구 목적을 재차 확인하는 시도를 하였다.

결 과

구성요소 도출과정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연구 자료를 전사하고, 전사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은 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639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이 중 중복되거나 연구주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의미는 제외시킨 후, 146개의 의미단위를 분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통된 의미와 연결된 의미를 통합하여 22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5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범주화하였다. 최종 도출된 구성요소를 관계회복 경험의 구조와 연결하면 ‘상처인식 단계-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봄’, ‘통합연결 단계- 현재 안에 재조명된 과거’, ‘통찰수용 단계- 부부관계의 재이미지화’, ‘소통변화 단계- 공감적 의사소통의 실천’, ‘이혼철회 단계- 치유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다짐’으로 나타났다. 이를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협의이혼 신청 부부 관계회복 경험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요약
어린시절 상처와 마주함		- 모 사망 후, 어린 동생을 돌보며 자살을 생각함 - 가정폭력 후, 모는 오빠들만 데리고 가출하여 나만 혼자 남겨짐 - 모의 가출로 부와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함 - 술주정과 잔소리 심한 부, 위축되고 도망가고 싶었음
		- 이혼 후 고생하는 모가 불쌍해 부를 원망하며 미워함 - 존재감 없는 부모, 관심과 사랑이 목말랐음 - 부모의 이혼과 재혼, 정서적 방임 가운데 외롭게 성장함 - 가정폭력, 편애하는 부모로 인해 소외감, 억울한 감정이 쌓임 - 엄격하고 통제적인 부모로 인해 답답하고 화가 남 - 모에게 매 맞고 성장하면서 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컸음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봄		- 정말 싫었던 아빠의 모습을 닮은 내 남편 - 내, 외면 모두 엄마와 일치하는 아내
	우리는 부모와 닮은 사람임을 자각함	- 다정한 남편, 알고보니 아버지의 나쁜 점만 닮은 사람 - 아버지와 닮은 자신을 자각, 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음 - 아빠와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했다고 착각함 - 갈등상황시 부모의 부정적 특성이 내 안에서 드러남
결핍으로 인한 이해결과제를 확인함		- 인정과 돌봄이 필요했으나 외롭고 슬프고 암담했음 - 무섭고 외로웠던 어린시절, 거짓 자아로 살아옴 - 관심과 사랑, 선물이 필요했으나 무관심만 경험함 -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으며 관계적 욕구를 채우기 원함 - 존재감 없이 지내며 원망과 칭찬, 사랑 가운데 독립심을 가지고 싶었음 - 따뜻한 보살핌 대신 비난, 억울하고 수치심이 느껴졌음

현재 안에 재조명된 과거	부모와의 삶을 재현하며 살아옴	- 내 부모처럼 자녀들과 놀아주는 것을 모르는 아빠였음
		- 경쟁심, 오기, 강압적 태도가 어린시절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함
	어린시절 결핍을 배우자에게 채움받기 원함	- 잔소리 들을 때 가만히 있는 모습이 똑같음
		- 화가 나면 가만히 있거나, 폭력을 쓰거나
		-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을 볼 때 어린시절 아빠 모습이 연상됨
		- 화가 진정이 안 될 때는 가출을 함
	부부갈등 요인의 근원 확인	- 도망치고 싶던 어린시절, 부부갈등 상황시 지금도 마찬가지임
		- 어릴 때나 지금이나 화풀이 대상,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살아옴
		- 버림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남편이 관심과 애정을 주길 원함
		- 과도한 관계의 욕구, 남편에게 채움받기 원함
부부관계의 재이미지화	배우자의 상처를 공감하며 연민이 생김	-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요구를 안 들어주면 서운하여 빠침
		- 남편이 내 보호막이 되어주길 원함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	- 어린시절 아버지를 떠올리는 아내의 공격적, 강압적 태도에 화가 남
		- 남편의 무책임한 언행이 아빠와 똑같아서 화가 나고 실망스러움
		- 틀렸다고 비난받을 때 과잉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린시절 상처임을 자각함
		- 서러움과 억울한 감정이 어린시절 핵심감정임을 깨달음
	다시 찾은 감사와 눈물	- 아내의 어린시절 이야기에 눈물이 나고 연민이 생김
		-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남편이 이해됨
		- 아내의 상처가 이해되고,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함
		- 적당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남편의 태도가 이해되고 공감됨
부부가족상담연구 제4권 1호, 2023	부부관계의 재이미지화	- 갈등이 생겼을 때 격하게 분노하는 남편이 이해됨
		- 아내의 어린시절 상처를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됨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	- 시모의 상처까지 가중시킨 부분이 많이 미안함
		- 이혼위기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음
		- 밥 먹듯이 이혼하자는 말을 해 왔음
		- 갈등의 책임을 배우자의 탓으로만 돌리며 원망해 왔음을 알게 됨
	다시 찾은 감사와 눈물	- 가사, 육아 전담해보니 배우자의 노고가 이해됨
		- 부모로 인해 내재된 감정을 아내에게 표출하고 있었음을 알게 됨
		- 아내의 대인관계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음을 깨달음
		- 갈등시마다 양극단의 태도를 보였던 자신을 인지함
부부가족상담연구 제4권 1호, 2023	부부관계의 재이미지화	- 갈등이 커질 때마다 집을 나감으로 배우자의 불안을 증폭시켰던 잘못을 깨달음
		- 잘 따라와 주니 문제없다 착각하며 경제적 역할에만 주력해 왔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	- 부족한 나와 결혼해주고 힘들어도 묵묵히 살아주는 모습이 고마움
		-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주는 남편이 고마움
		- 여러 부분에서 배려심 깊은 아내가 고마움-오열
		- 실망스러워도 헤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 준 것이 고마움-눈물
	다시 찾은 감사와 눈물	-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어주고 손 내밀어 준 아내가 고마움-눈물
		- 부족한 남편 이해해주고 인내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름다움

강점과 긍정적 요인들 재발견	- 애교 많고 자기주장 잘하는 모습이 매력적임 - 알고 보면 책임감 강하고 자상한 아빠, 좋은 남편임 - 이해심 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앎 -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할 줄 앎 - 예의 바르고 잘 웃어주고 애정표현을 잘함 - 행복했던 신혼시절을 회상하며 고마운 아내를 추억함 - 깊은 대화를 나누며 여행 다니던 시절이 좋았고 그리움
배우자가 소중하게 느껴짐	- 아내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됨 - 남편이 나를 몰라준다 생각했는데 오해였음을 알게 됨 - 상대방 관점에서 바라보는 힘이 생기니, 아내도 옳다는 생각이 들 - 아내가 없는 삶은 생각하기도 싫음
원가족을 용서하고 화해함	- 무서웠던 아버지를 만나 사과받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김 - 관계가 단절되었던 아빠와 어린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사과받음 - 따뜻함이 없던 차가운 엄마,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남 -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상담 공부를 함
혼란함을 신뢰로 극복	- 이혼서류 제출 후 남편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임 - 심사숙고하는 마음이 컸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결합의 생각이 커짐 - 가족들이 이혼을 반대하며 조언함 -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기에 다시 한번 믿어주길 원하는 마음이 컸음 - 과거 아픔이 반복될까 봐 두려움이 있으나, 다시 용기를 냄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 점검	- 다른 사람보다 남편에게 칭찬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 -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압하고 방어하며 답을 쌓아움 - 사과했으니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오해하며 살아움 -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다가, 나중에 분노로 표현함 - 따뜻한 속마음과 다르게 딱딱한 태도로 소통해 움 -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잔소리가 많았음 - 서로 다른 해석과 관점의 차이가 갈등을 증폭시킴 - 갈등상황에 대화를 회피하니까 갈등해결이 안됨 - 싸울 때마다 지나간 과거를 들추어냄 - 아픈상처, 사과도 없이 잊었다고 말할 때 정말 화가 남 - 공감대화 대신 원수되는 대화를 하며 살아움 -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음
공감적 의사소통의 실천	- 부부싸움 후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화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함 - 과잉반응 앞에 회피하는 태도는 변화가 필요함 - 효과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야 함 - 서로 다른 갈등해결 방식 조정이 필요함 - 공감대화 원할 때 해결책 제시는 변화가 필요함 - 사소한 부분도 의견 나누는 소통이 중요하고 필요함

	-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함 - 반영, 인정, 공감하는 대화법을 처음으로 배움 - 경청하고 반영해주는 대화가 잘 안된다는 걸 느낌 - 공감 대화에 자신감이 생겨남 - 이마고 대화가 쑥스럽고 어려움, 연습이 필요함
의식적 대화법을 배우고 시도함 새로운 소통방식을 적용하며 관계가 향상됨	- 이마고 대화를 해보니 부부간 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깨달음 - 부부싸움 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됨 - 속마음을 표현하며 부부대화 수준이 변화됨 - 화나는 상황에 반영하기를 적용하기로 하고 실천함 -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짐 - 배우자의 칭찬과 인정에 마음이 행복해짐 - 부드러운 요청 대화를 해보니 갈등이 줄어듦
두려움 가운데 이혼취하를 결정함	- 결혼생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짐 - 너무 두려운 이혼, 취하를 결정해 준 배우자가 고마움 - 결혼생활 중 가장 행복한 현재를 붙잡아 보려고 함 - 자녀들과 놀아주는 남편의 변화에 희망이 생김 - 긍정적인 기회로 삼고 노력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음
자녀에 대한 염려도 중요한 부분	- 임신 중 이혼, 비참하고 원망스러웠음 - 자녀들에게서 아빠를 뺏고 싶지 않음 - 부모이혼이 자녀들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되었음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큼 - 이혼의 상처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음 - 엄마의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가될까 염려함
치유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다짐 이혼상담의 효과성 확인	- 부부상담의 유익을 자각함(안전한 환경과 객관성) - 이혼상담 진행 중 별거를 청산하고 합가하게 됨 - 결혼생활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 - 갈등의 핵심을 파악하고 노력하니 인정이 주어짐 - 대화시간이 증가하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희망이 생김 - 상대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힘과 안목이 생김 - 그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자각하고 책임을 수용할 수 있게 됨 - 남편이 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변화되니 좋음
갈등관리를 위한 해결점 논의	- 양가 집안에 적절한 경계를 세우고 지키기로 함 - 부부싸움 후 집 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함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인 자유시간을 갖도록 배려함 - 일정기간 동안 시댁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함 - 서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함 - 화를 다스리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논의함

- 통제와 비난 대신 존중과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 주길 원함
 - 부족하더라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 격려해 주길 요청함
 - 존재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자주 스킨십해주길 원함
 -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주며 믿어 주길 요청함
 -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요청함
- 회복을 위한 요청과- 친구 같은 남편과 아빠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약속
- 어린시절과 결혼관계를 분리하고 객관적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것임
 - 건설적으로 화 표현하기, 공감대화 관련 독서를 통하여 부부대화가 깊어지도록 노력할 것임
 - 결혼관계에서 서로의 기대와 소망을 확인하고 노력하기로 함
 -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남편의 고유특성을 인정해 주기로 함
 - 모든 부분에서 아내에게 최대한 맞추어 주기로 약속함

부부관계 회복 경험의 구성요소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봄

어린 시절 상처와 마주함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 긍정적 관계경험을 갖지 못했다. 부모 중 한쪽의 사망이나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고, 신체 및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 편애, 방임적인 환경 가운데 성장하였다. 어린 시절의 삶이 전쟁터와 같았고 늘 불안정했으며, 버려진 채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던 두렵고 외로운 경험이었다고 진술하였다.

“9살 때 엄마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신 후 동생 돌보는 일이 내 몫이 되었어요. 너무 버겁고 부담스럽고... 엄마가 보고싶고 슬프고 외롭고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자살하고 싶었어요” (남편 1)

“아빠가 가정폭력 하면서 부부싸움도 많이 했죠. 아빠는 칼도 집어들고 닥치는대로 잡히는대로 물건도 집어던지고... 아빠는 가정의 모든 잘못된 것들

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엄청 때렸어요.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나는 없어져야 할 존재. 늘 소외감이 느껴졌어요” (아내 4)

우리는 부모와 닮은 사람임을 자각함

참여자들은 그토록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닮고 싶지 않았으나, 그대로 닮은 채 부모와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토록 싫어하던 부모의 특성을 닮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당혹스럽기도 했다.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내 부모의 부정적 특성들이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가 싫어했던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라고 했는데, 저희 아빠의 나쁜 점만 골고루 닮은 사람이라니...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허무감, 좌절감이 크게 느껴지곤 했어요” (아내 4)

“아~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똑 닮았네요. 게다가 안 좋은 것만 닮았다니... 제가 부모님의 모습대로 똑같이 살고 있네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남편 2)

“저는 아버지의 좋은 점도 많이 닮았는데, 유독 아내와 갈등상황이 생길 땐 부정적인 특성이 제 안에서 드러나네요. 통제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남편 5)

결핍으로 인한 미해결 과제를 확인함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인정과 관심, 애정과 따뜻한 보살핌, 충분한 소통을 원하였으나, 무시와 잔소리,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방임 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성장하면서 참여자들은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억울함, 걱정, 슬픔, 소외감 등의 핵심감정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부모님 모두에게서 보살핌과 관심을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했어요.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엄마의 부상을 걱정하며 무섭고 외로웠어요” (아내 1)

“이혼한 아빠는 한번도 날 찾아주지 않았어요. 있지만 부재한 존재감 없는 아이로 성장하면서 아빠를 원했죠. 항상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엄마는 외로움이란 감정을 익숙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저는 혼자 있는게 불안했고 두려웠고... (남편 4)

현재 안에 재조명된 과거

부모와의 삶을 재현하며 살아옴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상처받거나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이 사용해 왔던 방어기제와 대인관계에서 취해왔던 행동방식을, 결혼한 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똑같이 재현하며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배우자가 어린 시절 부모를 연상하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내재된 감정을 건드릴 때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했음을 인지하였다.

“어린 시절 형제는 많고 가난하다보니 먹는거 가지고도 싸우며 경쟁하고... 지고 싶지 않았죠. 특히 술 드시면 아버지가 밥상을 얹으면서 힘으로 제

압하려고 했던 모습이 저와 똑같아요. 오기 부리고 더 큰소리치면서 휘어잡으려고... 결혼생활 내내 그러고 살았네요” (남편 2)

“부모님 때문에 힘들때도 저는 집을 자주 나가곤 했어요. 신랑과 살면서도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한다고 느낄 때, 화를 억누르지 못하면 집을 나왔어요” (아내 4)

“엄마에게 상처받고 외롭고 그럴 때,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집 안 가구를 부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거나, 이 끝과 저 끝을 달렸어요. 결혼해서 와이프와 살면서도 화가 나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과격하게 화를 내거나 했어요” (남편 4)

어린 시절 결핍을 배우자에게서 채움받기 원함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충족하지 못한 결핍과 욕구를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원하면서 그토록 투쟁하여 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아빠가 무뚝뚝하고 무관심했고, 아빠에게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성장한 탓인지 제가 신랑에게 요구하는게 많았고 채워주길 원했어요. 특히 애정 어린 깊은 대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채워지니 짜증을 났던거 같아요” (아내 3)

“어릴 때 갖고 싶은거, 먹고 싶은거 못 먹고 못한게 많다보니 와이프에게 많은걸 바래요. 이거 해줘~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거 사주면 안돼? 엄청 여러광을 부리고 안 들어주면 서운해서 빠치고 어느 순간 수위가 오르면 과격해져서 화내고 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 라는 생각에 식탐도 강하고...” (남편 4)

부부갈등 요인의 근원 확인

현재 자신의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요인들이 사실은 어린 시절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 기인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갈등상황에서 자주 느끼는 서운함과 원망, 분노, 두려움 또한 성장과정에서

서 받은 상처로 인해 내재된 핵심감정임을 인지하였다.

“아버지가 무섭고 통제적이어서 전 누가 간섭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대로 소신있게 살고 싶었는데 아내가 자꾸 자기 기준만 내세우면서 통제하려고 하니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고...” (남편 1)

“신랑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자주해요. 내 말 안 들어주면 억울한 감정 때문에 화가 나구요. 이게 어린 시절 경험속에 자리잡은 억울함과 서운함인거예요. 발언권도 없이 편애받으며 억울하게 컸잖아요” (아내 4)

배우자의 상처를 공감하며 연민이 생김
어린 시절 상처를 서로 나누며,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배우자의 위축되거나 무감각한 태도, 부적응적인 행동들, 격한 분노와 반복 가출,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 등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면서 연민이 생겨났다.

“사실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는 처음 들어요. 오늘처럼 이야기하면서 하염없이 우는 아내를 보니, 어린 아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안쓰럽고, 공감이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눈물> 아내를 위로해 주고 잘해 주고 싶어요” (남편 1)

“시댁에 가면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님 눈치를 많이 보고 어려워하고, 남편이 어떨 땐 기가 죽어 주눅 들어 있는거 같고, 말은 안 하고 화만 낼 때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젠 이해가 되고, 그동안 못 알아준게 미안하네요” (아내 1)

부부관계의 재이미지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
참여자들은 현재의 부부관계와 어린 시절 부모와

의 관계 경험을 연결해 보면서 새로운 통찰과 인식이 가능해졌다. 부부갈등의 책임을 배우자의 탓으로만 돌리며 정당화시켰던 자신의 미숙함과 그로 인한 배우자의 고통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자괴감도 들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사와 육아도 도와주지 않고 게임만 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꺼냈어요. 그냥 습관처럼 뺀 말이에요. 와이프를 휘어잡으려고 오기 부리는 거죠. 정말 내가 나쁜 놈이었죠” (남편 2)

다시 찾은 감사와 눈물

정서적 연결감이 회복되자 참여자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배우자에 대한 감사함을 떠올리고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을 표현하며 함께 손을 잡아주고 울어 주었다.

“주말에 야간일 하고 들어왔을 때 애들 시끄러우니까 나 잠 못 잘까 봐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거나 조용히 하라고 해 주던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소리내어 울기 시작> 세 아이 육아가사 혼자 다 감당하고... 도와달라는 말도 못 했겠지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오열> (남편 2)

“여러 번 가정폭력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헤어지고 어떡하든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해주는 거. 이혼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손 내밀어준 거 고마워요. 고마운 것보다 미안한게 더 많아서, 미안한게 자꾸 떠오르고...” <눈물> (남편 3)

강점과 긍정적 요인들의 재발견

부부간 사과와 용서가 가능해지고 정서적 연결과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그들을 압도하던 부정적 감정들이 감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니, 배우자의 강점과 관계회복을 위한 긍정적 자원들을 끌어올려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남편은 단정하고 이해심도 많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든 해주면 잘 먹어주니 고맙고 아이에게도 자상한 아빠이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는 남편이 눈물이 글썽해짐〉 (아내 1)

“신혼시절 큰 창으로 내다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웠던 기억. 넘 행복하고 좋았어요. 서로 많이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고... 〈울컥함〉 그때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더라도 노력하면서 회복하고 싶어요” (남편 5)

배우자가 소중하게 느껴짐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감이 깊어지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새로운 이미지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상처를 받은 아픈 사람이며 나처럼 존중받고 채움받기 원하는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하는 힘이 생기다보니. 나만 옳은게 아니고 아내도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너무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저는 아내없이 못 살아요 〈웃음〉” (남편 4)

원가족을 용서하고 화해함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는 오랜 세월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원가족 부모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으로 확대되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어릴 때 좋아리 견고 가족력으로 수십 차례 맞았던 그 일에 대해 아직 미안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었어요. 술 한잔 나누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는지,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하며 사과받고 화해하고 싶어요” (남편 1).

“아빠와 관계가 단절된 지 몇 년 지났어요. 가끔 전화가 와도 거절했는데, 이번에 전화로나마 어린 시절 힘들고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가 길어졌어요. 핑계는 대면서도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풀리고 후련해지고... 앞으로 더 깊은 대화 나누며 푸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 2)

혼란함을 신뢰로 극복

이혼숙려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양가감정과 내적갈등으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다. 배우자의 변화를 쉽사리 신뢰할 수 없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반복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반면 다른 배우자는 이혼당하게 될까 봐 괴롭고 불안한 마음이 컸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배우자를 믿어보자고 용기를 내었다.

“이 사람이 많이 노력하는 것이 보이기는 한데, 남편에게 전적인 신뢰감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불안하고 또 실망하고 안 좋아져서 다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죠... 하지만 남편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 다시 한번 믿고 용기를 내보려구요” (아내 5)

“한편으론 염려와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이혼접수 초기에 이혼 생각이 90%이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재결합의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내 3)

공감적 의사소통의 실천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 점검

참여자들은 그동안 잘못된 소통방식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칭찬과 인정, 수용의 언어 대신 잔소리와 비난, 격렬한 분노 표현과 가정폭력, 대화를 회피하는 방어적 태도

를 보이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악순환을 반복해 왔음을 깨달았다.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앞서면 이성적인 부분이 확 무너지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 분노로 그동안 억압해 두었던 감정을 다 풀어내는 것 같아요. 자기주장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남편 3)

“대화 시작하면 결국 싸우게 되고..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화 회피예요. 대화 좀 하자고 하면 딴청 피우고 회피를 해 버리니,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하고 비난의 말을 하게 되고 결국 갈등이 더 커져요” (아내 5)

새로운 관계방식 필요성 등의

참여자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소통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결책 제시가 아니라 감정을 공감해주기, 누적된 감정 효과적으로 풀어내기, 속 깊은 대화 나누기, 건설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 배우기, 갈등 해결 방법의 차이에 따른 타이밍 조율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였다.

“사실 부부싸움 후에 화해하는 방법도 몰라요. 지난번에도 싸운지 4주만인가? 우연히 눈이 마주쳐서 누군가 피식 웃으면 그걸로 화해인 거예요. 왜 싸웠는지 대화도 안 나누고 그냥 암묵적으로 묻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 감정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갈등 후 올바른 해결방법이 필요해요” (아내 1)

“부부 대화라고 해봐야 일상적인 드라마 이야기, 회사 이야기, 속마음, 아픈 마음 이런거 서로 표현 안 해요. 부부가 진지하게 속마음 털어놓고 지낸 적도 없고 자칫 이야기 잘못하면 싸움이 되니까 웬만하면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앞으로는 일상에서 생각이나 느낌, 감정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때그때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 5)

의식적 대화법을 배우고 시도함

참여자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대로 돌려주는 반영하기, 나와 다른 배우자의 관점일지라도 동의해주는 인정하기, 상대방의 감정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공감하기 등 이마고 대화법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였다.

“우리 부부도 올바른 소통법을 새롭게 배워 대화를 나누니까 이게 되네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부부가 차 마시면서 일상적 대화를 해 본 적도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 (남편 1)

“평소에 저는 말도 조리있게 잘하는 편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경청하고 반영해 주는 대화가 어렵네요. 남편이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잘 받아주니까 제 마음이 좋아요” (아내 2)

새로운 소통방식을 적용하며 관계가 향상됨

참여자들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을 공감대화로 변화시키고 연습하는 의식적 노력을 하게 되면서, 관계가 향상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피상적 대화에서 벗어나 좀 더 깊은 수준의 대화가 가능해졌고, 부부간 수용의 폭도 넓어졌다. 부정적 표현이 줄어들고 긍정적 표현이 증가하면서 부부관계가 편안해지고 행복감이 커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마고 대화를 나누니 서로에게 대해 오해했던 부분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배려해서 한 행동인데 그걸 내 맘대로 해석하곤 섭섭해했던 거고, 나도 또한 그랬는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으니 화가 났던거고, 그동안 남편의 이해심과 배려를 놓치고 살았네요. 이런걸 깨달으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내 1)

“예전엔 대화 나누다가 싸움으로 치닫곤 했는데, 이제는 싸움이 훨씬 줄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맞추어 주게 되고, 아내의 마음도 더 알게 되고 좀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남편 3)

치유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다짐

두려움 가운데 이혼취하를 결정함

일련의 경험들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관계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생겨났고 최종적으로 이혼취하를 결정하였다. 여전히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후회하게 될까 봐 두렵고 혼란한 감정이 혼재해 있었으나, 자신과 배우자를 다시 한번 신뢰하며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용기를 내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혼 위기가 오히려 큰 기회가 되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잘 해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서로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내 1)

“두렵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결혼생활 동안 지금까지 언쟁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처음이에요. 남편이 노력하는데 뿌리치기에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든 안정감 있는 지금의 현실을 다시 붙잡아 보려구요” (아내 2)

자녀에 대한 염려도 중요한 부분

참여자 부부 모두 발달주기상 ‘자녀양육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염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자녀에게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며 사느니 이혼하는게 낫다는 생각과 이혼의 상처를 자녀에게 대물림 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양가감정을 느꼈으나, 최종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이혼 철회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것보다 임신 중인데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이 비참했어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비참하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도 다시 잘살아 보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아내 1)

“이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을때도 자녀를 생각해서 참고 견뎌주죠. 이혼은 제 선택인지 모르지만, 애들한테 만큼은 참담함, 비참함 이런거 주고 싶지 않아서... 저두 부모님 이혼으로 평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내 아이들에게 똑같이 대물려 준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 2)

이혼상담의 효과성 확인

부부상담을 하면서 참여자들은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상담과정을 통하여 수용성, 행복감, 편안함 등이 향상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상담하게 되면서 별거를 청산하고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서는 벌써 싸움이 일어났을 상황인데도, 상담실에서는 안전한 환경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 배우자의 이야기가 더 잘 들리고 수용이 되는거예요” (남편 1)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갈등의 핵심이구나 혼자 생각할 때보다 더 잘 알게 되어 좋아요.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인정해 주니 좋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해 나가고 있는 느낌. 기분이 좋아요. 갈등이 생겨도 잘 극복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남편 3)

갈등관리를 위한 해결점 논의

각 부부들마다 주요 갈등을 일으키는 개별 상황에 대한 갈등지침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혼하지는 말과 합의 없는 가출금지, 사생활 허용, 갈등시 타임아웃 외치기, 원가족과의 심리적 및 물리적 경계 재설정, 무조건 배우자 편 들어주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아내가 시댁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흘러들곤 했는데, 이혼위기 상황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당분간은 본가와 외의 연결을 끊으려고요. 이번 명절 때도 못간다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너희끼리 잘 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5)

“싸울 때마다 자주 이혼하자는 말 서로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남편은 처가와 관계에서 좀 거리를 두기로 하고 저 또한 불필요한 방문은 자제하기로 합의했어요. 무엇보다도 남편과 싸우고 나서 친정으로 가 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아내 1)

회복을 위한 요청과 약속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어린 시절 상처를 떠오르게 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지양해 줄 것과 어린 시절 결핍과 욕구를 채워주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부부의 상처치유와 성장을 위해 협력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하며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적 다짐을 하였다.

“그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싫었어요. 회식하고 들어오면 항상 큰 소리가 났고,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도 많았고... 특히 시부모님 앞에서 나를 무시하면서 몰아세울 때 억울하고 비참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든든한 바람막이, 울타리가 되어주면 좋겠어” (아내 5)

“어린 시절 상처가 비슷해서인지, 결혼생활에서의 기대나 바라는 꿈도 비슷해요. 공간에서의 안정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따뜻한, 소소한 대화 나누며 웃을 수 있는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 그거면 충분해요.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요” (남편 4)

논 의

본 연구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의 이혼 전 상담을 통한 관계회복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

하기 위한 목적하에 현상학적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이마고 관계치료를 적용한 부부상담을 통하여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를 만나고, 현재의 부부갈등과 연결하여 통찰해 보는 경험을 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를 만나게 되면서, 부부는 자신들이 부모와 닮은 사람임을 자각하였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부모의 사망과 이혼, 재혼,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부모로부터 인정과 관심,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 대신 다양한 심리적 상처와 아픔을 내면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두려움, 억울함, 외로움, 수치심 등 부정적 감정들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혼생활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배우자의 부적응적 태도와 행동이 어린 시절 상처로부터 기인하였으며, 이것이 부부갈등의 근원적 요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어린 시절 주 양육자에게서 충족되지 못한 결핍과 욕구를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원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더불어 어린 시절 상처받는 상황에서 대처했던 반응 그대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재현하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이마고 관계치료에서 말하는 이론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었다(오제은, 2005; Brown, 2015; Hendrix, 1988; Luquet, 2013).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의 질은 평생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Vaillant, 2013). 본 연구 결과는 원가족의 미분화 특성과 투사적 동일시가 부부관계에 나타남,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때 정서적 단절이 형성됨, 원가족 부모관계 경험이 중요함을 밝히는 선행연구(김명애, 송정아, 2012; 이성희, 2007; 이종원, 옥선화, 2015; 임행정, 2015; 조지용, 박태영, 2011)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의 부부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상처를 인식하게 되자, 자신과 배우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연민이 생겼다. 그동안 배우자가 잘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나와 배우자, 가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 이상의 경험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여전히 혼재해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희망과 신뢰로 전환하면서 이혼을 철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관계회복 경험에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의 상처를 인식하고 현재 부부갈등과 연결하여 통합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경험과 부부관계 경험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과 부부관계 경험을 통합하여 통찰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의 상처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생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됨, 사과와 용서를 통한 정서적 연결감이 회복됨, 감사와 긍정적 자원들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아울러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행복감과 친밀감이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회복은 원가족과의 화해와 회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상담을 통한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차경선, 2013), 정서적 공감을 통한 배우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남수경, 2019), 이마고 관계치료를 통한 미해결 과제 치유(신영호, 2011; 심수명, 2008, 오제은, 2005) 관련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다른 한 가지는,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과 적용으로 분석된다. 참여자들은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패턴을 점검하고, 이마고 대화법(반영, 인정, 공감)을 새롭게 배우고 실제 삶에 적용하게 되면서 부부관계에서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상적 대화에서 벗어나 좀 더 깊은 수준의 대화가 가능해짐, 부부간 수용의 폭이 넓어짐, 부정적 표현의 감소와 긍정적 표현의 증가,

예전보다 관계가 편안해지고 향상됨, 행복감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부부간 의식적 공감대화와 올바른 소통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준다. 따라서 이혼위기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통법을 새롭게 배워 부부관계 속에 적용하며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도울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관계회복 경험의 가장 큰 의미와 본질은 '관계의 중요성과 연결감'인 것으로 분석된다. Hendrix(1988)는 부부가 나-너의 관계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 가운데 연결되어 있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재 부부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부부갈등은 원가족과의 정서체계와 미해결 과제가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고 관계에 대한 재인식이 가능해지면서 배우자와 단절되어 있던 정서적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의식적 공감대화를 통하여 신뢰감을 회복하며 부부관계의 재이미지화가 가능해졌다. 이혼을 철회하고 관계회복을 결정한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적극적으로 갈등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변화를 요청하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끊어진 연결을 현재 부부관계 속에서 다시 채울 수 있을 때, 상처치유와 관계회복이 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부부갈등 해결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이마고 관계치료를 적용한 개입이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네째, 참여자들의 부부갈등 원인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 있는 주제는 젠더폭력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폭력은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윤리에 머물러 있는 잘못된 성

인지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가족의 가부장적 특성은 현대에 와서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성차별적 의식은 여전히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참여자들의 원가족 모습과 부부 갈등 경험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났다(유교적 가족윤리와 가부장적인 태도, 가족 간 위계질서, 아내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된 가사와 육아 노동, 가정 폭력 및 성폭력 등). 가족관계 안에 의식깊이 뿌리 박혀 내면화된 성차별, 가부장적 사고와 행동방식, 권력과 힘의 차이로 인한 젠더폭력, 성역할의 분리 현상 등은 가족갈등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악화, 가족해체를 가져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강남식, 2010; 권용혁, 2013; 박주현, 정미현, 2019). 친밀함에 기초하여 정서적 소통이 가능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치관과 태도에 기반한 상호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손승영, 2012). 따라서 성인지 관점을 적용한 가족정책의 적극적 수립이 요구된다. 아울러 상담현장에서도 이들을 돕는 상담자와 이들이 속해있는 사회 공동체는,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부부들의 젠더폭력으로 인한 갈등상황에 도전적 질문을 던지며, 젠더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적인 가족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력과 돌봄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위기를 중재하는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세와 역할은, ‘알지 못함의 겸손한 자세’, ‘초공감적 이해’, ‘인내하며 함께 버텨주기’임을 알 수 있었다.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선지식이나 선부른 조언은 이혼상담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쉽다. 이혼위기에 놓여있는 부부들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옳은지에 대해 극도의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비온(Bion)이 주장한 ‘알지 못함의 자세’(Casement, 2003)를 겸비한 겸손한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인식을 괄호 안에 묶어 놓은 채 다른 사람의 방식으로 들어가 함께 생각하고 느끼는 초공감

(超共感, Augsburger, 2012)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혼위기에 놓인 부부들은 자신의 문제를 함께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이혼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과의 관계망이 축소되거나 친밀함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혼 상담자는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지지하고 격려해주면서 이들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내하며 버텨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화된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들에게 이마고 관계치료를 적용한 부부상담을 통하여 관계회복이 가능했다.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이마고 관계치료를 적용한 관계회복의 본질과 의미를 밝힌 최초의 현상학 연구이다. 셋째, 원가족 관계경험과 부부관계 경험의 연결을 통하여 치유와 성장을 도와야 하는 필요성과 올바른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규명하였다. 넷째, 이혼상담 현장에서 부부와 가족을 돕기 위한 상담자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이혼위기를 다루는 상담자의 자세와 역할, 젠더폭력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과 대안, 부부회복과 치유를 위한 사회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상 ‘자녀 양육기’에 속해 있는 참여자들의 연구이므로, 성인 자녀 독립지원 및 삶의 방향 재정립을 발달과제로 둔 중년이나 황혼기 이혼위기 부부들의 경험과는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이마고 관계치료를 적용한 연구이지만 이혼갈등을 중재하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회복에 도움이 될만한 기법들만 활용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부부간 좀 더 깊이 있는 정서적 연결감을 가진 파트너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마고 관계치료를 적용한 구체적인 치유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이혼을 철회한 부부들의 후속관리가 중요하다. 재결합 이후에도 갈등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적 돌봄이 요구되며, 부부갈등의 근본적 이유인 어린 시절 상처치유를 위하여 대상관계적 모델을 활용한 추수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넷째, 관계회복 경험 사례뿐 아니라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이혼을 결정하게 된 부부사례 연구, 이 둘의 비교연구, 이혼위기 후 관계회복을 경험한 부부대상 추수상담과 관련된 후속연구, 이혼 상담자 관점에서의 경험 연구, 건강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돌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강남식 (2010). **인권과 젠더이슈: 양성평등과 인권**. 서울: 한국양성평등진흥원.
- 강혜숙, 김영희 (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16(1), 135-156.
- 강희숙, 양정옥 (2012).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갈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20(2), 183-199.
- 권용혁 (2013). **한국가족 철학으로 바라보다**. 서울: 이학사.
- 권인숙 (2016). **부부갈등해소를 위한 의사소통 증진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양순, 박정윤, 전영주 (2015). **이혼위기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 김명애, 송정아 (2012). 상담을 경험한 아내의 대상관계에 근거한 부부갈등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13(6), 2681-2696.
- 김민녀 (2018). **부부갈등 경험과 이혼결정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성신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9). **여성의 이혼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김장희 (2015). 협의이혼 의무상담 제도의 효과. **교육치료연구**, 7(1), 17-33.
- 김혜숙, 이희배, 유계숙 (2008). **이혼상담과 이혼법**. 서울: 학지사.
- 김효숙 (2014). **기독교인 중년여성의 부부갈등 요인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수경 (2019). 신혼기 부부의 이혼전 상담에서 주체의 인정과 변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연세상담교청연구**, 11, 9-26.
- 남인순 (2018). **부부갈등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연구: 심리특성과 자녀양육태도 및 배우자의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진숙 (2013). **기혼자들의 결혼유지와 이혼결정 분석과정**.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남숙 (2001).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윤 (2022). 이혼위기 부부대상 연구동향 (2006-2021).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13(2), 1621-1634.
- 박성주 (2008).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혜 (2015).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25, 36-80.
- 박주현, 정미현 (2019). **가족과 젠더**. 서울: 창지사 (원전은 2013년 출판)
- 손승영 (2012). **한국가족과 젠더**. 서울: 집문당.

- 송성자 (2006). **이혼상담의 실제와 기법**.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교육자료.
- 송정아 (2005). 이마고 부부치료 이론의 타당성 연구- 배우자 선택과 이마고 형성이론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1), 261-274.
- 신영호 (2011). **이마고 부부치료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수명 (2008). **한국적 이마고 부부치료**. 서울: 도서출판 다세움.
- 심영민 (2014). **통합적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노먼 라이트를 중심으로**. 장로회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세정 (2014). **협의이혼 상담을 통한 이혼위기 부부의 갈등변화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제은 (2005). 커플관계 치료에 있어서 어린시절 상처치료를 중요성: 이마고 커플관계와 내면아이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1055-1070.
- 이민영 (2021). 이마고 관계치료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부부가족상담연구**, 2(1), 29-40.
- 이성희 (2007). **이혼 결심자의 원가족 경험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빈 (2018). **질적연구 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종원, 옥선화 (2015). 결혼초기 남녀의 부부갈등 관련 변인연구: Bowen과 Satir 모델의 이론적 연계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 3-25.
- 임행정 (2015). 이혼청구자 부부의 원가족 경험과 이혼장애요인. **아동가족치료연구**, 13, 87-105.
- 전영주, 김수연, 원성희 (2009).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서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정정화, 윤가현 (2018).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복지상담연구**, 7(2), 25-48.
- 조지용, 박태영 (2011). 갈등으로 인한 이혼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19(2), 41-62.
- 차경선 (2013). **이혼위기 부부의 관계회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장연집, 박은숙, 김미영, 정승은 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85년에 출판).
- Augsburger, D. W. (2012). 문화를 초월하는 목회상담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 (임현만 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원전은 2005년에 출판).
- Brown, R.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 [*Imago relationship therapy: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practice*].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9년 출판)
- Casement, J. P. (2003). 환자에게서 배우기 [*Learning from the Patient*]. (김석도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Hendrix, H. (1988). *Getting the Love you want: A guide for couple*. New York: Atria Books.
- Hendrix, H., & Hunt, H. L. (2022). 세계 최고의 커플테라피 이마고- 당신이 원하는 사랑 만들기 [*Getting the Love Your Want: A Guide for Couples*]. (오제은, 김혜진 공역). 서울: 학지사.
- Hendrix, H., & Hunt, H. L., Luquet, W., & Carlson, J. (2015). Using the Imago dialogue to deepen couples therapy.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71(3), 253-272.

- Hosseini, H. M., & Movahedi, A. (2016). Imago Therapy: A Strategy to Improve Couples Lovemaking.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7(4S1)**, 242.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 Long, L. L., & Young, E. M. (2009). 부부상담과 치료[*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이정연 역). 서울: 학지사.
- Luquet, W., & Hannah, M. T. (2013). 부부관계 패러다임-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임상사례 연구집[*Healing in the Relationship Paradigm: The imago relationship therapy casebook*]. (오제은, 이현숙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8년 출판)
- Muro, L., & Holliman, R., & Luquet, W. (2016). Imago Relationship Therapy and Accurate Empathy Development.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15(3)**, 232-246.
- Schmidt, C. D., & Gelhert, N. C. (2017). Couples Therapy and Empathy: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f Imago Relationship Therapy on Partner Empathy Levels. *The family Journal*, **25(1)**, 23-30.
- Thompson, A. D., & Collins, G. (2002). 이혼상담 [*Counseling and Divorce*]. (남상인 역). 서울: 두란노.
- Vaillant, G. E. (2013). 행복의 비밀[*Triumphs of Experience*]. (최원석 역). 경기: 21세기북스.

원 고 접 수 일 : 2023년 04월 01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3년 05월 08일

게 재 확 정 일 : 2023년 05월 20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Recovery Process of Couples Applying for Consensual Divorce through Imago Relationship Therapy

Mi Hye Lee

Bupyeong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and essence of relationship recovery experience in pre-divorce counseling using Imago relationship therapy. For this study, couple counseling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5 couples in their 30s and 40s who applied for divorce by agreement.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146 semantic units were extracted, and 22 sub-components and 5 components were derived. The final components and experience of relationship recovery were 'Looking at the childhood from a New Perspective', 'The past re-examined in the Present', 'Reimage of Married Couple Relationship', 'Practice of empathetic communication', 'New Commitment for Healing and Growt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uples who are on the verge of divorce need to help them not end their relationships hastily.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 useful basic material to help couples in the field of divorce counseling.

Key words: Imago relationship therapy, consensual divorce, married couples, pre-divorce counseling, relationship recovery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 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의 매개효과*

강 유 리**

오 제 은

김 혜 진

박 은 아***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과 상담사 발달수준 관계에서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에 있는 부부가족상담사 233명을 대상으로 원가족 경험, 상담사 발달수준, 수퍼비전 작업동맹경험, 상담사 자기성찰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216명의 결과를 SPSS 25와 Amos 21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으로 가는 경로와 자기성찰로 가는 경로에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성찰로 가는 경로와 상담사 발달수준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이 자기성찰로 가는 경로에서는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사 발달수준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자기성찰이 상담사 발달로 가는 경로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원가족 경험, 상담사 발달수준,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자기성찰

* 강유리(2023년)의 데이브레이크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강유리,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총괄국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은아,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커플가족치료대학원 상담학 교수,
321 South State College Blvd, Anaheim CA 92806, USA,
E-mail: eunapark@daybreak.edu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거의 지난 3년 동안을 고강도의 봉쇄 정책과 거리 두기를 실시하게 되면서, 언택트(Untact, 사람과 사람이 서로 컨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감) 상황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코로나 블루 현상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됨으로 인해 정서적인 무기력을 겪게 되었다(임유하, 2021).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상담 분야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상담전문가의 자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동훈 외, 2021).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들로 드러나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이혼,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 문제, 중독 등(유상희, 2019)인데, 이러한 주제들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의 어려움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써 상담사들로 하여금 가족체계적인 관점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을 심도 깊게 분석하여, 상담을 진행해야만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담사 발달은 '전문적인 상담사로서 성장하고 더 성숙해짐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과 기술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이며, 한 사람의 상담사가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최한나, 2005). 이러한 상담사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발달과정을 거치며 성장하는데 상담사로서 인간적인 자질을 키우는 측면과 동시에 상담에 필요한 기술들을 훈련하여 습득하는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심홍섭, 1998).

본 연구는 부부가족상담사의 발달에 대한 연구로써 먼저 부부가족상담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부가족상담사 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가족상담은 일반상담과는 달리 최소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다루면서, 상담사가 직접 가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 개입하기도

한다. 부부가족상담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가족의 역동이 변화될 때에만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되어 진다는 통찰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1950년대 초부터 가족상담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송성자, 2003). 따라서, 부부가족상담에서는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개인적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가족 전체의 문제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바라보는, 가족체계적 관점을 핵심으로 한다. 즉, 문제의 원인을 가족체계 내에서의 역기능적인 가족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부부가족상담이 다른 상담과 접근 방법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최미용, 이영주, 김영은, 김현주, 2022). 구조적 가족치료(Structural Family Therapy)의 창시자인 Salvador Minuchin(1981)은 '상담사 자신이 치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했다. 또한 가족치료를 가리켜 '자신을 관찰하는 치료의 도구(Self-Observing Instrument of Change)'라고 말했다. 체계론적 가족치료(Family Systems Therapy) 모델을 만든 Bowen(1950)은 가족치료사 자신의 자아분화 수준이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만약 가족상담사 자신이 자신의 원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담사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내담자의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족상담사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치료의 도구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상담사의 자기인식은 효과적인 상담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가족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부부가족상담사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수련과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은 단순한 양적, 시간적 성장을 능가하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며(Skovholt & Jennings,

2004), 상담사 발달에 관한 이해는 상담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금명자, 정상화, 2021). 상담사는 자기 자신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럴 때 상담사는 자신이 상담 현장에서 직면하게 된 문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슈와 관련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와 연관된 것인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자각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사는 상담사로서의 발달이 상담사 자신의 개인 분석 작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상호작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족상담사는 한 개인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가족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내담자 가족들을 바라보도록 훈련받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부가족상담사는 먼저 자기 자신의 원가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족체계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 역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다(Wetchler & Hecker, 2014). 이는 부부가족치료의 특성상 부부가족상담사는 그 내담자 가족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 합류(Joining)하여, 가족체계의 변화를 꾀하기도 하는 등,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서 활용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전은숙, 김혜진, 2022). 부부가족상담사는 내담자 가족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가족체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상담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족상담사로서 자신에 대한 충분한 자각(Huber, 1994)과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황선민, 2013). 또한 부부가족상담사는 상담사 자신이 성공적인 상담과정의 중요한 도구이자 중재자(Sexton, 2007)로서 내담자

의 상황을 변화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Sprenkle & Blow, 2007). 따라서 부부가족상담사는 내담자 가족의 치료적 변화를 위해 자신의 인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Whitaker & Bumberry, 1988). 즉, 상담사 자신의 경험과 신념이 상담 과정에 투영이 되고 또 자신의 관계 방식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부부가족상담사의 가치관과 상담사 발달은 그냥 정제되어 있어선 안되는 것이며 반드시 지속적인 수련과 임상경험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사의 개인적인 삶과 상담사로서의 전문적인 삶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담사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Rennestad & Skovholt, 2003). 부부가족치료를 수련하는 역사를 살펴보면 전문가 수련과정을 통해, 수련생들이 전문적인 기술 습득만이 아니라 자아를 통합시킴으로써 보다 탄력적이고 유능한 치료사가 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kovholt, Grier, & Hanson, 2001). 이런 관점에서, 부부가족상담사는 전문성 습득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아의 통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또한 상담사 자신을 자신의 원가족 체계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족체계적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가족상담사는 상담사 자신의 경험이 상담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하여야 하며 상담사 발달에 있어서, 상담사 자신의 원가족 경험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태 속에서부터 엄마와 첫 관계를 경험하게 되며 출생 후에는 주 양육자를 중심으로 원가족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권혜영, 2018). 그리고 원가족 체계 속에서의 성장 과정과 가족관계 경험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원초적 경험이 된다. 이 경험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근원적 토대가 되며 그 영향은 어린 시절은 물

론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되고 신념과 삶의 방식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가족상담사에게 있어서, 자신이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원가족체계 속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전 생애 발달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조도현, 1998). 따라서 원가족체계 속에서 학습된 관계 맺음의 패턴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다시 재현될 수가 있고 특히 상담과정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상담사 발달과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원가족 경험이 부부가족상담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국내에서 상담사 발달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상담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부부가족상담사의 전문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상담사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연구되어졌다. 그중에서도 원가족 경험과 상담사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이 개인뿐만 아니라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상담사의 발달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은 상담사의 발달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영, 2018). 또한 원가족 경험과 상담사 발달, 역전이 관리능력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고 상담사 발달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리, 2015). 그리고 긍정적인 원가족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는 상담의 성과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사 자신이 그러한 긍정적 경험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담사의 가족들 간에 자유로운 감정표현이 가능하며 가족 분위기가 개방적이고 부모님의 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사회나 조직에 대한 상담사의 이해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백미현, 유현실, 2012).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원가족과 정서적인 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며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행동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온순, 1996). 그러므로 원가족에서의 어려움은 상담사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어 내담자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상담사로서의 전문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상담사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자각하여 성찰해 낸다면 상담사 자신과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고 상담사로서 자신이 더 나은 전문가족 발달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권혜영, 2018). 다시 말하면, 비록 상담사가 부정적인 원가족 경험을 갖고 있더라도 만약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도리어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로 하여금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힘이 되어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김수만, 2009). 따라서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적용해 볼 때, 상담사 스스로가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상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가족상담사들은 자신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가족상담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Bowen(1978)의 가족치료사 전문가 훈련 방법을 참고하여 특히 자신의 원가족 경험에서 “아직 미처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과제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오제은과 김혜진(2018)은 공동으로 내면부모자녀체계 치료(Internal Parent Child Systems Therapy: IPCST)모형을 개발하였다. IPCST에서는 부부가족상담사들로 하여금 수련과정에서 자신의 원가족문

제를 자기반영하고 이해하며 분석함으로써 자신을 내담자를 상담할 때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도록 하며 이를 '상담사로서의 자기(Self-of-the-Therapist: SOT)' 활용이라고 부른다. SOT 활용은 부부가족상담사 수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개념이다. 부부가족상담사가 자신의 감정, 경험, 또는 성격을 활용하여 상담 치료과정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서 이와 같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부가족상담사 스스로가 자신의 원가족체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족상담사가 어떤 수련과정을 통해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탐색하고 부부가족상담사로서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주요 변인으로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제는과 김혜진(2018)의 IPCST 모형에 따르면, 상담사가 내면부모자녀체계치료 전문가 훈련을 거치게 되면 '수퍼바이저-치료사-내담자-내담자의 가족' 간의 관계 패턴과 영향력을 분명히 자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IPCST는 '관계치료사로서의 자기(Self-in-Relation)'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특별히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담사 자신이 상담치료 과정에 어떠한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살피게 될 뿐만 아니라 '치료적 도구로서의 자신'을 항상 반영(Self-Reflective)하도록 한다. IPCST 상담전문가 수련과 수퍼비전 방식을 살펴보면, 부부가족상담사가 상담사로서의 자기 자신(Self-of-the-Therapist)의 발달에 집중하고 동형적(Isomorphic)인 수퍼비전을 통해 IPCST 전문가를 훈련한다는 특징이 있다. IPCST 모델에서 강조하는 동형성(Isomorphism) 이론에 따르면 상담사와 수퍼바이저 간에 긍정적인 팀웍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상담사가 수퍼바이저가 되어 수퍼바이저와 작업동맹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험은 꼭 그만큼의 치료적 관계를 내담자와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

는 역할을 한다. 즉, 상담사는 체계적이고 관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수퍼바이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받은 영향이 내담자에게 흘러가게 되며 또 그 내담자는 자신의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서 상호 유사적인 관계 패턴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담사 자신이 치료적 도구로서 자신을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동형성 이론에 입각하여 '얼마만큼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서 자기치유와 성장을 체계적이고 관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으며 준비 되어있는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Cook과 Kenny(2005)는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제시하면서 수퍼비전에 있어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양 수준(Dyad-Level)의 개인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모형을 고려해 볼 때 수퍼비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퍼바이저 개인 변인뿐만 아니라,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의 상호작용 변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호작용 변인이 바로 수퍼비전 작업동맹이다.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의 좋은 관계와 신뢰의 관계를 '수퍼비전 작업동맹(Supervisory Working-Alliance)'이라 정의한다(Bordin, 1983). 즉,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가 정서적 유대를 갖고 동의된 목표와 과제를 실현할 때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의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문화선, 이영애, 2022). 따라서 수퍼바이저와의 긍정적인 작업 동맹은 부부가족상담사가 자신의 원가족에서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그로 인한 문제가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상담사로서의 발달을 이끌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담사 발달을 위해서는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뿐만 아니라 부부가족상담사가 상담과정에서 내

답자(개인, 부부, 가족)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자신의 원가족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성찰과 자기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가족상담사는 원가족 경험에 대한 상담사 자신의 자기분석과 자기반영을 통해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다(이상리, 최윤미, 신호정 2016)고 하였다. 그리고 상담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자각하게 될 때 상담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상담사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고 한다. 그러므로 부부가족상담사가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원가족 경험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일컫는 '자기성찰', '자기반영', '자신을 돌아봄' 등은 자신과 타인의 돌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개인적인 자기 돌봄과 관련된 변인이라 할 수 있다(신세미, 201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부부가족상담사가 자기성찰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면 상담사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기성찰은 '자신을 돌아봄', '자기반영' 등과 동일어로 사용되는데 타인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성찰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상담사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인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Skovholt와 Ronnestad(1992)는 상담사가 상위 단계로 발달해 나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기성찰이라고 하였고, Skovholt(2003)는 상담사의 축적된 경험이 발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고려해 보고 그 과정을 반복해서 재음미하는 전문적 자기성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상담사 자기성찰은 상담사가 자신의 역동이나 자신의 행동, 정서, 사고들을 점검하고, 상담사 개인의 삶에서의 자기 모습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

껴지는 감정과 생각,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살피는 순환적인 과정을 말한다(황주연, 정남운, 2010). 상담장면에서는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활동과정과 결과에 대해 숙고하는 자기성찰이 필수적이다(윤정훈, 김명희, 천성문, 2021).

원가족 경험을 통해 학습된 행동 및 관계 패턴은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도 반복될 수 있으며 원가족 경험이 좋지 않을수록 상담사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Corey & Corey, 2004). 하지만 만약에 상담사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자각하여 성찰해낼 수 있다면, 상담사 자신과 내담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고, 자신이 더 나은 상담전문가적 발달을 이루게 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권경인, 2004). 결국 유능한 상담사로 발달되기 위해서는 원가족 경험이 현재 상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담사의 전문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상담사가 자기 자신을 상담에서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내면을 탐색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박정민, 2005).

이와 관련하여 오제은과 김혜진(2018)은 상담사가 전문적인 자기성찰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영향에 대해 알아차리기가 어려우므로 자기성찰 훈련은 슈퍼비전을 통해 이루어져 한다고 보았다. 상담사가 슈퍼바이저가 되어 슈퍼바이저와 내담자의 치료를 위한 작업동맹을 통해 상담사로서의 자기(Self-of-the-Therapist)의 발달을 경험하고 본인이 경험한 치료적 관계를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족 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부부가족상담사의 자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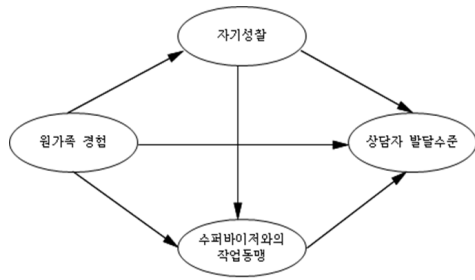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이해하고 그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부부가족상담사의 개인적인 성장 경험을 촉진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부부가족상담사 자신이 최상의 치료적 도구로서 준비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상담사 발달을 설명하는 많은 모형이 있지만 부부가족상담사 발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가족상담의 전문성과 부부가족상담사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과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그리고 자기성찰과 상담사 발달수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및 자기성찰은 상담사의 원가족 경험과 상담사 발달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국내에 있는 부부가족상담사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중 설문에 성실하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2	10.8
	여자	194	89.8
연령	20대	1	0.5
	30대	8	3.7
	40대	44	20.4
	50대	106	49.1
	60대	48	22.2
	70대	9	4.2
최종 학력	석사과정 이상	71	32.9
	박사과정 이상	145	67.1
최종 학력 전공	심리학 관련	26	12.0
	상담학 관련	137	63.4
	교육학 관련	19	8.8
	사회복지학 관련	7	3.2
	아동학 관련	5	2.3
	기타	22	10.2
	합계	213	100

게 답변하지 않은 17명을 제외한 총 21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원가족 경험 척도

원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의 자율성(autonomy)과 친밀감(intimacy)이라는 두 개념을 바탕으로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이 개발한 원가족 척도(the Family-of-Origin Scale: FOS)를 최현미(1997)가 한국가족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타당화한 원가족 경험 척도(the Family-of-Origin Scale-55: FOS-5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개 하위요인, 총 55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하위문항은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과 갈등해소, 분리와 상실의 수용,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 가족의 화목, 공동체 의식, 확대 가족 내의 독

립성, 가족의 공평성이다. 이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원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진술하는 문항은 역채점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보은, 2023). 최현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도 .95로 나타났다.

수퍼비전 작업동맹 경험 척도

수퍼비전 작업동맹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ordin(1983)의 작업동맹 경험 모형을 바탕으로 Horvath와 Greenberg(1989)가 개발한 상담사-내담자 관계에서의 작업동맹 경험 척도를, Bahrck(1990)가 수퍼비전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수퍼비전 작업동맹 경험 척도로 구성하였고 이를 손은정 등(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 하위요인,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항상 그렇다)이다. 3개 하위요인은 수퍼비전 목표에 대한 동의, 과제에 대한 동의, 정서적 유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동맹 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안종화(2014)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상담사 자기성찰 척도

상담사의 자기성찰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담사 자기성찰 척도(정희선, 김지현, 201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 하위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하위 문항은 상담사-내담자 상호작용, 상담사 자기이해, 상담사 전문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성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희선, 김지현(2017)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도 .87로 나타났다.

상담사 발달수준 척도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심홍섭(1998)이 제작한 상담사발달수준(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요인,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1=매우 일치하지 않는다(4=상당히 일치한다)이다. 하위문항은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적, 윤리적 태도이고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상담사 발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심홍섭(1998)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 수퍼비전 작업동맹, 자기성찰, 상담사 발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와 AMO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 측정치의 기술통계치를 추정하고 다변량 정규분포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척도 측정치의 신뢰도 추정치인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생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를 산출하고,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Adn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분석(Two Step Analysis)에 의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합성신뢰도, 평균분산 추출을 산출하였다. 여섯째, 2단계에서 구조회귀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유의성 여부와 최대우도법 절차를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일곱

제,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추정모형을 설정한 후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이를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검토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측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하므로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할 때 관측변수들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에 위배된다면 모수치가 왜곡되어 추정된다. 다변량 정규분포성은 관측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을 확인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토할 때 왜도는 절대값 3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고 보며 첨도는 7 또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고 본다(Kline, 2005).

본 연구에서 다변량 정규분포성은 관측변수들의 왜도(-1.05~.06)와 첨도(-.55~2.45)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는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각 관측변수들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요 변수 간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산출한 결과는 원가족 경험,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자기성찰 및 상담사 발달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원가족 경험은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r=.20, p<.01$), 자기성찰($r=.24, p<.01$), 상담사 발달($r=.25, p<.01$)과

표 2. 관측변수의 기술통계 및 다변량 정규성 분석결과 (N = 216)

잠재 변수	관측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원 가족 경험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3.28	.95	-.33	-.69
	갈등해소	3.19	.94	-.36	-.58
	분리와 상실의 수용	3.47	.96	-.44	-.62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	3.68	.97	-.42	-.73
	가족의 화목	3.69	.91	-.47	-.76
	공동체 의식	3.29	.76	-.21	-.50
	확대가족 내의 독립성	3.05	.61	-.06	-.55
수퍼 바이저와 의 작업 동맹 경험	가족의 공평성	3.33	.97	-.47	-.60
	목적에 대한 동의	5.36	.75	-.94	1.19
	과제에 대한 동의	5.76	.78	-.81	.73
	정서적 유대	5.47	.86	-1.05	2.45
자기 성찰	상담사-내담자 상호작용	4.23	.54	-.31	-.29
	상담사 자기이해	4.35	.53	-.66	.89
	상담사 전문성	4.4	.55	-1.02	1.33
상담사 발달	상담대화기술	3.5	.41	-.46	-.85
	사례이해	3.47	.41	-.37	-.87
	알아차리기	3.5	.41	-.44	-.76
	상담계획	3.31	.47	-.21	-.83
	인간적윤리적태도	3.54	.37	-.67	-.48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원가족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자기성찰 및 상담사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은 자기성찰($r=.35, p<.01$), 상담사 발달($r=.32,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성찰, 상담사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성찰은 상담사 발달($r=.7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자기성찰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사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수와의 상관 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21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①	-																						
②	.959**	-																					
③	.906**	.861**	-																				
④	.862**	.810**	.751**	-																			
⑤	.864**	.813**	.737**	.760**	-																		
⑥	.845**	.725**	.736**	.652**	.745**	-																	
⑦	.849**	.779**	.725**	.717**	.641**	.712**	-																
⑧	.300**	.246**	.272**	.209**	.288**	.254**	.145*	-															
⑨	.788**	.698**	.659**	.580**	.658**	.738**	.627**	.198**	-														
⑩	.199**	.190**	.127	.199**	.223**	.150*	.224**	.088	.100	-													
⑪	.183**	.173*	.118	.188**	.219**	.133	.198**	.089	.090	.957**	-												
⑫	.155*	.144*	.091	.154*	.189**	.118	.197**	.054	.068	.943**	.891**	-											
⑬	.221**	.216**	.148*	.217**	.221**	.170*	.235**	.105	.121	.928**	.825**	.785**	-										
⑭	.242**	.241**	.212**	.230**	.193**	.146*	.254**	.138*	.138*	.349**	.315**	.352**	.321**	-									
⑮	.202**	.212**	.194**	.187**	.138*	.119	.182**	.130	.122	.287**	.263**	.283**	.265**	.900**	-								
⑯	.220**	.212**	.157*	.213**	.191**	.149*	.272**	.087	.125	.285**	.254**	.280**	.270**	.832**	.587**	-							
⑰	.199**	.191**	.194**	.194**	.177**	.104	.207**	.140*	.103	.339**	.301**	.359**	.299**	.821**	.637**	.555**	-						
⑱	.253**	.254**	.213**	.277**	.203**	.149*	.264**	.132	.122	.316**	.275**	.298**	.318**	.780**	.801**	.565**	.588**	-					
⑲	.240**	.229**	.199**	.243**	.218**	.156*	.246**	.155*	.132	.274**	.238**	.257**	.278**	.716**	.730**	.543**	.516**	.936**	-				
⑳	.194**	.190**	.163*	.252**	.159*	.096	.209**	.095	.074	.316**	.272**	.304**	.316**	.745**	.769**	.540**	.554**	.947**	.854**	-			
㉑	.194**	.216**	.164*	.229**	.148*	.076	.204**	.048	.066	.238**	.211**	.229**	.232**	.752**	.777**	.540**	.563**	.903**	.808**	.835**	-		
㉒	.270**	.280**	.232**	.281**	.177**	.151*	.289**	.148*	.143*	.278**	.252**	.263**	.271**	.704**	.734**	.486**	.543**	.922**	.832**	.833**	.779**	-	
㉓	.265**	.248**	.218**	.265**	.243**	.215**	.257**	.156*	.141*	.357**	.296**	.325**	.382**	.675**	.671**	.500**	.529**	.886**	.808**	.825**	.755**	.739**	-

①원가족 경험 ②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③갈등해소 ④분리와 상설의 수용 ⑤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 ⑥가족의 화목 ⑦공동체 의식 ⑧확대가족 내의 독립성 ⑨가족의 공평성 ⑩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⑪목적에 대한 동의 ⑫과제에 대한 동의 ⑬정서적 유대 ⑭자기성찰 ⑮상담사-내담자 상호작용 ⑯상담사 자기이해 ⑰상담사 전문성 ⑱상담사 발달 ⑲상담대화기술 ⑳사례이해 ㉑알아차리기 ㉒상담계획 ㉓인간적 윤리적 태도. ** $p<.01$, * $p<.05$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결과

연구모형의 모수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고, 구조화귀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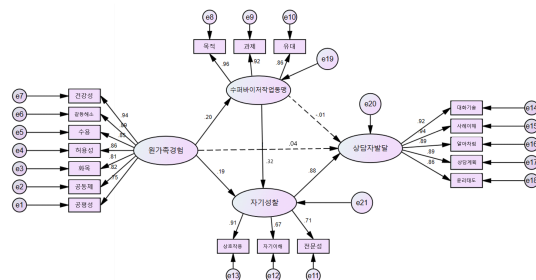


그림 2. 초기 구조화귀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표 4. 초기 구조화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결과

경로	B	β	S.E.	C.R.
원가족 경험 →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0.16	0.20	0.06	2.80**
원가족 경험 → 자기성찰	0.10	0.19	0.04	2.60**
원가족 경험 → 상담사 발달	0.02	0.04	0.02	0.80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 자기성찰	0.21	0.32	0.05	4.42***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 상담사 발달	0.00	-0.01	0.03	-0.16
자기성찰 → 상담사 발달	0.68	0.88	0.05	13.52***

*** $p<.001$, ** $p<.01$

표 4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를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한 결과,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 발달로 가는 경로,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이 상담사 발달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델은 가능하면 간명하면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델의 간명화(model trimming)를 통해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델의 부합도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초기 연구 모델과 비교하여 판단 한 후에 최종모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 연구모델에서 유의하지 않은 직접경로를 삭제한 수정모델의 부합도 지수를 초기 연구모델과 비교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결과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고,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beta=.20$, $p<.01$), 자기성찰($\beta=.20$,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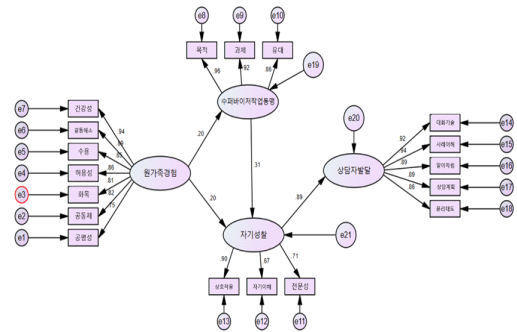


그림 3.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수준이 높을수록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이 자기성찰($\beta=.32$, $p<.001$)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족상담사의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기성찰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자기성찰이 상담사 발달($\beta=.89$, $p<.001$)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족상담사의 자기성찰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사 발달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구조회귀모형의 직접, 간접효과 검증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에서 제시된 변인들 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추정한 후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으로 가는 경로($\beta=.20$, $p<.01$), 자기성찰로 가는 경로($\beta=.20$, $p<.01$)에서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자기성찰로 가는 경로($\beta=.06$, $p<.01$), 상담사 발달로 가는 경로($\beta=.23$, $p<.01$)에서 간접효과

표 5.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결과

경로	B	β	S.E.	C.R.
원가족 경험 →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16	.20	.06	2.8**
원가족 경험 → 자기성찰	.11	.20	.04	2.86**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 자기성찰	.21	.31	.05	4.48***
자기성찰 → 상담사 발달	.69	.89	.05	14.98*

** $p<.001$, *** $p<.001$

표 6. 구조회귀모형의 직·간접효과 분석

경로		표준화계수(β)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원가족 경험	→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20**	-	.20
원가족 경험	→ 자기성찰	.20**	.06**	.26
원가족 경험	→ 상담사 발달		.23**	.23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 자기성찰	.32***	-	.32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 상담사 발달	-	.28**	.28
자기성찰	→ 상담사 발달	.89***		.89

** $p<.01$, *** $p<.001$

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부가족상담사의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이 자기성찰로 가는 경로($\beta=.32$ $p<.001$)에서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상담사 발달로 가는 경로($\beta=.28$ $p<.01$)에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가족상담사의 자기성찰이 상담사 발달로 가는 경로($\beta=.89$ $p<.001$)에서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고자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AMOS에서 Phantom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10,000개, 신뢰구간은 편향 조정 방법(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신뢰구간(95%)에 0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자기성찰을 통해 상담사발달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7$, $p<.01$). 이는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과 상담사 발달을 자기성찰이 매개하

표 7.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p	95% CI	
					LO	HI
원가족 경험	→ 자기성찰 → 상담사 발달	.07	.03	.004	.02	.13
원가족 경험	→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 자기성찰 → 상담사 발달	.02	.01	.004	.01	.05

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성찰 수준이 높아 상담사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을 통해 상담사 발달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2$, $p<.01$). 이는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과 상담사 발달을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이 이중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이 더 잘 이루어짐으로써 자기성찰 수준이 높아져 상담사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부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원가족 경험,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 상담사 발달 간의 경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은 상담사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혜영, 2018; 이상리, 2015)

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직접적으로 상담사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을 통해 상담사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 발달에 미친 영향에서 적절한 매개변인을 발견하였음을 시사하며,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은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사의 원가족 경험과 주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정희선, 김지현, 2013)와 같은 결과다. 따라서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인 부부가족상담사는 수퍼바이저와의 새로운 관계에 관심을 갖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작업동맹을 맺는 반면에, 원가족 경험이 부정적인 부부가족상담사는 수퍼바이저와 협력하기가 쉽지 않고, 수퍼비전을 받을 때 회피반응을 보이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은 자기성찰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자기성찰 수준 역시 높으며, 상담사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박다예, 2016)와 같은 결과다. 즉, 부부가족상담사가 원가족 내에서 경험한 건강성, 갈등해소, 수용성, 허용성, 공동체성, 상호작용 등이 긍정적일수록, 상담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는 자기성찰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과 상담사 발달의 관계에서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 자기성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과 상담사 발달의 관계를 자기성찰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성찰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이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상담사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에서 건강성, 수용성, 허용성, 높은 상호작용 수준은, 본인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용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이는 상담사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성찰의 관계에서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이 이중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저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작업동맹이 맺어졌을 때 자기개방 수치가 높아진다(안종화, 2014)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상담사 발달수준과 상담성과의 연관성에서 수퍼바이저와의 관계성과 상담사 자기성찰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신세미, 2018) 결과에서, 상담사 발달수준과 상담사 자기성찰 및 상담성과는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을 통해 상담사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을 통해 자기성찰 수준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상담사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족상담사의 가치관과 발달 수준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수련과 상담의 실재를 통해 변화하고, 상담사의 개인적인 삶과 상담전문가로서의 삶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담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Rennestad & Skovholt, 2003)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원가족 경험이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을 통해 상담사 발달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가족상담사는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인수록 타인에 대한 유대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는 수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게 하여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을 통해 자기성찰을 경험하게 도와 상담사 발달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과 상담사 발달을 중재하는 방법으로, 상담사의 자기성찰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족상담사의 자기성찰은 원가족 경험과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을 매개할 뿐 아니라 부부가족상담사 발달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치료사는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체계를 이해하고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역동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훈련을 받는다(Wetchler & Hecker, 2014). 이러한 가족치료사 훈련은 '가족치료사 자신이 가족치료의 중요한 도구'라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Bowen(1978)은 '가장 중요한 상담 기술은 상담사 자신'이며, '상담사의 자아분화 수준은 내담자와 상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Minuchin(2014)은 '상담사 자신이 치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이 도구는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상담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상담사가 자신을 도구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을, '상담사로서의 자기(Self-of-the-Therapist)'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가족상담사로서의 자기(Self-of-the-Therapist)' 활용이론을 증명하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부부가족상담사의 자기성찰이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부부가족상담사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사발달의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부부가

족상담사들이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점으로, 수퍼바이저와 긍정적인 작업동맹을 경험하면서 꾸준히 자기성찰을 이어 나간다면 부부가족상담사로서 치유와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부가족상담사의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담사의 자기성찰 훈련이 포함된 전문수련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자기성찰은 상담사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인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Skovholt와 Ronnestad(1992)는 상담사가 상위 단계로 발달해 나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기성찰'이라고 하였고, Neufeldt(1996)은 상담사 경험을 전문적 기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기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상담사 자신이 상담치료 과정에 어떠한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치료적 도구로서의 자신'을 항상 반영(Self-Reflective)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오제는, 김혜진(2018)의 주장을 실제 부부가족상담사들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가족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자기성찰을 중요한 변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부부가족상담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상담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을 측정할 때, 수퍼바이저에 대한 대표성에는 제한점을 두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결혼과 가족치료사(LMFT: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와 같은 공인 국가자격증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부부가족상담 실시 경험 외에는 동일한 임상 수준과 경험의 기준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고른 분포와 부부가족상담 수퍼바이저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 기준을 토대로 대규모의 표집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둘째, 부부가

족상담사와 수퍼바이저와 치료적 작업동맹을 맺을 수 있는 수퍼비전 모형 개발을 제안한다. 정지에 (2018)가 실시한 국내에서의 수퍼바이저와 작업동맹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수퍼바이저 개인 특성에 치중된 수퍼비전 모형으로 편중되어 있고,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 또는 동형성을 적용하여 치료적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수퍼비전 모형은 미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수퍼비전을 통해 부부가족상담사가 치료적 관계를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치료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오제는, 김혜진(2018)이 공동 개발한 IPCST 모형에서 핵심으로 다루는 동형성(Isomorphic) 이론을 적용한 수퍼비전 모형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상담사로서의 자기(Self-of-the-Therapist)'개념을 핵심으로 적용한 미국결혼과가족치료협회(AAMFT)의 결혼과 가족치료사(LMFT: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훈련과정 등을 기본 모델로 하여 한국 사회와 한국의 부부가족상담사의 특성을 고려한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탐색과 자기성찰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모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부부가족상담사는 자기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서 이해하고, 내담자와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를 맺기 위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원가족 경험을 탐색할 수 있고, 자신이 부부가족상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성찰할 수 있는 자기 반영적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경인 (2004). 상담사 발달모형과 상담사 발달연구의 최근 경향.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38(1), 27-44.
- 권혜영 (2018). **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의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금명자, 정상화 (2021). **국내 상담자 발달 연구 동향**. **교육문화연구**, 27(2), 483-508.
- 금은순 (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은 (2023). 놀이치료자의 정서경험특성이 아동 및 부모와의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가족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가족치료연구**, 21(0), 25-42.
- 김수만 (2009). **초보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의 자기자각에 따른 상담성과의 차이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미용, 이영주, 김영은, 김현주 (2022). 가족상담사의 상담스트레스 및 대처방안과 성장에 관한 현상학 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3(2), 111-128.
- 남순현 (2001).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 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문화선, 이영애 (2022). 상담사 수퍼비전 작업동맹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놀이치료학회지**, 25(1), 39-57.
- 박다예 (2016). **상담사 발달수준과 상담성과의 관계에서 상담사 자기 돌봄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정민, 유성경 (2007). 상담자의 회기 내 자기자각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31-53.
- 백미현, 유현실 (2012). 상담경력에 따른 상담사 발달 수준과 소진의 관계: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3(6), 3191-3205.
- 송성자 (2023). 강점관점과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을 통합한 가족치료 접근법 개발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1(2), 1-27.

- 손은정, 임영선, 유성경, 강지연 (2006). 슈퍼비전 작업 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2.
- 신세미 (2018). **상담사 발달수준과 상담성과의 관계에서 상담사 자기성찰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흥섭 (1998). **상담사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중화 (2015). **수퍼바이저의 평가염려완벽주의, 비개방, 작업동맹, 슈퍼비전 만족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제은, 김혜진 (2019). **IPCST 내면‘부모-자녀’체계치료: 동형성(同型性)-상담사로서의 자기 치유와 성장**. 서울: 부부가족관계연구소 (ICFR).
- 유상희 (2019). 회복탄력성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고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2), 155-184.
- 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 상담사 교육 분석 경험 및 태도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8(2), 17-35.
- 윤정훈, 김명희, 천성문 (2021). 상담자 성찰 훈련 프로그램이 초보상담자의 어려움, 상담자 자기성찰 및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2(3), 355-381.
- 이동훈, 김예진, 황희훈, 남슬기, 정다송 (2021).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동안 한국인의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중단 두시점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7(4), 629-659.
- 이상리 (2015). **상담사 발달과 원가족 경험, 자기 자각,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리, 최윤미, 신호정 (2016). 긍정적 원가족 경험, 자기 자각,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사 발달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3(1), 105-121.
- 임유하 (2021). 빅데이터를 통해 본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슈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심리치료**, 33(2), 829-852.
- 전은숙, 김혜진 (2022). 가족치료사의 ‘상담사로서의 자기’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3(2), 17-42.
- 정남운, 황주연 (2010). 상담자 자기성찰 (Self-Reflection)에 대한 고찰. **한국상담 심리학회지: 일반**, 29(2), 241-263.
- 정지에 (2018). 상담에서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국내 연구 동향. **실천교육교육논문지**, 10(1), 63-72.
- 정희선, 김지현 (2013). 상담사 애착회피와 작업동맹 간의 관계에서 상담사 발달수준의 조절 효과. **인간이해**, 34(2), 81-94.
- 조도현 (1998). **상담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사 특징들**.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한나 (2005). 상담사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6(3), 713-727.
- 최현미 (1997). **원가족 척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선민 (2013). **가족치료수련생의 전문가 되어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주연, 정남운 (2010). 상담사 자기성찰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241-263.
- Anderson, J. C.,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Journal ArticleDatabase: APA PsycArticles*, 103(3), 411-423.
- Bordin, E. S. (1983). A working alliance-based model of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1), 35- 42.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Cook & David A. (2005). The Actor -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 Hanson, M. (2001). Institutional Theory and Educational Change.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7(5).
- Corey, M. S., & Corey, G. (2010). 좋은 상담사 되기. [*Becoming a Helper*]. (이은경, 이지연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4년 출판).
- Kline, T.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New Delhi: Vistaar (Sage) publications
- Minuchin, S. (2013). 가족치유: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Family healing : strategies for hope and understanding*] (오제는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8년 출판).
-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2003).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5-44.
- Sexton, G. (2007). Relationships as the Key to Attracting and Keeping People.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6(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6.
- Sprenkle, D. H., & Blow, A. J. (2007). The role of the therapist as the bridge between common factors and therapeutic change: More complex than congruency with a worldview. *Journal of Family Therapy*, 29(2), 109-113.
- Skovholt, T. M. (2004). Master therapist: Exploring expertise in therapy and counseling. Master therapist: Exploring expertise in therapy and counseling.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 Skovholt, T. M., Grier, T. L. & Hanson, M. R. (2001). Career counseling for longevity: Self-care and burn out prevention strategies for counselor resili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3), 167-176.
- Wetchler, Joseph. L., & Hecker, L. (Eds.). (2014). *An introduction to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nd Ed.). Routledge.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 Whitaker, C. A., & Bumberry, W. M. (1988). *Dancing with the family: A symbolic-experiential approach*.
- 원 고 접 수 일 : 2023년 04월 11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3년 05월 08일
게 재 확 정 일 : 2023년 05월 11일

The Effects of Couple and Family Therapists of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Therapist Development: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 of Couple and Family Therapist's Self-Reflection and Working Alliance Experience with a Supervisor

Yuri Kang

Jay Oh

Hye Jin Kim

Euna Park

Kore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Daybreak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ouple and family therapist's working alliance experience with supervisors and self-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therapist development. A total of 216 couple and family therapis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techniques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family-of-origin experience of couple and family therapists had a direct effect on the path between working alliance experience with supervisors and self-reflection. Also, the working alliance experience of the couple and family therapists with supervisors revealed a direct effect on the path to self-reflection. In addition, the working alliance experience of the couple and family therapists with the supervisor exhibited a direct effect on the path to self-refl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Family-of-origin experiences, therapist development, working alliance experience with a supervisor, self-reflection

「부부가족상담연구」 발간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부가족상담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부부가족상담연구(Korean Journal of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라 한다.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발간 시기: 5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준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 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자의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로 3월과 8월에 개최한다.

제14조(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대학교수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제16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송부한다.

제 17조(심사기준)

-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의견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②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1.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
 2. 수정후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
 3.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 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친다.
 4. 게재 불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 ③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얻은 후 학술지에 수록된다.

제18조(심사 방법 및 절차)

- ① (접수) 저자는 논문원고 파일을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투고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대장에 투고논문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② (심사)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 ③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논문심사 의견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 사항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④ (게재 여부 최종 판정)
 1.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2.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 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단, 충분한 수정기간을 두기 위하여 최소 2개월 이후 수정논문을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3.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4.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한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수정후 게재가'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불가'를 포함하는 논문에 한해, 재심사에서 두 번 연속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총 3회의 '게재불가'를 받은)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게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논문의 수정)

1. 저자는 논문심사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과 논문수정답변서를 편집 위원에게 송부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된 논문의 수정내용 확인을 의뢰하며 재심사의견서와 수정/보완된 논문 1부, 저자의 논문수정답변서를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재심사의견서에 '게재가/게재불가' 여부를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재심사) / 3차심사(재심사, 최종). 3차 심

- 사에서도 '게재가'로 판정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논문작성요령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 ⑦ 예고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 ⑧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9조(심사결과와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근거)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정관 제1장 4조와 제6장 31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 하에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선정)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편집회의

제7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 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성립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위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위임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3.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1항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9조(심사 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타당성
2. 연구 필요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투고규정 준수정도
7. 논문체제의 적합성

제10조(심사위원의 위촉) 편집 위원회에서는 게재 희망 논문의 성격과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방법 및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논문의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종합 판정을 내린다.
3. 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의 원칙에 의거한다.
4.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5.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는 <붙임 표2>의 원칙에 의거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사후검수를 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12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협회 준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투고원고의 종류) 투고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제14조(학위논문투고)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예시) 연구는 저자명(연도)의 OO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목'을(를) 요약(or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3.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투고 금지) 본 협회에 논문을 공식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거나, 심사완료되어 논문이 정식게재된 경우, 동일 논문 또는 내용상 상당한 중첩이 있는 유사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해서는 안된다. 단, 정식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투고/게재 철회요청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다른 학술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다.

제16조(게재제한) 한 호에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허용하나, 게재되는 논문 2편 중 한 편에서 반드시 주저자여야 한다.

제17조(원고의 사용언어) 모든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원고의 경우 영어도 가능하다.

제18조(원고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고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19조(학술지 발간 및 접수) 학술지는 5월(1호)과 10월(2호)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또한 원고가 본 협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기한 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를 무효로 한다.

제20조(원고의 내용) 제출된 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21조(저작권)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본 학술지에 논문의 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시하지 않아도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23조(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심사 판정 체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 결과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붙임2>

「부부가족상담연구」 투고자 이의 신청 처리 체제	
이의 신청 범위 및 방법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 1차 처리 방법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 수정 실시.
이의 신청 최종 처리 방법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 의뢰.

「부부가족상담연구」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

1.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이다. 상세한 것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홈페이지의 학술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수시로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편집위원회로 논문원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논문 작성은 HWP(한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논문 작성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사항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홈페이지의 학술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 ① 원고제출시 1단. 게재확정 후(제목 및 초록은 1단 편집, 본문은 2단 편집으로 제출).
 - ② 편집용지: A4규격(210 × 297 mm) 세로용지
 - ③ 용지 여백 : 위쪽 35 mm, 아래쪽 35 mm, 좌측 30 mm, 우측 30 mm,
머리말 12 mm, 꼬리말 13 mm
용지 방향: 세로
 - ④ 문단모양: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⑤ 마침표 다음: 한 칸 띄울 것(두 칸이 아님)
 - ⑥ 논문 제목: 신명조 2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 ⑦ 저자: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 ⑧ 소속: 신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 ⑨ 국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단어수 120-150
 - ⑩ 주요어: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 ⑪ 본문: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 ⑫ 본문제목 1단계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부록'):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본문제목 2단계 : 중고딕 11호, 진하게, 양쪽 정렬
본문제목 3단계 : 신명조 10호, 양쪽 정렬, 들여쓰기 8
 - ⑬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내어쓰기 30
 - ⑭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5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 ⑮ 영문초록 저자: 신명조 10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 ⑯ 영문초록 소속: 신명조 9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 ⑰ 영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단어수 120-150
 - ⑱ 영문초록 key word: 중고딕 9호, 기울기,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위 15

⑨ 각주, 저자 주, 표 및 그림의 주: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주(중고딕 9호)라고 시작하고, 붙여서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어서 내용은 신명조로 작성

⑩ 표제목, 그림제목: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진하게

표 작성의 줄긋기: 표에 사용되는 줄은 명확성을 높여 줄 경우에만 사용하며 세로 줄은 사용하지 말고 가로 줄만 사용, 표의 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굵은 선(0.25mm)으로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0.12 mm)을 사용

4. 논문의 모든 내용, 특히 인용문, 그림, 표 등은 반드시 저작권법 및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제정한 연구진실성심사운영세칙에 위배되지 않게 기술해야 한다.
5. 논문제출 시에 게재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 및 저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논문의 모든 페이지는 1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도록 한다. 저자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 한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학위논문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신청서 및 논문제목 각주).
 -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상담관련등재학술지: 상담관련 논문 3편 이상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다.
7. 투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별도의 양식으로 논문에 표시할 수 있다.
8. 제출된 논문은 학술지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기로 한 논문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출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15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경험적 연구논문의 형식은 서론(제목 없이),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서론 앞부분에 제시하고, 다른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11.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동일저자에 의한 일련의 연구인 경우에 한해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논문전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모든 연구 논문은 120-150 단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은 APA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하고, 국문 및 영문 초록의 하단에 주요어 5개 이내로 표기한다.
13. 그림(figure와 graph)은 동판을 뜰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거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 로(graph의 경우 좌표 값의 명기) 제시한다. 표(table)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써 넣는다.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예: 그

림 1에서..., 표 1에서...).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는다.

14.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 쓰고,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조성봉(2018)은

(예 2) 오제은(2016: 15)은..., (2016년도 문헌의 페이지 15)

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1)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제은, 2016: 18).

(예 2) 한 연구(오제은, 2009; Harville Hendrix, 2004; Rick Brown, 2009)에 의하면...

라. 저자가 1~2인인 경우

괄호안에 제시 ... (윤선자, 윤정화, 2017), (Harville & Helen, 2020)

본문속에 참조 ... 윤선자와 윤정화(2017)는... , Harville과 Helen(2020)은...

마. 저자가 3인 이상 5인이하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시하되 첫 인용에는 모두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될 때에는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1) 첫 번째 인용

괄호안에 제시 ... (윤선자, 윤정화, 박은아, 2017), (Harville, Helen, & Hendrix, 2020)

본문속에 참조 ... 윤선자, 윤정화와 박은아(2017)는..., Harville, Helen과 Hendrix(2020)는...

(2) 반복 인용

괄호안에 제시 ... (김혜진 외, 2017), (Harville et al., 2020)

본문속에 참조 ... 김혜진 등(2017)은..., Harville 등(2020)은...

바. 저자가 6인이상인 경우

(1) 첫 번째 인용

공저자 6인까지 제시하거나 처음 사람만 기재해도 됨(김혜진 외, 2017),

(2) 반복 인용

3인이상인 경우와 동일함

15. 참고문헌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2)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5ed.) 양식을 따른다.

- 단행본의 경우: 책 이름은 진하게 한다.

이지영 (2015).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서울: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오제는 (2009).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수준과 부부관계 적응. **상담학연구**, 10(2),1217-1228.

- 학위논문의 경우

오소정 (2016). **중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김이해 (2008). **현대 한국가족 문화와 부부 및 가족상담**. 김유리(편), 111-121.

-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오제는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와 세계적 동향.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14-229). 서울: 한국심리학회.

- 신문기사의 경우

동아일보(2001. 9. 23). 사이버 대학 1학기 수강생 10명 중 8명 꼴 재등록. 19면.

-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①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주소를 적은 후 인출한 날짜의 연월일을 구분하여 적고 “ ... 에서 인출”이라고 적어 문장을 끝낸다. 반드시, URL과 인출한 날짜를 기입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eref.html>에서 2001. 9. 5 인출.

②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GVU's 8th WWW user survey.(n.d.).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에서 2000. 8. 8 인출.

④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 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

매일신문 (2020). 방탄소년단 뷔 솔로곡 'Inner Child' 팬들에게 전하는 감동 메시지. 2020. 02. 24. <http://news.imaeil.com/Entertainments/2020022410013569691>.

3)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McMillan, J. H. (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② 편집된 책의 경우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한다.

Wells, A. S. (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단,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쪽수도 함께 표기한다.

- ③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는다. 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를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 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할 것.

[예: Rogers, C. R. (1980/2007).].

Rogers, C. R.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는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0년에 출판)

- ④ 정기간행물의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출판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 중에 있는 경우 출판연도 대신 (inpress)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Diener, Marc J., & Monroe, Joel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rapeutic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8(3), 237-248.

- ⑤ 연구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출판도시: 보고서 제출 기관 명 순으로 한다.

가)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

Smith, J. E. (2008).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Hobbess Research Center.

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조직이나 기관명이 저자명이 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⑥ 미출판된 박사(석사)학위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순으로 한다.

Adelmann, P. K. (1989). *Emotional labor of employee well-being*(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USA.

⑦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가) 출판된 자료: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rgration in personality. In Dienstbier, 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나) 미출간된 자료

Byun, S. Y., & Kim, K. K. (2007). Cultural activities and student achievement in East Asian countries: An analysis of PISA 2000.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Balimore, USA.

⑧ 신문기사: 게재면과 출판 연월일을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기간행물과 동일하다.

Mayer, C. E. (2005, January 7). Group takes aim at junk-food marketing. *The Washington Post*, pp. E2, E3.

⑨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

National wage data. (2004, April 20). Bureau of Labor Satistics. Retrieved January 19, 2005, from [http:// 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http://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

16. 영어논문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논문의 작성 양식은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he 7th edition)에 따른다. 논문 분량은 6,000단어 이내(A4 15쪽 내외)로 하며, 초록은 120-15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 즉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2장 연구윤리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서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1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 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2.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에서 속이기)

-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4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15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6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조작·사방해·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제18조(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표절)

-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21조(연구자료의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인사 2인 이상과 편집위원 4인 이상을 위촉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학술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회는 확정된 학술윤리위원 명단을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학술윤리위원회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5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연구윤리 검증

제27조(부정행위 제보) 제보자는 본회에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29조(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 ① 예비조사는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30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예비조사결과는 피조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제3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 1.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34조(변론의 권리 및 이의제기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의를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6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율을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8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술지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3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행해진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회원가입 안내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회원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 해당하는 급수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절차

- (1)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신청 <http://www.kamft.or.kr>
- (2) 해당급수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입금방법: 성명+생년월일 기재]
- (3) 확인 후 회원가입 승인처리

■ 회원 가입 자격 요건

- (1) 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회의 가족.부부.다문화가족.내면아이치료.부모교육상담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준비하며 가입 신청을 한 후 매년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 (2) 전문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회의 가족.부부.다문화가족.내면아이치료.부모교육상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관리 및 재연수 참여 등 매년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 회비 및 계좌번호

구분	입회비	연회비
준회원	2만원	2만원
2급	2만원	3만원
1급	2만원	4만원
수련감독급	2만원	5만원

※ 신규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회원가입 승인처리가 됩니다.

※ 계좌번호: 국민은행 468001-01-064121 (사)한국가족상담협회

■ 문의처

사무국: kamft@kamft.or.kr

※ 제공하신 정보는 회원 지원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1. 본인 확인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2.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등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자택 주소, E-mail 주소
3. 회원의 전문성 확인 이용: 학위 관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회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며 삭제요청시 당사자는 개인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실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하여 주시고 동의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및 활동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